

인 제 지 명
 麟蹄의 地名

최병헌 편저



인제문화원

인 제 지 명
 麟蹄의 地名

최병헌 편저



인제문화원

발간사

인제문화원장 남덕우

우리 인제는 고구려 시대부터 부르던 이름이 있을 정도로 대대로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을 수백, 수천년 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불렀을까하는 궁금증을 누구나 한 번은 가져 봤을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인제의 지명은 무수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인제의 지명'은 인제군, 읍, 면은 물론이고 작은 동네, 산, 고개, 계곡 등의 명칭을 총 망라해서 명실상부한 인제의 모든 지명을 옛 이름부터 현재의 이름까지 모두 다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곳의 옛이름과 그 유래를 파악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은 우리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고장의 뿌리를 파악하는 일 중의 하나로 애항심을 북돋워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인제의 옛 이름을 모아놓은 기록만이 아닙니다. 마을, 개천, 굴, 산 등의 이름을 명명하게 된 유래와 구전하는 설화까지 알려주는 귀중한 문화자료라 하겠습니다. 구전되는 지명이나 유래 등을 기록해 놓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서서히 잊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군가 기록해 놓으면 문화유산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기록을 모두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으면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오랜 준비 끝에 소중한 이 기록을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제군의 옛 이름을 통해 우리 고장의 뿌리를 알고, 현재 지명이 명명된 이유를 알게 된다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제문화원은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을 계승,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료를 수집하고 지역민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정리해 우리에게 소중한 기록 유산으로 만들어 주신 저자 최병헌님께 감사드립니다.

머리글

10여 년 전 공직에서 물러나 얼마 안 되어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 즉, 중국 연변에서 친척을 찾는 편지를 받았는데, 연고지가 ‘느면 그면’이라는데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가아리’라고 알려주었다. 부름 부름이 좀 어색하기는 하나, 우리나라 행정체제가 시·군·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느면’은 조선 시대 말엽에 지금의 ‘인제읍’이 ‘현내면’, ‘방내면’, ‘내면’으로 불린 점을 고려할 때, ‘내면’에 해당되고, ‘그면’은 지금의 ‘가아리’가 ‘개면이’, ‘가아면촌’ 등으로 불리었기 때문이다. 물론 발음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편지를 보낸 이가 어렸을 때 들은 지명이라 기억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연변 현지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관습화된 발음에 의한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지명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름으로 지금은 아주 잊혀진 이름이라 할지라도 향토사 연구나 위와 같이 특별히 필요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의 이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이 책을 내려고 결심하게 되었다.

집필 과정에서 원로님들께서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지명도 다수 있었고, 정확한 위치나, 지명유래가 불확실한 것도 더러 있었다. 이런 지명들은 제외시킬까 하다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기회를 보아 보완하기로 하고, 확인된 범위 내에서 정리

하여 실었다.

끝으로 본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 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어여뻐 생각하시고, 향토사 연구와 더불어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1년 8월 9일

瓢溪 崔 秉 憲

목 차

머리글	3
광여도(廣輿圖):1750	7
여지도(輿地圖):1760	10
지승(地乘):1776~1787	13
해동지도(海東地圖):1800	16
지방지도(地方地圖):1872	19
조선지도(朝鮮地圖):1880	22
麟蹄郡의 옛 이름	26
인제읍(麟蹄邑)	28
상동리(上東里)29/남북리(南北里)31/합강리(合江里)36/가 아리(加兒里)42/덕산리(德山里)45/덕적리(德積里)50/고사 리(古沙里)53/원대리(院垔里)60/하추리(下楸里)65/귀둔리 (貴屯里)67/가리산리(加里山里)73	
남면(南面)	76
신남리(新南里)77/어론리(於論里)79/신평리(新豊里)81/부 평리(富坪里)82/갑둔리(甲屯里)87/정자리(亭子里)93/남전 리(藍田里)94/관대리(冠垔里)96/신월리(新月里)97/상하수 내리(上下水內里)100/수산리(水山里)103	
북면(北面)	106
원통리(元通里)106/월학리(月鶴里)110/한계리(寒溪里)116/ 용대리(龍垔里)130	

기린면(麒麟面)154
현리(縣里)154/방동리(芳東里)158/북리(北里)163/진동리
(鎭東里)167/서리(西里)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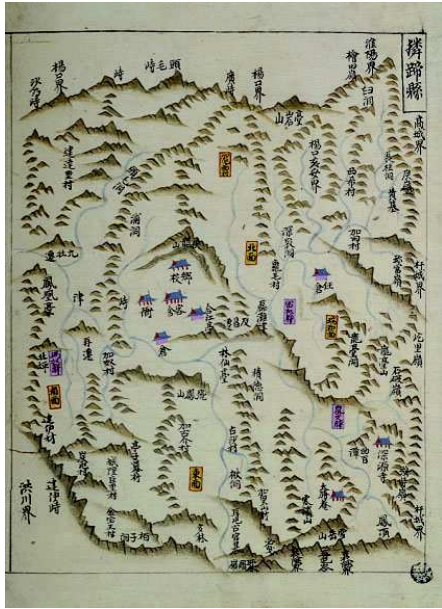
서화면(瑞和面)176
천도리(天桃里)177/서흥리(瑞興里)180/서화리(瑞和里)183/
가전리(加田里)185/서희리(西希里)187/심적리(深積里)188/
이포리(伊布里)189/장승리(長承里)191

상남면(上南面)194
상남리(上南里)194/하남리(下南里)199/미산리(美山里)202/
김부리(金富里)207

麟蹄郡의 유물(遺物). 유적(遺蹟). 명승지(名勝地)212

광여도(廣輿圖)

인제현은 지금의 기린면과 상남면을 제외한 인제군에 해당하며 읍치는 인제읍 상동리 일대에 있었다. 북한강의 지류 소양강의 최상류에 해당하며 지금은 소양댐이 만들어져 읍치 앞까지 물에 잠겨 있다. 읍치는 양구 경계의 廣峙로부터 뻗어 내려온 고을의 鎮山인 伏龍山 아래에 있는데 읍치 뒷산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북동쪽에서 내려온 소양강과 남쪽에서 흘러온 내린천



광여도(廣輿圖):1750

이 합류하는 지점에 淸江亭이 표시되어 있는데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지도 아래쪽에는 雪岳山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읍치의 동쪽에 있다. 설악산 위쪽에 보이는 深源寺는 1783년(정조 7)부터 백담사로 불리게 된 절로서 1988년에 전두환 부부가 1년 동안 유폐되어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지도에는 面과 驛뿐만 아니라 다른 강원도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마을 이름까지 적어 놓았다. 또한 고을의 동쪽으로 지나가는 백두대간 위에는 진부령, 미시령, 오색령 등 고개를 매우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기타 하천변에 자주 보이는 ○○遷에서 ‘遷’이란 ‘강가를 돌아가는 벼랑길’이란 뜻이다.(이기봉)

가고개촌(加古介村). 가구서촌(加舊西村). 가노촌(加奴村). 가리산촌(加里山村). 가전촌(加田村). 강치령(強峙嶺)¹⁾. 객사(客舍). 건달리촌(建達里村). 건이촌(建伊村). 건이치(建伊峙). 고사촌(古沙村). 곡백택(曲百澤)²⁾. 광치(廣峙). 구동(白洞). 구모촌(龜毛村). 구장천(九壯遷). 금보왕촌(金寶旺村). 남면(南面). 남문역(嵐文驛)³⁾. 뇌탄진(磊灘津). 다림(多林). 대승암(大勝菴). 대암산(臺岩山). 동면(東面). 두모동(頭毛洞). 두모치(頭毛峙). 마노역(馬奴驛). 반창천(反昌遷). 백자동(栢子洞). 북룡산(伏龍山). 봉항(鳳項)⁴⁾. 봉황대(鳳凰臺). 부배역(富杯驛)⁵⁾. 북면(北面). 북평(北坪). 비봉산(飛鳳山). 사내치(沙乃峙). 서화면(瑞和面). 서희촌(西希村). 석과령(石破嶺). 설악산(雪岳山). 성황거리촌(城隍巨里村). 소동나령(所冬羅嶺). 심원사(深源寺). 심적동(深寂洞). 오색령(五色峯). 용대동(龍臺洞). 용대산(龍臺山). 이둔고관기(耳屯古官基). 임선대(林仙臺)⁶⁾. 임창(任倉). 장왕동(長枉洞). 재천(再遷). 적덕동(積德洞). 정자막촌(亭子幕村). 진(津). 진부령(珍富嶺). 창(倉). 추동(楸洞). 탄둔촌(炭屯村). 탄령(炭嶺). 포동(浦洞). 필예(必曳). 한계산(寒溪山). 합강정(合江亭). 향교(鄉校). 황기(黃基). 회전령(檜田嶺). 흘리령(屹里嶺)

1) 광치령(廣峙嶺)

2) 곡백담(曲百潭)

3) 남교역(嵐交驛)

4) 봉정(鳳頂)

5) 부림역(富林驛)

6) 비선대(秘仙臺)

여지도(輿地圖)

《광여도》의 인제현 지도와 전체적인 구도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읍치 오른쪽의 瑞和縣이 《광여도》에는 瑞和面, 그 아래쪽의 嵐交驛이 嵐丈驛으로 되어 있다. 표현 양식은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비슷한 《해동지도》의 인제현 지도에는 2개 모두 본 지도처럼 그려져 있다. 주기에는 瑞和面이 기록되어 있어 《해동지도》에 틀리게 기록된 것을 《광여도》의 필사 시에 수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읍치 위쪽의 加兒面村에는



여지도(輿地圖):1760

노란색 사각형이 표시되어 있고, 《광여도》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기에는 이런 명칭의 면이 없어 본 지도와 《광여도》의 필사 시에 면이란 글자 때문에 잘못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동지도》에도 이 지명이 나오지만 본 지도와 《광여도》에 사용된 면의 기호가 일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지도는 서북쪽을 위로 향해 그렸다. 읍치의 산줄기가 서북쪽으로부터 뻗어 내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읍치를 지나 왼쪽 서남(西南)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현재의 소양강이다. 아래쪽 동남(東南)에서 흘러와 읍치에서 소양강에 합류되는 하천이 내린천이고, 오른쪽 위의 高城界에서 흘러오는 하천이 현재의 인북천이다. 내

린천 方面에는 《해동지도》에 麒麟界란 명칭이 적혀 있지만 본 지도와 《광여도》에는 적혀 있지 않다. 여기서 麒麟이란 춘천의 越境地였던 麒麟面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春川界라고 적는 것이 더 합당하다. 기타 北面은 嵐交驛 方面에 적어 넣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이기봉)

가고개촌(加古介村). 가노촌(加奴村). 가리산촌(加里山村). 가전촌(加田村). 간성계(杆城界). 객사(客舍). 건달리촌(建達里村). 건이촌(建伊村). 고사촌(古沙村). 고성계(高城界). 곡백담(曲百潭). 광치(廣峙). 구동(白洞). 구모촌(龜毛村). 구장천(九壯遷). 금보왕촌(金寶王村). 남곡역(嵐交驛). 남면(南面). 뇌탄진(磊灘津). 다림(多林). 대승암(大勝菴). 대암산(臺岩山). 동면(東面). 두모동(頭毛洞). 두모치(頭毛峙). 마노역(馬奴驛). 미치령(彌峙嶺). 반창천(反昌遷). 백자동(栢子洞). 복룡산(伏龍山). 봉정(鳳頂). 봉황대(鳳凰臺). 부배역(富杯驛)⁷⁾. 북면(北面). 북평(北坪). 비봉산(飛鳳山). 사내치(沙乃峙). 서화현(瑞和縣). 서희촌(西希村). 석과령(石破嶺). 설악산(雪岳山). 성황거리촌(城隍巨里村). 소동라령(所冬羅嶺). 심수사(深須寺)⁸⁾. 심적동(深寂洞). 아(衙). 양구계(楊口界). 양구해안계(楊口亥安界). 양양계(襄陽界). 오색산(五色山). 용대동(龍臺洞). 용대산(龍臺山). 이둔고관기(耳屯古官基). 인제현(麟蹄縣). 임선대(林仙臺)⁹⁾. 임창(任倉). 재천(再遷)¹⁰⁾. 적덕동(積德洞). 정자모촌(亭子幕村)¹¹⁾. 진(津). 진부령(珍富嶺). 창(倉). 추동(楸洞). 탄둔촌(炭屯村). 포동(浦洞). 필예必曳). 한계산(寒溪山). 합강정(合江亭). 향교(鄉校). 황기(黃基). 회동楡洞). 회양계(淮陽界). 회전령(檜田嶺). 흘리령(屹里嶺)

7) 부림역(富林驛)

8) 심원사(深源寺)

9) 비선대(秘仙臺)

10) 주천(舟遷)

11) 정자막촌(亭子幕村)

지승(地乘)

강원도 중부 내륙의 북한강 상류에 소재하였던 인제현을 그린 회화식 지도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인제현은 지금 기린면과 상남면을 제외한 인제군에 해당된다. 당시 두 면은 춘천부에 속해 있었다. 인제군의 북쪽 지역은 휴전선으로 분리되어 있다. 지도 명칭에서 사용된 ‘獐’字는 ‘麟’의 속자이다. 실제 형태는 남북으로 긴 형태이나 다른 회화식 지도



지승(地乘): 1776-1787

와 마찬가지로 정방형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객사, 아사, 향교로 구성된 읍치를 진산인 伏龍山과 함께 지도의 중앙에 배치하였다. 읍치는 지금의 인제읍 상동리·합강리 일대에 소재하였다. 주변의 산세는 매우 험준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지도의 동쪽에 백두대간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고성, 간성, 양양과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북으로는 양구, 서남으로는 홍천과의 경계도 산지로 표현되었다.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하천의 여러 지류들이 서류하면서 읍치의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하천은 북한강 상류의 소양천으로 댐의 건설로 소양호의 일부가 되어 있다. 지도 오른쪽 위의 하천은 지금의 서화천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龍臺山과 雪嶽山에서 발원한 하천은 각각 북천과 한계천

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북천에 합류하는 하천은 지금의 영시천(永矢川)에 해당된다. 읍치 남쪽 동면에서 북쪽으로 흘러 유입되는 하천은 내린천을, 읍치 서쪽에서 남류(南流)하여 합류되는 하천은 가아천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지명 등 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화식군현지도 인제현 해제 참조) 도로망의 내용은 『해동지도』와 유사하다. 읍치에서 동쪽으로 서화천을 따라 연결된 도로는 炭嶺을 지나 고성으로 이어진다. 간성과는 진부령, 양양과는 오색령을 통해 도로가 적색으로 그려져 있다. 북쪽의 양구로는 廣峙, 沙乃峙를 통해 연결된다. 이면 주기에는 民戶 1,411戶, 田 130結85負5束, 畓 10結38負9束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부분 밭농사가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김기혁)

가노촌(加奴村), 가리산촌(加里山村), 가아면촌(加兒面村), 가전촌(加田村), 객사(客舍), 건원리촌(建遠里村)¹², 건이촌(建伊村), 고사촌(古沙村), 곡백담(曲白潭), 광치(廣峙), 구동(白洞), 구모촌(龜毛村), 구장천(九壯遷), 금보옥촌(金寶玉村)¹³, 남교역(嵐交驛), 남면(南面), 뇌탄진(磊灘津), 다림(多林), 대승암(大勝菴), 대암산(臺岩山), 동면(東面), 두모동(頭毛洞), 두모치(頭毛峙), 마노역(馬奴驛), 미시령(彌侍嶺), 반창천(反昌遷), 백자동(柏子洞), 복룡산(伏龍山), 봉항(鳳頂)¹⁴, 봉항대(鳳凰臺), 부촌역(富村驛)¹⁵, 북면(北面), 북평(北坪), 사내치(沙乃峙), 서화현(瑞和縣), 서희촌(西希村), 석과령(石坡嶺), 설악산(雪岳山), 성황신리촌(城隍臣里村)¹⁶, 소동라령(所冬羅嶺), 심원사(深源寺), 심적동(深寂洞), 아(衙), 오색령(五色嶺), 용대동(龍臺洞), 용

12) 건달리촌(建達里村)

13) 김보왕촌(金寶王村)

14) 봉정(鳳頂)

15) 부림역(富林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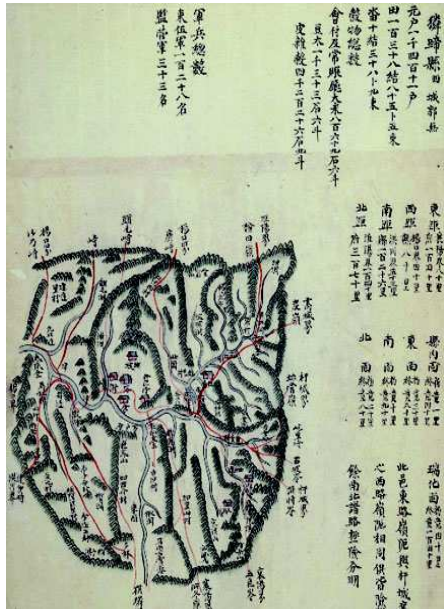
16) 성황거리촌(城隍巨里村)

대산(龍臺山). 이둔고관기(耳屯古官基). 임선대(林仙臺)¹⁷. 임창(任倉). 장생동(長生洞). 적덕동(積德洞). 주천(舟遷). 진(津). 진부령(珍富峯). 창(倉). 추동(楸洞). 치(峙). 탄둔촌(炭屯村). 탄령(炭嶺). 포동(浦洞). 필예(必曳). 한계산(寒溪山). 합강정(合江亭). 향교(鄉校). 회동(檜洞). 회전령(檜田峯). 흘리령(屹里峯)

17) 비선대(秘仙臺)

해동지도(海東地圖)

고려 때 인제로 불리기 시작하였으며 1413년(태종 13)에 현감을 두었다. 현재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서화면, 북면, 남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현재의 인제군에서 상남면, 기린면(춘천부 소속)은 제외된다. 인제읍이 과거의 중심지가 된다. 이 곳 읍치는 邑城없이 客舍, 衙舍, 倉庫만 그려져 있으며 鄕校는 인제읍 상동리에 있었다. 縣의 바로 뒤 伏龍山이 鎮山에 해당한다. 서화면은 과거 瑞和縣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 세종 때부터 인제현에 속하게 되었으며 서화리가 과거의 읍치에 해당하였다. 이 지도에서도 瑞和縣이 표시되어 있다. 縣의 동쪽은 백두대간이 되고 백두대간에서 나온 산줄기들이 縣을 둘러싸고 있어 험준하며 산줄기 사이로 하천이 흘러나와 縣의 앞쪽에서 합하여져 合江이 된다. 북쪽의 소양강과 남쪽의 내린천이 합하여진 것인데 合江가에 合江亭이 표시되어 있다. 이 강은 서쪽으로 흘러 북한강과 합류된다. 지금은 댐으로 인하여 소양호가 되어 있다. 하천을 따라 津과 倉庫들을 표시해주고 있다. 지도에서 산들을 중첩하여 표현함으로 험준함을 표현하였으며 교통의 통로가 되는 고개(嶺·峴·峙)



해동지도(海東地圖):1800

거 瑞和縣이 있었던 곳으로 조선 세종 때부터 인제현에 속하게 되었으며 서화리가 과거의 읍치에 해당하였다. 이 지도에서도 瑞和縣이 표시되어 있다. 縣의 동쪽은 백두대간이 되고 백두대간에서 나온 산줄기들이 縣을 둘러싸고 있어 험준하며 산줄기 사이로 하천이 흘러나와 縣의 앞쪽에서 합하여져 合江이 된다. 북쪽의 소양강과 남쪽의 내린천이 합하여진 것인데 合江가에 合江亭이 표시되어 있다. 이 강은 서쪽으로 흘러 북한강과 합류된다. 지금은 댐으로 인하여 소양호가 되어 있다. 하천을 따라 津과 倉庫들을 표시해주고 있다. 지도에서 산들을 중첩하여 표현함으로 험준함을 표현하였으며 교통의 통로가 되는 고개(嶺·峴·峙)

들은 명칭과 함께 표시해 두었다. 嵐校驛, 富林驛이 高城, 杆城으로 가는 도로 위에 있었다. 행정구역상의 面과 마을(村)의 위치와 명칭을 기록하였으며 深源寺, 大勝庵 등의 사찰을 그림과 함께 표시해 주고 있다. 길이 험준하여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으며 많은 눈과 적은 인구로 유명하였던 지역이다.(이현군)

가고개촌(加古介村). 가노촌(加奴村). 가리산촌(加里山村). 건달리촌(建達里村). 건이촌(建伊村). 고사촌(古沙村). 곡백택(曲百澤)¹⁸⁾. 광치(廣峙). 구동(白洞). 구모촌(龜毛村). 구장천(九壯遷). 금보왕촌(金寶旺村). 남교역(嵐交驛). 남면(南面). 다림(多林). 대승암(大勝庵). 대암산(臺岩山). 동면(東面). 두모동(頭毛洞). 두모치(頭毛峙). 마노역(馬奴驛). 미시령(彌待峯). 반창천(反昌遷). 방호대(方戶臺)¹⁹⁾. 백자동(栢子洞). 봉정(鳳頂). 봉황대(鳳凰臺). 부림역(富林驛). 북면(北面). 북평(北坪). 비봉산(飛鳳山). 비선대(秘仙臺). 사내치(沙乃峙). 서화현(瑞和縣). 서희촌(西希村)

석계진(石溪津). 석파령(石坡峯). 설악산(雪岳山). 성황거리촌(城隍巨里村). 소동나령(冬冬羅峯). 심원사(深源寺). 심적동(深寂洞). 아(衙). 여아면촌(如兒面村)²⁰⁾. 오색령(五色峯). 왕창(往倉)²¹⁾. 용대동(龍臺洞). 용대산(龍臺山). 이둔고관기(耳屯古官基). 적덕동(積德洞). 정자막촌(亭子畝村). 주천(舟遷). 진(津). 진당령(珍當嶺)²²⁾. 창(倉). 추동(楸洞). 치(峙). 탄둔촌(炭屯村). 탄령(炭嶺). 포동(浦洞). 필예(必曳). 한계산(寒溪山). 합강정(合江亭). 향교(鄉校). 회동(檜洞). 회전령(檜田嶺). 흘리령(屹里峯)

18) 곡백담(曲百潭)

19) 만호대(萬戶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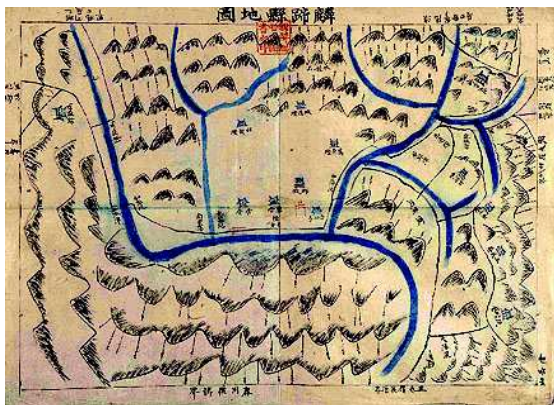
20) 가야면촌(加兒面村)

21) 임창(任倉)

22) 진부령(珍富嶺)

지방지도(地方地圖)

인제현(麟蹄縣)은 지금의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북면, 남면, 상남면, 기린면 일대에 해당한다. 읍치는 인제읍 합강리, 상동리 일원에 있었다. 곳곳에 높은 산들이 포진해



지방지도(地方地圖):1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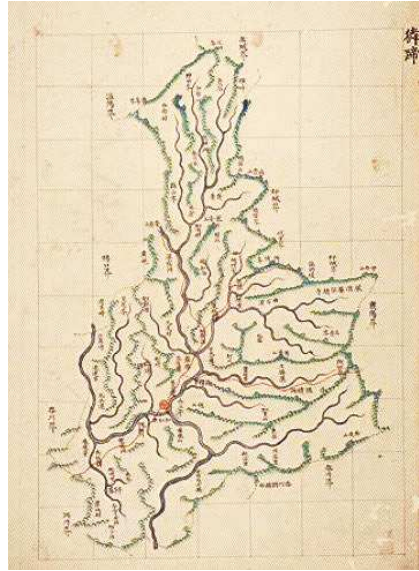
있어서 평지가 매우 적다. 고을의 중앙을 내린천이 흘러나가며 소양강과 합류한다. 흑색으로 산지를 표현하였는데 봉우리에 마치 전봇대 모습을 그려 수목을 표현한 점이 이채롭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附圖인 東覽圖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도의 외곽에 사방 경계를 표시하였다. 읍치를 주변 지역에 비해 확대시켜 강조하였는데 客舍와 官舍를 비롯하여 사직단, 여제단, 성황단, 문묘의 3단 1묘를 그려 넣었다. 고을의 진산은 북쪽의 伏龍山이며 동남쪽의 설악산에는 백담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도 그려져 있다. 동쪽의 寒溪洞은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계곡인데 수려한 경치가 嶺西 지역에서 제일로 꼽히던 곳이다. 읍치 동쪽의 舍江亭은 인제읍 합강 2리에 있는 정자로서 소양강 상류인 내린천이 기린 방면에서 흘러내리고 서화강이 한계천과 원통에서 합류된 데서 연유하여 命名된 것이다. 이 정자는 현감 李世億(재임기간: 1675~1677)이 1676년(숙종 2)에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로진(加路津).가로현(加路峴).간령(間嶺).객사(客舍).관사(官舍).
 남교역(嵐校驛).남리장(南里場).두모동령(頭毛洞嶺).마로관(馬路
 館).미시령(彌矢嶺).백담사(百潭寺).복룡산(伏龍山).봉항암(鳳項
 菴)²³⁾.삼치령(三峙嶺).서화창(瑞和倉).석탄진(石灘津).설악산(雪岳
 山).성황단(城隍壇).어론현(於論峴).여제단(勵祭壇).영시암(永矢
 菴).오색령(五色嶺).오세암(五歲菴).용대금산(龍垌禁山).용두리(龍
 頭里).원통역(元通驛).읍리장(邑里場).읍창(邑倉).진부령(珍富嶺).
 한계동(寒溪洞).함강정(合江亭).향교(鄉校).홍진포(紅塵浦).회전령
 (檜田嶺)

23) 봉정암(鳳頂菴)

조선지도(朝鮮地圖)

인제현은 기린면과 상남면을 제외한 강원도 인제군에 해당된다. 읍치는 인제읍 상동리·합강리 일대에 있었으며, 고을의 鎭山은 '북쪽 2리에 있었다'는 伏龍山이다. 이 지도의 명칭으로 사용된 獐蹄에서의 '獐'은 '麟'의 속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고을의 정확한 한자 명칭은 麟蹄이다. 북쪽에서 흘러와 서남쪽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은 북한강의 지류인 소양강이다. 지도에는 伊布川·磊灘·彌勒川



조선지도(朝鮮地圖):1880

등의 명칭이 적혀 있다. 일제초기에 하천 명칭의 단일화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하천이라도 구간마다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읍치 동남쪽에서 소양강에 합류하는 하천은 요즘 리프팅으로 각광받고 있는 내린천이다. 다만 하천의 표시에서 일부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인제 서쪽에서 소양강 본류가 北流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제읍에서 거의 西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양강 상류의 양구로부터 臺岩山 근처로 들어오는 하천이 굵게 표시되어 있어, 마치 본류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는 인제의 북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더 큰 본류이다. 셋째, 내린천 본류가 마치 정남에서 오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재로는 동남 방향에서 흘러 들어온다. 김정호의 《大東輿地圖》에서는 둘째 오류는 시정되어 있지만 첫째와 셋째 오류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내린천에 있는 古耳屯古縣은 地誌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海東地圖》 인제현 지도에는 耳屯古官基로 나오며, 현재의 기린면 귀둔리를 지칭한다. ‘귀둔’에서 ‘귀’는 뜻을 따고, ‘屯’은 음을 딴 것이다. 추동리와 이탄리(귀둔리)도 같은 수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 위쪽의 瑞和面 지역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屬縣인 瑞和縣으로 기록된 곳이다. 屬縣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책의 古蹟조에 기록될 경우 이미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고을 동쪽으로는 현재 태백산맥으로 불리는 백두대간이 북에서 남으로 지나간다. 이 백두대간 위에 雪岳山(1,707.9m)이 표시되어 있지만, 특별히 강조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인들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五色峯·彌時峯·珍富峯 등이 남북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에는 封山도 2개나 표시되어 있다. 왕실의 棺槨用 黃腸木을 생산하기 위해 일반인의 벌목을 금지시켰던 黃腸封山을 의미한다. 읍치 오른쪽의 反昌遷과 왼쪽의 九壯遷에서 ‘遷’은 벼랑길을 의미한다. 기타 중요한 마을(里나 村)의 표시도 아주 자세한 편이다.(이기봉)

가라리(加羅里).가력리(加曆里).가리산(加里山).가여진(加如津).가전재(加田材)²⁴.감연동(監淵洞).건달리(建達里).계산령(雞山峯).고원통(古元通).고이둔고현(古耳屯古縣).곡백담(曲百潭).구미재(九尾材)²⁵.구장천(九壯遷).국차산(國車山).금보옥동(金寶玉洞)²⁶.남면(南面).남핵역(嵐核驛)²⁷.뇌탄(磊灘).대승폭(大勝瀑).대암산(臺

24) 가전촌(加田村)

25) 구미촌(九尾村)

26) 김보왕촌(金寶王村)

27) 남교역(嵐校驛)

岩山). 덕산(德山). 덕적동(德積洞). 덕적리(德積里). 도리치(道里峙).
 동면(東面). 두미령(豆尾峯). 마기산(馬耆山)²⁸⁾. 마노역(馬奴驛). 미
 륵천(彌勒川). 미시과(彌時坡). 막달산(朴達山). 반창천(反昌遷). 백자
 동(栢子洞). 봉산(封山). 봉정암(鳳頂菴). 봉황대(鳳凰臺). 북면(北面).
 북창(北倉). 비봉산(飛鳳山). 사라치(沙羅峙). 삽치(插峙). 서화면(瑞
 和面). 서희재(西希材)²⁹⁾. 설악산(雪岳山). 소과령(所坡峯). 송라동(松
 羅洞). 송치(松峙). 송현리(松峴里). 심적동(深寂洞). 심적사(深績寺).
 안북재(岸北材). 오색령(五色峯). 용대산(龍臺山). 용두(龍頭). 용천리
 (龍川里). 원통역(元通驛)³⁰⁾. 응봉령(膺峯峯). 이탄리(耳呑里). 이포천
 (伊布川). 인제역(麟蹄驛). 장계동(長桂洞). 정자막(亭子幕). 지리실
 (地理室). 진부령(珍富峯). 추동리(秋洞里). 춘천기린면(春川麒麟面).
 탄곡(炭谷). 풍곡리(豊谷里). 필여령(彌如峯). 한계산(寒溪山). 합강정
 (合江亭). 화령(火峯). 황대(黃臺)³¹⁾. 회전령(檜田峯). 흘리령(屹里峯)

28) 마기라산(馬耆羅山)의 주린 말. 지금의 향로봉

29) 서희촌(西希村)

30) 옛 부림역(富林驛)

31) 예전의 황기(黃基)

麟蹄郡의 옛 이름

- 오사회(烏斯回): 고구려 시대에 부르던 인제의 옛 이름이다. 까마귀가 많이 날아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여지도서. 지리지. 연려실기술)
- 저족현(猪足縣): 고구려 시대에 부르던 인제의 다른 옛 이름이다. 지형이 돼지발족 모양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돼지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 정설(定說)로 생각된다.(여지도서. 지리지. 연려실기술)
- 희제현(豨蹄縣): 신라시대에 경덕왕(景德王)16년(757)에 개명한 인제의 옛 이름이다. 저족현의 해설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 인제현(麟蹄縣): 고려 태조(太祖) 23년(940)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통상 전해오기는 기린의 발족 모양을 하여 인제라 하였다고 전해 오나, 이는 한자 풀이에 불과하고, 처음에는 돼지가 많았다거나 돼지의 발족 모양을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이었는데, 돼지보다는 영물(靈物)에 속하는 기린(麒麟)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여지도서.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 영소현(靈昭縣): 조선 초기의 인제의 이름이다. 용인인(龍仁人) 이여순(李汝詢)³² 현감이 영소(靈昭)라는 편액을 걸었다고 하는데, 조지

32) 이여순(李汝詢): 본명은 순악(舜岳)이고 자는 죽용(竹慵)이다. 1663년에 사마시

겸(趙持謙)³³⁾이 쓴 「영소관기(靈昭館記)」를 보면, 영소(靈昭)라는 이름을 취한 것은 한유(韓愈)의 획득해(獲麟解)³⁴⁾의 의미를 따르고자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획득해에 ‘인지위영소소야영어시서어춘추.....(麟之爲靈昭昭也詠於詩書於春秋.....)’라고 기록되어 있다. 풀이하면, “기린의 신령함은 잘 알려져 있다. <시경>에서도 읊고 있으며, <춘추>에도 쓰여 있다.”라는 내용이다. (여지도서. 관동읍지. 인제지)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며, 천거(薦學)로 참봉(參奉), 익찬(翼贊)을 지내고, 여러 군의 수령을 역임한 뒤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었다. 인제현감으로는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있다가 1681년 2월에 왔으며, 1686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떠났다.

- 33) 조지겸(趙持謙):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광보(光甫), 호는 오재(迂齋)·구포(鳩浦). 할아버지는 좌의정 익(翼)이며, 아버지는 이조판서 복양(復陽)이다. 167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자·검열·이조좌랑·지평 등을 역임했으며, 1682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다. 당시 같은 서인의 김익훈(金益勳) 등이 남인인 허새(許璽)·허영(許瑛) 등에게 반역을 피하도록 꾸며 남인의 뿌리를 뽑으려 하자, 한태동(韓泰東)·유득일(俞得一) 등 서인의 소장파들과 함께 이를 탄핵했다. 그러나 서인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김익훈을 변호하자 다시 송시열을 논척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윤선거(尹宣擧)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그도 윤선거의 아들로 송시열과 사감으로 대립하고 있던 윤증(尹拯)과 우의가 두터웠다. 이러한 이유로, 서인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분당하게 되자 윤증과 함께 소론의 거두가 되었다. 그 후 부제학·대사성·형조참의를 지내고 1685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고산찰방으로 있을 때 전임감사 이원록(李源祿)의 아들이 역마(驛馬)를 사용하자 이를 묵인하지 않고 계(啓)를 올려 이원록을 파면시키는 등 공평무사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광주(廣州) 명고서원(明臯書院), 고성(高城)의 향사(鄉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오재집>이 있으며, 편서로는 <송곡연보 松谷年譜>가 있다.

- 34) 획득해(獲麟解): 한유(韓愈)의 작품명.

인제읍(麟蹄邑)



군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현내면(縣內面)이라고 하여 하도리(下道里), 상도리(上道里), 덕산(德山), 덕적리(德積里), 청계동(?溪洞), 고사동(古沙洞), 7개리를 관할하였는데 1906년에 군내면(郡內面)으로 고치고 상도(上道), 동(東), 남(南), 북(北), 합강(合江), 덕산(德山), 니평(泥坪), 가아(加兒), 덕적(德積), 고사(古沙), 차평(車坪)의 11개 리로 개편(改編)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行政區域) 통폐합에 따라 동면(東面)의 원대(院垞), 하추동(下楸洞), 이탄(耳呑)을 편입(編入)하여 귀둔(貴屯), 하추(下楸), 원대(院垞), 가리산(加里山), 고사(古沙), 남북(南北), 상동(上洞), 합강(合江), 가아(加兒), 덕산(德山), 덕적(德積)의 11개 리로 개편하고 1916년 인제읍(麟蹄邑)으로 고쳤다.

1948년 38°선이 생기면서 38°선 이북 10개 리가 共産 治下로 넘어가고 38°선 이남 원대리는 홍천군(洪川郡) 신남면(新南面)에 편입되었다가 1951년에 다시 환원되어 11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거하여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행정리(行政里)는 20개리다.

동쪽으로는 양양군 서면(西面), 서쪽은 양구군(楊口郡) 남면(南面), 남쪽은 기린면(麒麟面)과 남면 북쪽은 북면에 닿아 있고 군 단위 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 현내면(縣內面): 현재 인제읍의 옛 지명. 현 관할 구역에서 원대리(院垞里), 하추리(下楸里), 귀둔리(貴屯里)를 제외한 지역. **(여지도서. 판동읍지)**
- 군내면(郡內面): 현재 인제읍의 옛 지명. **(조선지리지자료)**
- 방내면(坊內面): 현재 인제읍의 옛 지명. **(판동읍지)**
- 내면(內面): 현재 인제읍의 옛 지명. **(한국독립운동사자료)**
- 동면(東面): 현재 인제읍 관할 하에 있는 원대리(院垞里)와 하추리(下楸里), 귀둔리(貴屯里)를 묶어서 동쪽에 있다하여 동면(東面)이라 하였다. **(여지도서. 머동지지)**

상동리(上東里): 본래 현내면(縣內面)·군내면(郡內面) 지역으로 상도리(上道里)·하도리(下道里)·동리(東里)로 구분되었으나,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상동리(上東里)로 개칭 하였다. 행정리는 5개리다.(한국지명총람)

기룡산(起龍山): 인제읍의 진산(鎭山)으로 행정구역상 상동리에 소재하는데, 그 모습이 용이 엮드려 있는 형상이라 하여 ‘복룡산(伏龍山)’이라 하였는데, 뒤에 엮드려 있는 용보다 승천(昇天)하는 용이 지역발전에도움이 된다하여 ‘기룡산(起龍山)’으로 개명 하였다. 과거에는 ‘와룡산(臥龍山)’이라고도 하였다.(조선지리지자료)

맹맹이버덩: 남북리(南北里)와 경계가 되는 산부리 끝에 있는 버덩으로 맹맹이가 많았다고 한다.(인제군사)

명당마루: 상동리 앞에 있는 큰 들로 명당의 집터가 있다고 하며 경지면적이 일만여 평이라고 전해오고 있으나, 지금은 모두 주거지로 개발이 되었다.(인제군사)

백련정사(白蓮精舍): ‘서릿골’에 있는 절인데, ‘서릿골’에 있다하여 ‘서릿골절’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의 절은 1968년 강석천(姜昔泉)스님이 건립하였다.(인제군사)

비봉산(飛鳳山): 기룡산과 마주하고 있는 강 건너에 있는 산이다. 새가 나는 형상이라 하여 취한 이름이다.(인제군사)

사직당坪(社稷堂坪): 상동리에 소재한 낙원 아파트 바로 앞이다. 이조시대 이곳에 ‘사직단(社稷壇)’이 있었다.(조선지리지자료)

상도리(上道里): 현 인제 읍내에서 옛길을 중심으로 하여 관문의 남쪽 즉 상동리와 합강리 일원으로 길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여지도서. 판동읍지)

성황치(城隍峙): 행정구역상으로 상동리와 남북리의 경계가 되는 산부리 끝에 있는 고개로 땡땡이 풀³⁵⁾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성황당(城隍堂) 당집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한다. 현재 한전출장소가 위치한 뒤편에 소재한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수리골: ‘기룡산(起龍山)’의 뒤편 서북쪽에 위치하며, ‘백련정사(白蓮精舍)’가 있는 곳을 말한다. 지금은 ‘수리골’이 변하여 ‘서리골’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강원도 땅이름)**

수리봉: ‘서리골’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옥거리(獄街里): 남북리에 소재하였었는데 옥(獄)터로 가는 길가에 붓도랑이 있었다 하여 옥토랑 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새마을 사업으로 복개(覆蓋)되어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한전 출장소와 연립주택 사이가 된다. **(조선지리지자료)**

전강(前江): 인제읍내 앞으로 흐르는 강을 말한다. 우리 말 이름은 ‘귀양여울’이라고 하며, ‘앞강’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천곡사(泉谷寺): ‘서릿골’에 있었으며, 지금의 ‘백련정사’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데, 이곳에서부터 샘이 용출하며, 그 물이 흐르며 계곡을 이룬다하여 ‘천곡사(泉谷寺)’라 하였다고 한다. 신라(新羅)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가 어렵다. **(강원도 땅이름)**

하도리(下道里): 현 인제 읍내에서 옛길을 중심으로 하여 관문의 서쪽 즉 남북리 일원으로 길 아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35) 땡땡이풀: 미나리아재비 목 방기(防己)과의 쌍떡잎식물. 뿌리는 약용으로 쓰이고, 줄기는 바구니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남북리(南北里): 본래 동면(東面)지역이던 남리(南里)와 북리(北里)로 구분되어 있던 사구미(沙丘尾)·조림이·금발이·뒤울을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병합하여 남북리(南北里)라고 개칭하였는데, 남리(南里)와 북리(北里)를 병합했다 하여 취한 이름이다. 행정리는 2개리다. (한국지명총람)

가넷고개: ‘가로현(加路峴)’의 우리말 이름이다. 1958년 군부대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고개 마루에 “군축령(軍築嶺)”이라 새긴 석비(石碑)를 세운 뒤 지금까지 ‘군축령’으로 불리우고 있다. (인제군사)

가로현(加路峴): 남북리에 소재한 고개로 지금 터널이 나기 전에 넘어 다니던 고개다. ‘간인현(良寅峴)’으로 표기 된 곳도 눈에 띈다. 우리말 이름은 ‘가넷고개’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검발리(劍發里): ‘금바리’의 한자 표기 상 잘못된 지명이다. (인제지명총람)

겸암坪(鎌岩坪): ‘남리(南里)’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낫바우’라 하는데, 지금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경노정(敬老亭): ‘군축령’고개 옆 산에 있는 정자로 육군 제3군단장 오덕준(吳德俊) 장군이 노인들을 위하여 1958년 8월에 건립하였다. (인제군사)

괴마자뿌리: 옛 ‘남리(南里)’에 있다고 하나 현재의 위치를 이는 이가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금발평(金鉢坪): 남북리 ‘사구미’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적에 사금(砂金)을 채취하였다고 전한다. 우리말 이름은 ‘금바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한국지명총람)

남리(南里): 남북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가운데 돌무더기가 곳곳에 담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남리전천(南里前川): 남북리 ‘서릿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과 합류되는 지점의 상류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남리다리목’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남바우뜰: 남북리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지금의 ‘하늘내린 썬터’와 두부공장이 소재한 지역이다. **(한국지명총람)**

냉골: ‘어름냉골’의 주린 이름이다. **(인제군사)**

달은리(達隱里): 남북리 강 건너 마을 동쪽에 위치한 마을을 말하나 지금은 폐동되었다. 순 우리말 이름은 ‘박달곶치’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담안: 옛 ‘남리(南里)’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맹맹이버당: ‘성황치(城隍峙)’ 밑에 소재한 들 이름이다. 맹맹이풀이 많이 자라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성황당(城隍堂)’ 당집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한다. **(한국지명총람)**

동리(東里): 남리(南里) 동쪽에 있는 강 건너에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방두평(方斗坪): ‘남리(南里)’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방두덩이’라 하는데, 지금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범바우골: 남북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터널 바로 입구 부분에 있다. 옛날부터 호랑이가 많이 출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봉화치(峰火峙): 남북리 강 건너에 있으며, 원대리로 넘어 다니던 작은 고개로 예전에는 동면(東面)지역에 편입되어 있었다. 우리말 이름은 ‘봉우덕’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북리(北里): 남리(南里) 북쪽에 있는 마을. 우리말 이름은 ‘갯골’이라고 한다.

빙고대(氷庫岱): 인제읍 소재지에 있었으며, 얼음 창고가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빙냉곡(氷冷谷): 남북리 ‘포곡동(浦谷洞)’입구를 말한다. 순 우리말 이름은 ‘어름냉골’이라고 하는데 물이 매우 차다 하여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사구미(沙口味): 남북리 강 건너에 있는 마을 이름이며 순 우리 말 이름은 ‘살귀미’라고 한다. 옛날에 맛있는 과일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 ‘산귀미(産貴味)’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강안(江岸)의 형세로 보아서 ‘사구미(沙丘尾)’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사구미(沙口味)’는 이두식 표기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지리지자료)**

사구미교(沙丘尾橋): 남북리 본 마을과 ‘살귀미’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가 330m이고 넓이는 10m인데 인제군에서 발주하고 (주)대원이 시공하여 2008년 10월 31일에 준공을 보았다. **(현지 취재)**

산정터: 내린천(內麟川) 건너 산 위에 있던 정자 터로 인제시가지를 관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조선(朝鮮)말기에 봉미정(鳳眉亭)이 있었는데, 이 정자를 시제(詩題)로 한 이익규(李益圭)³⁶⁾의 시가 전해온다.

昔我先君築此亭/옛날 우리 선친께서 이 정자 지으시고
嘉名肇錫擬長停/아름다운 이름 세우시니 기리 남으리
楓葉仲秋新月白/단풍 물든 한가을 새달은 밝고
寒江落日暮烟靑/찬 강 지는 해에 저녁 안개 푸르네
從古文章無不醉/옛부터 문장가들 안 취하는 이 없었거늘
當今賢達有誰醒/지금의 현달(賢達)한 이들 누가 깨어 있는가
登臨尤切羹牆慕/예 오르니 더욱더 사모함이 간절해³⁷⁾

36) 이익규(李益圭): 본관(平昌). 자 수겸(受謙). 통훈대부(通訓大夫) 시영(時榮)의 아들이다. 고종(高宗) 28년(1891)에 증광시(增廣試)에 3등으로 합격하였다.

37) 갱장(羹牆): 요(堯)가 죽은 후에 순(舜)이 3년을 사모하여 식사 때에는 국에서 요 임금을 보는 듯하고 앓을 때에는 담장에서 요임금을 보는 듯 하였다 는 일. 여기서

彷彿洋洋陟降靈/추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누나³⁸⁾.

서리곡(西里谷): 남북리 서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안막에는 백련정사(白蓮精舍)라고 하는 절이 있다.(인제군사)

설리곡(雪梨谷): 남북리에 위치한 골짜기로 강 건너 비봉산 후미에 있는 골짜기다. (조선지리지자료)

설리곡천(雪梨谷川): 남북리 강 건너 마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서릿골개울’ 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아미산(峨嵋山): 남북리에 소재하였으며 ‘가로현(加路峴)’너머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암곡(岩谷): 남북리에 위치한 골짜기로 바위가 많다고 해서 취한 이름으로, 우리말 이름은 ‘바우골’이다. 강 건너 비봉산 후미에 있는 골짜기다. (조선지리지자료)

용소(龍沼): 남북리 조림이 앞에 있는 소(沼)로 용이 있다하여 용소(龍沼)라 부르고,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이 소 부근에서 부정한 짓을 하면 용이 노하여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어 가뭄이 계속되면 이곳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올린다. 이 소에는 전해오는 총담(叢談)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제군의 동쪽 팔봉산(八峯山) 아래에는 용소(龍沼)가 있는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물고기가 많이 난다. 그 옆에 어부 조윤오(趙允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으로 들

는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38) 『시경(詩經)』 「척호편(陟岵篇)」을 인용한 것임. “척호편(陟岵篇)에 자기가 아버지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 생각하는 것만 말했는데,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그 속에 있다.” 하였음.

어갔다. 도달한 곳은 알 수 없으나 붉은 난간과 그림 같은 누각이 보이고, 그 속에 한 노인이 있다가 물었다. “너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 대답하기를 “저는 집이 원래 가난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데 즐지에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불쌍한 사람이군.” 하였다. 그는 이틀 밤을 묵은 뒤 돌아가려고 집안 일이 너무 바빠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즉시 절을 하고 하직한 뒤 돌아왔는데, 집은 예전과 달랐다. 아내와 자식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슬프게 곡을 하고 있었다. 괴이하게 여기면서 그 까닭을 물어보니, 그 아내가 의아해 하면서 대답하기를,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지금 3년 상을 마치는 제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

위후평(衛後坪): 남북리 강 건너 마을 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뒷두령’ 혹은 ‘뒤울’ 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인제교(麟蹄橋): 갯골 어구에 있는 다리로 1932년에 놓았으나 인제 시가지 도로 확포장 공사로 1989년에 확장했다. **(인제군사)**

재우덕(在隅德): ‘절터’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군사)**

절터: ‘살귀미’ 동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절이 있었다. **(인제군사)**

조림리(照臨里): ‘금바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군사)**

지소: 남북리의 조림이 서쪽 가로리로 뻗어 있는 기다란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진다리평(陳多里坪): ‘남리(南里)’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진더리’라 하는데, 지금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살귀미’에 있는 들로 추측된다. **(조선지리지자료)**

태극공원(太極公園): 경노정(敬老亭)이 위치한 주변, 오덕준(吳德俊) 장군이 육군 제 3군단장으로 재직 시 이곳에 경노정을 건립하고 주변에 약

간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태극공원(太極公園)이라 명명하였는데 지형이 태극형을 이룬데 연유한다. **(인제군사)**

팔봉산(八峰山): 남북리에서 남면으로 가는 고개에 소재한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포곡현(浦谷峴): 남북리에 소재하였으며, 시내 「浦」가 있는 골짜기라 해서 취한 이름으로 우리 말 이름은 ‘갯골’이다. 근자에 와서 ‘객곡(客谷)’이라 표기하고 전쟁 이후 화전민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 ‘객골’이라 했다는 이들도 왕왕 있는데, 잘못 전해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한설매동: 옛 ‘북리(北里)’에 있다고 하나 현재의 위치를 아는 이가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화장터(火葬臺): 군축령 선착장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화장터가 있었다. **(인제군사)**

후곡(後谷): 남북리 남쪽에 있으며 순 우리말로는 ‘뒷골’이라고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합강리(合江里): 본래 현내면(縣內面)지역으로 버린천과 인북천이 합쳐지는 곳이 되므로 합강(合江)이라하고, 합강정(合江亭)의 이름을 땀다고도 한다.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너평리(泥坪里)일부를 병합하여 합강리라 하였다. 행정리는 3개리다. **(한국지명총람)**

검은소: 합강리 앞에 있다고 하여 ‘앞강’이라고 하며, 현재 우회도로가 난 쪽으로 흐르던 물가에 있었는데, 물빛이 검다하여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느티나무끼: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로 나무의 둘레가 15m가 넘고 수명은 500여년이 넘었으며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 이 느티나무는 영험하여 해로운 일을 하면 마을이나 나무를 해친 사람에게 재앙이 따른

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니평(泥坪): 합강리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하며 진흙구렁이라 해서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덕산다리: ‘소열다리’ 또는 ‘리빙스톤교’, ‘붉은다리’라고 한다. **(인제군사)**

도암선생유허비(陶庵先生遺墟碑): 도암(陶庵) 이재(李穡)³⁹⁾선생유허비로, 인제초등학교 입구 맞은편에 있었으나, 지금은 인제군청 청사 내에 옮겨 놓았다. **(조선지리지자료)**

된숨이: ‘된숨이버덩’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된숨이버덩: 합강리 앞 합류지점 바로 밑에 있는 약 2천 평의 버덩으로 양쪽으로 강물이 흘러서 섬처럼 떠 있었으나 지금은 수해로 모두 씻겨 나가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다. **(인제군사)**

리빙스톤교: ‘소일평’과 덕산리를 연결하는 다리를 말한다. **(인제군사)**

39) 이재(李穡): 영조의 탕평책(蕩平策)에 반대한 노론(老論)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로, 호락논쟁(湖洛論爭) 당시 이간(李柬)의 학설을 계승하여 낙론(洛論)을 주창했다.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菴)·한천(寒泉)이며, 아버지는 진사 만창(晩昌)이다. 어려서 숙부 만성(晩成)에게 수학하고,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 되었다. 1702년(숙종 28)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고 찬집청기사관(纂輯廳記事官)을 겸하여 『단종실록』 부록 편찬에 참여했다. 1707년 봉교(奉敎)로서 문과중시에 급제했으며, 이듬해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709년 헌납·북평사(北評事)를 지내고 사가독서(賜暇讀書)했으며, 1711년 이조정랑으로서 문학을 겸했다. 이어 형조참의·병조참의·예조참의를 두루 거친 뒤 1716년 동부승지로 승진했다. 이때 『가례원류(家禮源流)』를 둘러싼 사비가 일어나자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을 논박했다. 1719년 부제학을 거쳐 한성부우윤으로 있다가 균전사(均田使)로 영남지방에 내려가 당면한 토지정책을 논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삭탈관직을 당했다. 그러나 곧 다시 등용되어 이듬해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1721년(경종 1) 예조참판으로 재직하던 중 소론의 재집권으로 삭탈관직당한 데 이어 신임사화로 숙부 만성이 옥사하자 정계에서 물러나 인제(麟蹄)의 설악으로 들어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1725년(영조 1) 노론이 재집권하자 부제학에 복직하여 대제학·이조참판을 지냈다. 그러나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성립되면서 다시 문외출송(門外黜送)을 당했다. 이후 여러 번 영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군홍(群凶)을 몰아낼 것을 주창한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두 사양하고 용인의 한천(寒泉)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길러내는 데 전념했다.

만호대(萬戶臺): 비봉산(飛鳳山)의 머리 부분이 되는데, 강물이 합류되는 그 안 산에 있으며, 만호첨사(萬戶僉使)가 거쳐하던 곳이라 하여 취한 이름이라고 전한다. 성(城)을 쌓았던 흔적이 지금도 전해온다. 일명 ‘봉황대(鳳凰臺)’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미륵(彌勒)⁴⁰): 합강정 터에 있는 돌부처. 나무장사를 하던 박명천(朴明天)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강물에 빠져 있으니 건져달라” 하므로 이상히 생각하여 해엄을 잘 치는 김성천(金聖天)에게 부탁하여 강물 안을 찾아보니 빛을 내는 큰 돌기둥이 있으므로 건져내어 부처를 만들어 집을 짓고 모신 뒤로 모든 일이 잘되어 큰 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 정성으로 빌어 아들을 얻은 뒤로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인케지명총람)**

미륵천(彌勒川): ‘내린천(內麟川)’과 ‘인북천(麟北川)’이 합류하는 지점의 물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배채계곡: ‘벼챙이’ 계곡을 말한다. ‘벼챙이’는 ‘벼랑’의 변음(變音)에서 생긴 말이다. **(인케군사)**

비봉산(飛鳳山): 남북리와 합강리를 잇는 인제읍 소재지의 강 건너 산을 말한다. 새가 나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케군사)**

소일평(消日坪): ‘소열이’ 라고도 하는데, 합강리의 소열에 있는 앞들로 5만 7천여 평에 달한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수침동(水砧洞): 합강리 지역으로 ‘소열이’와 ‘니평리(泥坪里)’ 사이에 있는 산골짜기를 말하며, 순 우리말 이름은 ‘물안골’이라 하는데 ‘물안골’로 더 불린다. **(조선지리지자료)**

40) 미륵(彌勒):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주린 말. 내세에 성불하여 사바세계에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보살. 사보살(四菩薩)의 하나이다. 인도 파라나국의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나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고, 미래에 부처가 될 수기(受記)를 받은 후 도솔천에 올라갔다고 전한다.

수침천(水碓川): 합강리에 있는데, ‘소열이’와 니평(泥坪)리 사이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큰 강물과 합류되는 곳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물양애나들이’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수침후평(水碓後坪): 합강리 지역으로 ‘소열이’와 ‘니평리(泥坪里)’ 사이에 있는 산골짜기 뒤편을 말하며, 순 우리말 이름은 ‘물안골’이라 하는데 ‘물양간둔지’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신의경영사비(申儀慶永思碑): 합강정(合江亭)에서 동북 쪽 50여 미터 산기슭에 있었으나 국도확장 공사하면서 지금의 인제군청 청사 안으로 옮겨놓았다. 비에는 ‘活人數百 捐金四千 學生申公儀慶恩德永思碑 北面 戊辰 四月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굶주리는 이가 수백이라, 연금(捐金) 4천원을 희사한 신의경(申儀慶)의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하여 비를 세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의경에 대한 자료나 후손도 알 수 없다. 다만 구전에 의하면, 당시 쌀 한 가마에 6원 59전이였다고 하니, 4천원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신치원구휼비(申致元救恤碑): 합강리에 있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자취도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절골: ‘소열이’ 서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한다. **(인제군사)**

정자각우평(亭子閣隅坪): 합강리의 합강정 북동쪽에 위치한 들판. 즉 강변을 끼고 있는 들. **(조선지리지자료)**

중앙단(中央壇): 예전에는 ‘된숨이버덩’에 있었으나 박종영(朴宗永) 현감(縣監)이 재임 시에 합강정(合江亭)을 중수(重修)하면서 현재의 산기슭으로 옮겨놓았다. 이곳은 강원도의 중심지로 조선시대에는 가뭄이 들거나 질병이 만연할 때면 도내 26관의 관원⁴¹⁾이 이곳에 모여 제례를 올렸

41) 관원: 현재의 시장 군수를 말함.

다고 전하는데, 현재의 제단은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옛 중앙단의 자료를 고증(考證)으로 복원한 것이다.(인제군사)

초당봉(草堂峰): 합강리에 소재하였으며, ‘가아리’와 ‘이평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귀퉁이에 초당이 있었다고 한다.(조선지리지자료)

칠가리평(漆街里坪): 만호대(萬戶臺) 아래 내린천 강변에 있는 버덩으로 울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칠전(漆田): ‘만호대’아래 내린천 변에 위치하였으며, 울나무가 많았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울마치’라고 한다.(인제군사)

합강(合江): 합강리의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류하는 곳을 말한다.(조선지리지자료)

합강교(合江橋): 합강 배 터에 놓여진 다리로 1985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주)삼호가 시공하였으며 길이는 170m에 달한다.(인제군사)

합강리산성(合江里山城): ‘비봉산’ 산머리 즉 ‘만호대’에 있으며, 둘레는 150m에 불과하다.(강원도양구군인제군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합강정(合江亭):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기룡산(起龍山) 기슭에 있다. 조선(朝鮮) 숙종(肅宗) 2년(1676)에 현감 이세억(李世億)이 창건하였다고 전해 왔으나, 최근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그보다 20년 뒤인 1697년 김창국(金昌國) 현감 재임 시에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 근거는 김창집(金昌緝)의 『포음집(圃陰集)』에 실려 있는 <동유기(東遊記)>에 “정자집은 당형(堂兄)⁴²⁾께서 이곳에 재임시에 지으셨다. 비록 크고 사치스럽지는 않아도 십(十)자 모양에, 뒤 모서리는 방으로 꾸미고 나머지 모두는 망루(望樓)로 지은 그 제도(制度)가 실로 오묘하다. 큰 아버님이 쓰신 편액(扁額)과 또 큰 아버님과 농암(農巖)⁴³⁾·백연(百淵)⁴⁴⁾의

42) 당형(堂兄): 사촌 형님.

43)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호.

두 분 형님의 시(詩)도 길러 있었다.”라고 실려 있는 구절을 들을 수 있다.(인케군사)



합강정 전경

합강진(合江津): 합강리 합강대교가 놓여진 곳으로, 1985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리를 세우기 전까지 합강정에서 덕산리로 건너다니던 나루터를 말한다.(조선지리지자료)

홍진포(紅津浦): 합강정 앞강에 있는 포구의 옛 이름이다.(인케군사)

홍진포평(紅塵浦坪): ‘홍진포’는 합강의 옛 이름으로 합강리 앞 물이 합류되는 바로 밑에 섬으로 이루어진 들을 말하나 지금은 수해로 사라지고 없다. 순 우리말 이름은 ‘된섬이머당’이라고 한다. 예전에 중앙단(中央壇)이 이곳에 있었으며, 강원도의 중앙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거나 역질(疫疾)이 창궐하면 지방 수령들이 이곳에 모여 제례(祭禮)를 올렸다고 한다. 그 뒤 1864년 현감 박종영(朴宗永)⁴⁵⁾이 합강정을 중수(重修)하면서, 기룡산 자락으로 옮겼다.(조선지리지자료)

후곡(後谷): 합강리 뒤편에 있는 깊은 골자기를 말한다.(조선지리지자료)

후산(後山): ‘니평(泥坪)’뒤에 있는 산을 말한다. 우리 말 이름은 ‘속새목고개’라고 하는데, 속새가 많이 자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조선지

44) 백연(百淵): 김창흠(金昌翕)의 별호.

45) 박종영(朴宗永):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으로 있다가 1863년 6월에 인제현감(麟蹄縣監)으로 왔다. 3년 뒤 12월 경기도 양근군수(楊根郡守)로 떠났는데, 제임 시에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 오지 않는다.

지자료)

가아리(加兒里): 본래 이름은 개면이·가면이·가아면촌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숫골·다소골·진두루·반쟁이·갈밭구미·텃골·솔정지를 병합하여 가아리(加兒里)라 하였다. 개면이·가면이란 지명은 지형이 마치 개아미(개미의 방언)를 닮았다 해서 ‘개아미리’라 하였는데, 이두식으로 가아면리(加兒面里)라 표기하면서 가아리(加兒里)로 변하였다. 행정리는 2개리다. (한국지명총람)

가아면(加兒面): ‘가아리’의 옛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가아면촌(加兒面村): ‘가아리’의 옛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가음령(加音嶺): 인제군(麟蹄郡)과 양구군(楊口郡)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지금의 ‘광치령(廣峙嶺)’을 말한다.

가음여리(加陰餘里): ‘가아리’의 옛 이름이다. (윤후의 <풍악록>)

개면이: ‘가아리’의 옛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광치현(廣峙峴); 가아리 에 있으며 양구군(楊口郡)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개를 말한다. 지금은 터널이 뚫리어 고개 길은 폐지되었다. (조선지

지자료)

노전평(蘆田坪): ‘새말’ 남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갈밭구미’라고 한다.

다소(多小): 가아리 장평(長坪)마을 북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대허(大墟): 가아리에 서쪽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대터골’이다. (조선

지지자료)

반장평(半場坪): 가아리 ‘상촌(上村)’마을과 ‘하촌(下村)’마을 사이에 있는 버덩을 말하는데, ‘반정평(半程坪)’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

베락바우소: 현재 팔각정 휴게소 상류에 있는 소(沼)의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

새말: ‘반장이’ 남쪽에 있는 마을로 양구로 가는 길가가 되는데, 예전에 술집이 있었다. **(한국지명총람)**

새술막: ‘새말’에 있던 술집을 말한다. ‘신촌주막(新村酒幕)’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성황가천(城隍街川): 성황거리에 있는 시냇물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소허(小墟): 가아리의 광치령 밑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작은텃골’이다. **(조선지지자료)**

송정리(松亭里): ‘갈밭구미’ 남쪽에 있는 마을로 큰 소나무와 정자가 있었다. 우리말 이름은 ‘솔정지’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송정리평(松亭里坪): 가아리에 있는 ‘갈밭구미’ 남쪽에 있는 마을로 큰 소나무와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취한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솔정지’ 또는 ‘송정지’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

신덕리(新德里): ‘용숫골’ 밑 둔덕에 형성된 마을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새덕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신촌주막(新村酒幕): ‘신촌평’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신촌천(新村川): 가아리 신촌마을에 있는 개울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신촌평(新村坪): 가아리 ‘반장평’ 남쪽에 있는 마을로 양구로 가는 길목이 되는데 술집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새말’이라고 하며, ‘새

술막' 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양금동(仰今洞); 가아리 '다소(多小)' 서쪽에 있는 들로 토질이 녹말처럼 부드럽다하여 취한 이름이다. '양금동(仰今洞)'이란 표기는 이두식 표기다. **(조선지리지자료)**

연애개: '술정지' 북쪽에 있는 물이 이곳에서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용수동(龍水洞): 가아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용소(龍沼)가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장평(長坪): 반장평의 다른 이름으로, 버덩이 길게 생겼다 해서 '긴들' 이라고 했는데, '긴들'이 '진들'로, '진들'이 '진두루'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진뚜루'로 많이 부른다.

청계동(淸溪洞): 가아리 중앙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청계동리(淸溪洞里): 현재의 '가아리'를 말한다. 계곡물이 맑은 동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청계동포(淸溪洞浦): 청계동 앞에 있는 내 이름으로 옛날에는 권대감제(權大監祭)로 유명하였다. **(한국지명총람)**

호랑바우: '양금동'에서 상촌(上村)방향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호랑이가 자주 출현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바우굴: '호랑바위' 부근에 있는 굴을 말한다.

덕산리(德山里): 덕산 아래 마을이라 하여 덕산(德山)이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차평리(車坪里)를 병합하여 덕산리(德山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고개동(古介洞): 삼척김씨 대동보에 기록되어 있으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고사창평(古司倉坪): 덕산리의 합강교 건너에 소재한 들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관아에서 관리하던 창고가 있었기에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고춧골: '선바우' 아래에 있는 골은 골짜기를 말한다. '직곡(直谷)으로 표기할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

광대목: 덕산(德山) 동쪽에 있는 산인데, 산의 형세가 광대가 노는 형국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구월산(九月山): 덕산리에 소재하며 우리말 이름은 '구일 놀이터' 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구일평(九日坪): 덕산리 구월산 아래에 있는 들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구일놀이터' 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굴암(窟岩): 덕산리 동쪽에 소재하며 우리말 이름은 '굴바우' 혹은 '굴아우' 라고 한다. 산에 바위굴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취한 이름인데 지금은 폐동되고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귀영소: '윗말' 앞에 있는 소(沼)로 모양이 구유와 비슷하다. **(한국지명총람)**

노루목고개: 덕산리와 고사리(古沙里)의 경계 지점으로 내린천 변에 있으며 453지방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바람굴 부근으로 넘어 다녔는데, 그 고개가 노루목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지명총람)**

늪둔지: 덕산 북쪽 끝 둔지에 있는 마을이며 밤나무가 많았다. **(한국지명총람)**

덕봉(德峯): 덕산리 남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덕이 있어 보인다고 한

다. **(한국지명총람)**

덕산령(德山嶺): ‘덕산(德山)’에서 ‘원통역’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원통역과 10여 리 거리다. **(김창협 의 <동유기>)**

덕산리(德山里): 현재 덕산리에서 차평리(車坪里)를 제외한 지역의 옛 지명을 말한다. **(여지도서. 관동읍지)**

루곡(樓谷): 덕산리 차평(車坪)동에 있는 골짜기로, 우리 말 이름은 ‘늑골’이라고 한다. 정자가 있던 골짜기라고 하여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무당소: ‘윗말’ 위쪽에 있는 소(沼)의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바람굴: ‘샘터’와 ‘노루목’ 사이에 발달된 석각이 있으며 이곳에서 찬바람이 나와 한 여름에도 시원하다 하여 ‘바람굴’이라 하였다. 도로 확포장공사로 바람이 나온다는 석각 일부는 파손되었지만 지금도 이곳을 지나면 시원하다. **(한국지명총람)**

박쥐굴: 덕산 ‘양지마을’에서 동북쪽 3km 지점에 있는 자연동굴로 박쥐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피난처의 구실도 되었다. **(한국지명총람)**

반창천(反昌川): ‘덕산(德山)’에서 ‘합강(合江)’지점까지 흐르는 강물 이름이다. **(대동지지)**

방축곡(防築谷): 덕산리 차평(車坪)동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방축골’이라고 한다. 방축이 있었다 해서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백목평(柏木坪): ‘차평리’ 아래머덩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번창천(蕃昌遷): ‘반창천’과 동일한 이름이다. 이하곤(李夏坤)의 시에 <빛속에 번창천을 지나며>가 전해오고 있다.

峽天錯莫雲四重/골짜기 하늘은 사방이 구름에 막혀있고
 峽雨翻盆無歇時/비는 쉴 틈 없이 물동이로 쏟아붓듯 내리네

高江狼石聞如雷/고강(高江)⁴⁶의 어수선한 돌 부딪치는 소리 우레
 같고
 岸傾棧絕路欹危/벼랑의 잔도(棧道)는 끊어져 위험하네
 書囊沾濕且莫恤/서랑(書囊)⁴⁷ 점점 젖어드니 앞길이 막막한데
 老馬欲頭心所悲/늙은 말도 찢찢매니 서글프구나
 安得皎日出杲杲/맑은 해가 높이 높이 솟았으면 좋으련만
 我欲訴天誅雲師/나는 하늘님이 혼쾌히 운사(雲師)⁴⁸를 벌(罰)하기
 만 바라네.

병봉(餅峰): 행정구역상 덕산리 남쪽에 있는 산으로, 우리말 이름은 떡
 봉이라고 한다. 덕봉(德峰)으로도 자주 표기된다. **(조선지리지자료)**

비석원평(碑石員坪): 청송(靑松)인 심봉호(沈逢浩)의 만세불망비(萬世
 不忘碑)가 있던 곳의 들을 말한다. 합강 대교를 건너서 국도변에서 동쪽
 으로 약200m 떨어진 논둑에 있었으나, 지금은 문중에서 ‘양지마을’로 옮겨
 놓았다. **(조선지리지자료)**

비선대(秘仙臺): 한양아파트 곁에 있는 산으로 고사리와 경계를 이룬
 다. **(해동지도)**

사방가주막(四方街酒幕): 사방거리에 있던 주막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상천(上川): 덕산 ‘윗마을’ 물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상촌(上村): 덕산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군사)**

상평(上坪): 덕산리의 위 들을 말하며, 우리말 이름은 음지평이다. **(조선
 지리지자료)**

샘터: 합강대교에서 노루목 고개 쪽으로 500m 지점에서 나오는 샘으로

46) 고강(高江): 높은 지대의 강. 여울이 진 강.

47) 서랑(書囊): 글을 지어 넣는 주머니.

48) 운사(雲師): 구름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

여름에는 매우 차고 겨울에는 얼지 않는다. **(한국지명총람)**

선둔지평(船屯地坪): 합강 대교 건너편에서 내린천 쪽에 접한 곳을 말한다. 예전에 떼를 붙이던 곳이라 하여 ‘떼둔지’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

선바우: 덕산 동쪽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바위이며, 바위 밑에서는 좋은 샘물이 나온다. **(인제군사)**

수변촌(水邊村): ‘하촌’의 다른 이름이다. **(인제군사)**

수병: ‘수변촌(水邊村)’의 변음(變音)에 의한 지명이다. **(인제군사)**

양지촌(陽地村): 덕산의 ‘중촌(中村)’을 말한다. **(인제군사)**

여네골: 덕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 냇물이 흘러오다가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줄어들었음에 연유하여 부른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연애골: ‘여네골’의 변성된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연화동(蓮花洞); 행정구역으로는 덕산리(德山里)에 있다. 덕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 냇물이 흘러오다가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줄어들는데 연유하여 취한 이름이며, 순 우리말 이름은 ‘여네골’인데 ‘연애골’로 더 불러진다. **(조선지지자료)**

우창천(友昌川):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반창천(反昌川)’으로 표기되었다. **(조선지지자료)**

웃말: 덕산 위쪽에 있는 마을로 ‘상촌(上村)’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울평리(栗坪里): ‘늪둔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음지말: 덕산리 음지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인골: 덕산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난리 때 피난처가 됐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인동(人洞): ‘인골’의 한자 표기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장군석(將軍石): ‘무당소’ 밑에 있는 바위로 장군이 서 있는 모습이다. **(한국지명총람)**

재경곡(再耕谷): 덕산리의 차평(車坪)동에 있는 골짜기로, 우리말 이름은 ‘사태구미’ 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전강(前江): 덕산 앞으로 흐르는 강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절골: ‘웃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사곡(寺谷)’이라고도 부른다.

중촌(中村): ‘양지말’을 말한다. **(인제군사)**

중평(中坪): 덕산리의 중간 들을 말하며, 우리 말 이름은 ‘양지밭’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진사집터: ‘양짓말’ 서쪽에 있으며 진사(進士) 해주 최씨가 살았던 집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차평리(車坪里): 아랫말 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수레가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해서 ‘차평리’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하천(下川): 덕산 ‘아랫마을’ 물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촌(下村): 덕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군사)**

하평(下坪): 덕산리의 아래 들을 말하며, 우리말 이름은 ‘번둔평’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한수대(寒水岱): ‘샘터’의 옛적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한양동(漢陽洞): ‘음지말’ 남쪽 내린천 변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한양 사람이 와서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한양못: ‘한양동’에 있었던 못으로 넓이가 4천여 평에 달했지만 지금은

매몰되어 자취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한국지명총람)**

회목坪(檜木坪): 덕산리에서 가리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전 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덕적리(德積里): 덕절(德節) 즉 미쁜 산들이 있다 해서 덕절곡(德節谷)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덕적골 또는 덕적동(德積洞)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승평(長承坪)과 덕산리(德山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덕적리(德積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간촌(間村): '장승평(長承坪)'과 '용부터' 사이에 있는 마을로, '셋말'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갈곡현(葛谷峴): 덕적리에 있으며 칩이 많이 서식하는 골짜기라서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고대(高垜): '무나무덧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대가 높아 붙여진 지명이다. '현고촌(玄高村)'이라고도 한다. **(인제지명총람)**

구대평(舊垜坪): 덕적리 '솔정지' 골짜기 안에 있는 들을 말하며, 순 우리말 이름은 '납은터' 라고 하는데, 옛적에 이곳에 절이 있었다하여 '절골'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기령대(起靈垜): '부처바위' 밑에 잇는 바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노전동(蘆田洞): '갈밭매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노전항평(蘆田項坪): 덕적리 동쪽에 있는 들로 갈대밭이 있다 해서 취한 이름이다. 우리 말 이름은 '갈밭매기' 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더뜸이: '덕적' 동남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짐승을 잡기 위하여 덫을 많이

놓았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덕적동리(德積洞里): 현재의 덕적리 중 장승평(長承坪)과 덕산리(德山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옛 지명을 말한다. 산 이름을 따온 이름이다. **(여지도서, 관동읍지)**

문목곡(門木谷): '무나무텃골'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범바우: '범바우골' 가운데에 있는 바위로 범과 비슷하게 생겼다. **(한국지명총람)**

범바우골: '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바위'가 있다. **(한국지명총람)**

부처바우: '뒷밭' 북쪽에 있는 바위로 부처처럼 생겼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부처바우골: '부처바우'가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한다. **(한국지명총람)**

삼전현(蓼田峴): 덕적리에 있으며 삼(蓼)이 많이 난다하여 취한 이름으로, 우리말 이름은 '삼밭치고개' 라고 한다. 고사리(古沙里) '피아치'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샘밭: '샘바치'라고도 하는데, '샘밭' 뒤에 있는 3만여 평의 밭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소와골: '샘밭'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솔정지: '둥지거리' 아래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연목천(蓮木川): 우리말 이름으로 연메기가 많아 '연메기소' 라고 하는데, 이두식 한자 표기 과정에서 파생(派生)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용부대(龍浮岱): 진곡(陳谷)의 이명(異名)으로 덕적리에 있다. '못나무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덕산리(德山里) 장군석에서 나온 용마(龍馬)

가 이곳에 와서 죽었다는 설화(說話)가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우와곡(牛臥谷): ‘소와골’이라고 하는데,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다. **(한국지명총람)**

장승평(長承坪): 덕적리에 있으며, 갈밭매기 남쪽에 소재하였으며, 우리말 이름은 ‘장승벼덩’이라고 하는데, 장승이 있던 곳이라 하여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장평현(長坪峴): 덕적리에 있으며, ‘장승평’에서 가리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장승고개’라고 하는데, 장승이 있던 고개라 하여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저뜸이: ‘더뜸이’의 변음(變音)된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절골: ‘술정지’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한국지명총람)**

중목곡(衆木谷): 행정구역상 덕적리에 소재한다. 덕적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취한 이름이다. 순 우리말 이름은 ‘못나무골’. ‘무나무덧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진곡(陳谷): 행정구역상 덕적리에 속한다. 이명(異名)으로 ‘용부대(龍浮堡)’ 혹은 ‘용부대(龍富堡)’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풍곡리(豊谷里): 현 덕적동과 하추리 사이에 있던 마을로 지금은 폐동되고 없다. **(여지도서)**

한대천(寒垓川): ‘장승평’에 있으며, 찬 샘이 나는 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한석산(寒石山): 고사리(古沙里)와 하추리(下楸里)·덕적리(德積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해발 1,119m가 넘는다. **(한국지명총람)**

현고촌(玄高村): ‘고대(高垓)’를 말하는데, 조선(朝鮮)중기에 유명한道人(道人) 편운자(片雲子)⁴⁹⁾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그의 부친 이창해(李

蒼海)는 지마도(志摩島)⁵⁰⁾의 도주(島主)를 지냈다고 한다. **(인케군사)**

화의현(和意峴): 덕적리에 있으며, 덕적리에서 ‘젓바치’로 넘어가는 큰 고개를 말한다. 옛적에 두 사람이 싸우고 원님에게 소송을 하러 가다가 이 고개에서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이에 연유하여 취한 이름이다. 순 우리 말 이름은 ‘하우고개’ 라고 한다. ‘하우현(下雨峴)’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두식 표기에 의하여 생긴 이름으로 잘못된 이름이다. ‘가리산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경계가 된다. **(조선지리지자료)**

후평(後坪): 덕적리 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뒷말’이다. **(한국지명총람)**

고사리(古沙里): 본래 동면(東面)지역으로 고새울 또는 고사촌(古沙村)·고사동(古沙洞)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합강리와 하추동(下楸洞)일부를 병합하여 고사리(古沙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고사동리(古沙洞里): 현 고사리의 옛 이름이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고새울: ‘고사촌(古沙村)’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광탄곡(廣灘谷): 고사리 ‘장수대’에 있으며, 우리 말 이름은 ‘너래골’ 이라고 한다. 골이 깊고 넓으며 돌들이 많아 여울을 이룬 골자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49) 편운자(片雲子): 조선 중기의 도인(道人)이다. 일찍이 선도(仙道)에 관심이 있어 공부하다가 청학상인(靑鶴上人)의 제자가 되었다. 그 후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도를 닦았으며, 제자로는 (청학집(靑鶴集)을 지은 조여적(趙汝籍)이 있다. 성은 이씨이고, 본관은 용인(龍仁)이다. 이름은 사연(思淵)·정원(挺元)·승조(承祖)이고, 자는 윤후(胤夫)이며, 호는 운홍(雲鴻)·운학(雲鶴)·편운자(片雲子)다. 1559년 부친 창해(滄海)와 모친 신평(新平)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50) 지마도(志摩島): 일본에 있는 섬 이름.

괘나무골: ‘심봉우터’ 너머 ‘굴아우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괘나무⁵¹⁾가 많이 자생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굴바우골: ‘피아치’ 남쪽 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산에 굴 바위가 있다. **(한국지명총람)**

굴아우골: ‘굴바우골’의 변음(變音)에 대한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남정곡(南丁谷): ‘장수터’에 있다고 전해오나 정확히 아는 이가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내린천(內麟川):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에서 인제(麟蹄)로 흐른다 하여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본래 ‘내린천’은 내면(內面)에서부터 상남천(上南川)과 합류되는 곳까지를 이르는 말이나, 지금은 통상적으로 31번국도(國道)를 따라 북으로 흐르다가 합강(合江)에 와서 ‘인북천’과 합류되는 곳까지를 ‘내린천’이라고 한다. 최근 레프팅코스도 개발되어 급격히 명성을 날리고 있다. 특히나 ‘내린천’은 다른 물길과는 달리 북(北)으로 흐른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강원도땅이름)**

냉정터: ‘피아치’ 남서쪽 강변에서 샘이 솟는데 그 물이 얼마나 찬지 손을 담그고 5분을 견디지 못해 붙여진 지명이다. 생활근거는 고사리가 되지만 행정구역으로는 원대리에 속한다. **(한국지명총람)**

너무터: ‘장수터’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장수터’에서 언덕 너머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노영골: ‘피아치’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영골, 영곡이라고도 한다. **(한국**

51) 괘나무: 자두나무의 속된 이름. 고야나무라고도 한다. 장미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1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거꾸로 된 달걀 모양 또는 타원형의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4월에 잎이 나기 전에 흰 꽃이 두세 개씩 모여 피고 열매는 핵과(核果)이다. 과수(果樹)로 재배하며 열매는 식용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지명총람)

다랑애(多浪涯): 고사리 노루목고개 하류(下流)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다랑베루' 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다래버렁: '고새울'에 있는 마을로 다래가 많았다. **(한국지명총람)**

대곡(大谷): '피아시'에서 동남쪽 강 건너에 있으며 1960년대까지 민가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동 되었다. 생활근거는 고사리가 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원대리에 속한다. **(한국지명총람)**

대소야지곡(大所也地谷): '큰새재골', '작은 새재골'을 아우르는 한자 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대촌주막(垞村酒幕): '텃말'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도전평(島田坪): 현재 수변공원(水邊公園)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말 이름은 '섬밭' 이라고 불렀다. **(조선지리지자료)**

두무골: '피아시'에서 북쪽에 위치한 매봉산 좌측 골짜기를 말한다.

령곡(嶺谷): '노영골'을 말한다. '영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명지소: '피아치'에 있는 소(沼)로 명주실 한 꾸러미가 모자랄 만큼 깊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무개골: '피아시'에서 북향으로 한석산으로 통하는 길목의 좌측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무지개골: '텃말'에서 남쪽으로 강 건너 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동남향에 있는 골짜기를 '큰무지개골'이라 하고, 서남향에 있는 골짜기를 '작은무지개골'이라고 한다.

미내둔지: 수변공원 북향 언덕 위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박양우터: ‘텃밭’ 뒤에 있는 골짜기 상류에 있으며, ‘삼바치’ 바로 밑이 된다.

박씨골: ‘방골’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박씨 성을 가진 이가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장곡(朴將谷): ‘장수터’에 있다고 전해오나 정확히 아는 이가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방골: ‘울곡(栗谷)’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별바우: ‘장수터’ 밑에 있는 바위로 별집이 많았다고 전하나 지금은 도로 확포장 공사관계로 폭파되어 사라졌다. **(한국지명총람)**

별바우소: ‘별바우’ 밑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사곡(寺谷): ‘중안터’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말한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전에 이곳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산막곡(山幕谷): ‘삼바치’에 있다. 예전에 삼밭을 지키기 위하여 지은 초막이 있었다고 한다.

산수골: ‘새재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삼나무골: ‘한석산전투전적비’에서 북쪽으로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큰삼나무골’이라 하고,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작은삼나무골’이라 하는데 삼나무⁵²⁾가 우거져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삼전치(蓼田峙): 고사리의 동북쪽에 있던 마을로 삼밭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삼밭재’ 또는 ‘삼바치’라고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상각골: ‘고새울’ 남쪽 강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상골바우: ‘미내둔지’서쪽에 있는 골짜기에 있다. 상골⁵³⁾이 난다 하여 붙

52) 삼나무: 낙우송과의 상록 교목. 높이는 40미터 정도이며, 둥글고 녹색인 암꽃과 누르스름한 수꽃이 3월에 피고 열매는 둥근 구과(毬果)로 가을에 익는다. 나무는 목재로 쓴다. 일본 특산종이다.

여진 이름이다.

상재골: '고새울' 남쪽 강 건너 편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새재골: '장수터'에 있는 큰 골짜기를 말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를 '작은 새재골'이라 하고, 위에 있는 골짜기를 '큰새재골'이라고 한다.

성황당(城隍堂): '새재골'에 있었다고 전해오나 지금은 없다.

수변공원(水邊公園): '용소'를 메우고, '섬밭'과 연결하여 공원을 조성하였다. 수 십 여점의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레프팅의 마니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짚 트랙(Zip Trek)⁵⁴ 시설이 있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침곡(水碓谷): '장수터'에 있다고 전해오나 정확히 아는 이가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순포전강(荀浦前江): 고사리 노루목고개 상류(上流) 즉 인제상수도 취수지(取水地)가 있는 곳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순포평(筍浦坪): 고사리에 위치한 '노루목고개' 동쪽 강변에 위치하였었는데, 지금은 수해를 입어 하천화(河川化) 되었다. 죽순이 자란다 해서 취한 이름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신댕이: '순포(筍浦)' 앞 강 건너 쪽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심봉우터: '방골' 앞 강 건너 서남방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안피아치: '피아시' 골 안 마을을 말한다.

양권이: '순포(筍浦)' 서남향으로 강 건너편 즉 잠수교 건너편을 말하며.

53) 상골: 상골이라고 부르나 '산골'이라고 표기 하는데, 산골은 생물체의 산골과 광물체의 산골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54) 짚 트랙(Zip Trek): 계곡과 계곡을 잇는 케이블을 타고 미끄러져 내리며 번지점프와 같은 극도의 스릴을 만끽하는 신종 레포츠의 하나.

‘양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연유는 알 수 없다.

얼무생이: ‘벼락바우’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연달곡(連達谷): ‘장수터’에 있다고 하나 정확히 아는 이가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연지골: ‘순포(筍浦)’ 동북향에 있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최근에 입구에 통나무로 집을 지어 ‘통나무집골짜기’로 불리고 있으나, 수해로 유실되고 지금은 없다.

연재울: 연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입구에 ‘고려성’이라는 민박이 있다.

용소(龍沼): ‘장수터’에 사는 한씨(韓氏)가 장사 아이를 낳았다가 화를 입을까 걱정하여 죽이었는데 이 소(沼)에서 용마(龍馬)가 나와서 주인을 찾으려 울고 다니다가, 이 소(沼)에 빠져 죽었다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지금은 수변공원(水邊公園)으로 조성되어 흔적조차 없다. **(한국지명총람)**

원곡(遠谷): ‘피아시’에서 동남쪽으로 물 건너편에 소재한다. 우리말 이름은 ‘먼골’이라고도 하며, ‘대곡(大谷)’이라 표기하고, ‘대골’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폐동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

울목곡(栗木谷): 고사리의 ‘노령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이 사방으로 둘러 있어 방처럼 생겼다하여 ‘방골’이라고도 하고, 밤나무가 많이 자생한다하여 ‘밤나뭇골’이라고도 한다. 현재 내린천 레프팅 종착지의 뒤편 마을인데 폐동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

이목곡(梨木谷): ‘괘나무골’의 한자 표기식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장수대주막(長水堡酒幕): ‘장수터’에 있던 주막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장천(長川): 고사리에 소재하며, 우리말 이름은 ‘명지소’ 또는 ‘명지여울’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장항현(獐項峴): 행정구역상 고사리(古沙里)에 있다. 순 우리말 이름은

‘노루목고개’라고 하는데 노루목을 닮았다 하여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정수곡(井水谷): ‘장수터’에 있다고 하나 정확히 아는 이가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중안터: ‘피아시’동북향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안피아시’와 사이에 있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지름바우: ‘장수터’ 서남방 내린천 강 건너에 있는 바위로 항시 젓어 있어 미끄럽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원대리(院垞里)에 속한다. **(인제지명총람)**

직전곡(稷田谷): 고사리의 ‘삼밭재’ 남쪽에 있는 마을로 피나무가 무성했다고 하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순 우리말 이름은 ‘피야시’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창바우: ‘장수터’ 서쪽 강 건너에 있는 바위로 창같이 뾰죽하게 생겼다. **(한국지명총람)**

텃말: ‘고새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피아실고개: ‘피야치(皮也峙)’에 있는 고개로, ‘피아실’에서 덕적리(德積里)로 넘는 고개다. 피나무가 무성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피야치(皮也峙): ‘피아치’ 또는 ‘피아시’라고도 발음 하는데, 같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평개울: ‘연재울’에서 동쪽에 있으며, 입구에 있는 ‘둥지민박’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허공현(虛空峴): 고사리에 소재한다. ‘텃말’ 위에 있는 마을로 허(虛)씨가 터를 잡고 살았다 하여 ‘허군치(許君峙)’라고 하였다 하는데, ‘허공현’은 어떻게 하여 취한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허군치’의 이두식 표기가 아

닌가 하고 추측 할 뿐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원대리(院垡里): 본래 동면(東面)지역으로 원(院)집이 있었음으로 원터·원대(院垡)라 했다고 전하기도 하고, 관음원(觀音院)이란 소암자(小庵子)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 온다. 191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리(南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원대리(院垡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공동묘지(共同墓地): 흔히 ‘공동미’라고 부른다.

공동미: ‘비록곡(飛鹿谷)’ 서편 건너에 있는 산을 말한다. 공동으로 묘를 쓸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광판곡(廣板谷); ‘응달말’과 ‘회동(檜洞)’ 사이의 골짜기로, 물가에 너래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너래물나드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괴피나들이: 원대리와 장수대(將帥垡) 사이에 있는 나루터를 말한다. 1976년 원남교(院南橋)가 설치되고, 주변에 수변공원(水邊公園)이 조성되어 관광지로 변화였다. **(조선지리지자료)**

격지소: ‘양지말’에서 ‘응달말’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소(沼)로 격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척지명총람)**

납은텃골: ‘셋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내삽현(內插峴): ‘응달말’에서 ‘내삽현(內插峴)’으로 넘어 가는 작은 고개를 말한다. ‘안삽재’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내삽현주막(內插峴酒幕): ‘내삽현(內插峴)’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현재 유리온실 서쪽 건너 편 물가에 있었다. **(조선지리지자료)**

내회동계(內檜洞溪): 안 저울에 있는 개울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다름재: ‘박달고치’에서 남면(南面) 남전리(藍田里) 반장동(半場洞)으로 가는 고개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박달고개’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달은리(槎穩里): ‘박달고치’의 한자 표기식 이름이다.

마굴리현(馬屈伊峴): ‘내삽현(內插峴)’에서 기린면(麒麟面) 복리(西里)로 넘어 다니던 고개를 말한다. 언제인가 이 고개에서 말이 굴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멍덜바우: 양지마을서 음지 마을로 가는 길가를 말하는데 흙이 있는 것보다 커다란 바위들이 더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여 원형이 상실되었다. 다른 이름으로는 ‘멍덜밭’이라고도 하였다.

무등목: ‘웅달말’ 동북쪽에 있는 작은 동산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무장곡(舞將谷): ‘안삽재’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회동(檜洞)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다. 본래 이름은 산 치성을 올리기 위한 제당(祭堂)이 있다 하여 ‘제당골’이라고 하였으며, ‘제당골’이 다시 ‘지당골’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당골’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무장곡’이란 지명이 생기게 된 사유는 이는 이가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물안골: ‘안저울’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물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물알: ‘간촌’ 아래 마을로, 마을에서 흘러내리는 냇물이 내린천과 합수되는 곳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미아골: ‘웅달말’에서 ‘회동(檜洞)’으로 가는 길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미음전평(美音田坪): ‘고사리(古沙里)’의 ‘피야치’ 강 건너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미음밭버덩’이라고 한다. 물소리가 아름답다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박달고치: '옛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로 '다름재'아래가 된다. **(한국지명총람)**

분치(分峙): '안저울'과 '바깥저울' 사이에 있는 고개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분고개'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붕고개: '붕고개'를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비로곡(飛露谷): '응달마을'에서 회동(檜洞)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지형이 사슴이 날아다니는 형상이라 지은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삼재: '응달말'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수냉곡(水冷谷): '피야치' 강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물이 어름같이 차서 '어름냉골' 또는 '냉정터「冷場垆」'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송농골: 삼척김씨 열녀각 서편에 있으며, '내삼현'과 '외삼현'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이름이다. 물이 찬 골짜기라 해서 '수냉골'이라 부르던 것이 '송농골'로 변성(變聲)된 이름이다. **(현지 취재)**

안두리: 내린천이 굽이쳐 흐르는 안쪽에 있는 들이라 하여 원래는 '안뜰'이라 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며 '안뚜루' '안두리'로 변하였다. 들의 면적은 2만여 평이 넘으나 실 경작지는 1만여 평에 불과하다. **(인제지명총람)**

역답(驛畷): '응달말'에 있으며, '역논'으로 더 불리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역둔전(驛屯田)이었다. **(인제지명총람)**

와현(瓦峴): 원대리와 남면(南面) 남전리(藍田里)와 경계를 이루는 고개를 말한다. 기와점이 있었던 고개라 해서 '와현(瓦峴)'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나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조선지리지자료)**

왜갈산: '응달말'과 '양지말' 사이에 있는 산으로 왜가리가 많이 서식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왜골: ‘응달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외회동계(外檜洞溪): 바깥 저울에 있는 개울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우무곡(牛舞谷): ‘응달말’과 ‘내삽현(內插峴)’ 사이의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원곡(遠谷): ‘응달마을’ 서남간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먼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원대(院垔): ‘셋말’과 ‘와현(瓦峴)’ 사이에 있는 마을로 ‘원터’라고도 한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역참(驛站)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원대리(院垔里): 현 원대리와 남북리 강 건너 마을 일부를 아울러 이르던 옛 지명을 말한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월곡(越谷): 내삽현(內插峴)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안삽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이곡탄(梨谷灘): ‘내삽현(內插峴)’에서 기린면(麒麟面) 서리(西里)로 통하는 말거리 고개 밑에 있으며, 기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배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우리 말 이름은 ‘배나무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장군석(將軍石): 구한말시대 장군이 큰 반석을 옮겨 놓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굴이 있는데 6.25당시 지방인사와 경찰관들이 이곳에서 피난하였다고 한다. ‘공동미’에 위치한다. **(한구지명총람)**

저울: ‘바깥저울’과 ‘안저울’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회동(檜洞)’이라고 부른다. **(한국지명총람)**

절골: ‘윗골’과 ‘바깥저울’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3m 높이의 돌담이 있다. 이곳에 있었던 절 이름이 문헌상에 나타

나 있지는 않으나 “관음원(觀音院)”이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으며 사학자였던 故 김중권(金重權)씨는 원대리가 은리(隱里)로 표기된 고적자료를 들어 “숨은 곳에 있는 절”이라 설명하고 신라(新羅)말기에 낙랑공주와 죽방부인 박씨가 머물러 있던 “둔도암(遁道庵)”일 것이라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인제지명총람)**

정자동(亭子洞): ‘정짓골’의 한자 표기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정짓골: ‘안삼재’에서 기린면(麒麟面) 북리(北里) ‘다락구미’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말하며 옛날에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조동(鳥洞): ‘셋말’의 잘못된 한문표기로 한국독립사 하권에 실린 무장항쟁일지(武將抗爭日誌) 내용 중 “1908. 7. 1 50인 인제동북방 조동에서 교전”으로 기록된 것은 ‘셋말’의 잘못된 표기다. **(한국독립사)**

조롱고개: ‘외삽현’에서 ‘내삽현’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낮아 조롱하며 넘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삽현(插峴)’이라고도 한다.

쪽박골: 열녀 삼척김씨 묘가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지당골: ‘제당곡(祭堂谷)’의 우리말 이름으로, ‘무장곡(舞將谷)’의 다른 이름이다. **(현지 취재)**

천년대곡(千年垓谷): ‘셋말’과 ‘왓고개’ 경계가 되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천연대동(千年代洞): ‘셋말’과 ‘왓고개’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천연대곡(千年垓谷)’이라고도 하며 ‘천역덕골’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청양곡(靑陽谷): ‘내삽현(內插峴)’에서 장수대(將帥垓) 방향으로 뻗은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학인대동(學仁垓洞): ‘해기네터골’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한국지명총람)**

해기네터골: ‘천년덕골’과 마주 한 건너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회동(檜洞): ‘저울’의 한자 표기식 이름이다.

하추리(下楸里): 본래 동면(東面)지역으로 추동(楸洞)의 아래쪽이 되므로 하추동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싸리목이·농금이·닥밭구미·박수터·더디미·샛말·검은석을 병합하여 하추리(下楸里)라 하였다. 추동(楸洞)이란 이름은 가래나무가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사라지고 별로 없다. **(한국지명총람)**

간촌(間村): ‘싸리목’과 ‘노루목’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가래울’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거무세기: ‘거무석’의 변음으로 된 이름이다. ‘거무석’ 또한 돌이 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 표기식 이름은 흑석동(黑石洞)이다.

곡장곡(曲長谷): ‘간촌(間村)’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노루목: ‘싸리목’과 ‘박수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노루사냥의 목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농금대(弄琴臺): ‘싸리목이’ 북쪽 산 위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거문고를 타는 형국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농금덕’ ‘농금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닥밭구미: ‘박수터’ 동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로 닥나무 밭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더디미: ‘거무세기’ 동쪽에 있는 마을로, 기린면(麒麟面) 북리(北里) 하답(下畓)과 경계를 이룬다. **(한국지명총람)**

떡갈평(德葛坪): 하추리 입구에 있는 버덩으로 우리말 이름은 ‘떡갈버덩’ 이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

도대미: ‘더디미’의 변질된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박수대(泊水岱): ‘하추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큰 장마로 마을이 전부 떠나가고 모래만 널려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보축곡(洑築谷): ‘간촌(間村)’에 있는 골짜기로 보(洑)를 막았다 하여 ‘보막이골’ 이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

상추동리(上楸洞里): 현 하추리 윗마을을 말한다. 가래나무가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여지도서)**

석장곡(石藏谷): ‘짜리목’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신덕곡(新德谷): ‘닥밭구미’ 옆에 있는 마을의 골짜기를 말한다. 우리 말 이름은 ‘새덕이’ 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

야곡(夜谷): ‘더디미’에서 기린면(麒麟面) 북리(北里) 하담으로 통하던 골짜기로, 나무와 숲이 우거져 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서 더듬거리며 넘어 다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더디밧재’ 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

어룡곡(於龍谷): ‘흑석동’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영철곡(盈鐵谷): ‘흑석동(黑石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운봉곡(雲鵬谷): ‘흑석동’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원곡계(遠谷溪): ‘하추동’ 앞으로 흐르는 물 이름인데, 우리 말 이름은 ‘먼골개울’ 이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

유곡(楸谷): ‘짜리목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짜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

이목곡(梨木谷): ‘박수터’ 뒤에 있는 마을로 돌배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말 이름은 ‘배나뭇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추곡천(下楸谷川): ‘하추동’에서 내린천으로 흘러내리는 여울물의 이름이다. 우리 말 이름은 ‘가래울물’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추동강(下楸洞江): ‘하추동’ 앞을 흐르는 물 이름인데, 우리 말 이름은 ‘굼병소’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추동리(下楸洞里): 현 하추리의 아랫마을을 말한다. 가래나무가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하추동어구주막(下楸洞於口酒幕): ‘떡갈버덩’ 인근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추동어구진(下楸洞於口津): ‘하추동’에서 기린면(麒麟面) 북리(北里)로 건너다니던 나룻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흑석동(黑石洞): ‘하추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검은 돌들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검은석’, ‘거무세기’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귀둔리(貴屯里): 본래 춘천부(春川府) 기린현(麒麟縣)이 있었던 고읍(古邑)지로 귀둔·이탄(耳呑)·이둔(耳屯)이라 하였는데, 1415년 기린현의 소재지를 지금의 방동(芳洞)으로 옮기면서 인제군(麟蹄郡) 동면(東面)으로 편입되고,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괴래·군량밭·양지말·용숫골·오작골·황골·곰배골과 기린면 북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귀둔리(貴屯里)라 하였다. ‘귀둔’이란 이름은 춘천부 기린현에 속한 땅이었을 당시, 한 모퉁이에 귀〔耳〕 같이 붙어있는 땅이라 하여 귀둔·이둔(耳屯)이라 하였으며, 귀둔(貴屯)은 이두식 표기에 의하여 변형된 이름이다. 행정리는 2개리다. **(한국지명총람)**

가칠봉(加漆峰): 기린면(麒麟面) 진동리(鎭東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해발 1,164m가 넘는다. 점봉산(點鳳山)에서 남쪽으로 능선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마지막 봉우리가 ‘가칠봉’이다. **(한국지명총람)**

까마귀골: ‘오작골’을 말한다.

까마귀상골: ‘오작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개용소: ‘용숫골’ 동북쪽 사이에 있는 작은 소(沼)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거문곡(巨文谷): ‘곰배골’을 말하는데, ‘거문곡’이란 이름이 어떻게 명명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곰배’ 즉 ‘고무래’의 이두식 표기 과정에서 변형된 이름으로 추측된다. **(조선지리지자료)**

군량동(軍糧洞): ‘쇠물안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군량(軍糧)을 보관하던 곳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군량동계(軍糧洞溪): ‘군량동(軍糧洞)’에 있는 냇물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군량밭고개: ‘군량동’에서 ‘쇠물안골’로 가는 고개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군량전(軍糧田): ‘군량동’ 앞에 있는 7만여 평의 밭으로 의병난(義兵亂) 때, 의병들이 양식을 생산해내던 밭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곳이 마의태자(麻衣太子) 병사들이 양식을 쌓아두던 곳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귀둔(貴屯): 본래 ‘이둔(耳屯)’인데, ‘귀둔(貴屯)’이란 지명은 발음 나오는데로 적은 이두식 지명이다. 이곳은 동학운동(東學運動)과 관련된 성지(聖地)다. 이곳 장춘보(張春甫)라는 사람 집에 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⁵⁵⁾의 큰 아들 세정(世貞)이 그의 부인과 누이가 함께 은거(隱居)하다가, 1872년 3월에 관군(官軍)이 들이닥쳐 잡혀갔는데, 세정(世貞)의 처와 누이는 인제옥(麟蹄獄)에 갇히고, 세정(世貞)은 양양옥(襄陽獄)에 갇

55) 수운대신사(水雲大神師): 동학(東學) 천도교(天道教)를 창시한 최제우(崔濟愚: 1824.10.28-1884.3.10)를 말한다.

하였다가 5월 12일에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이곳은 과거에 기린현(麒麟縣)에 속한 땅으로 조선 초기까지 기린현 관아(官衙)가 소재하였던 곳이며, 조선 무예를 집대성한 「조선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백동수(白東修)가 8년여 간 머무르던 곳이기도 하다. **(천도교의 성지)**

귀둔坪(貴屯坪): ‘귀둔’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노장곡(老將谷): ‘쇠물안골’에서 동북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느릅재’ 정상에서 마주 보이는 골짜기 이름이다.

대선봉(待仙峯): ‘용숫골’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167m나 된다. **(한국지명총람)**

대적곡(大積谷): ‘쇠물안골’ 아래 골짜기로 동북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대작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말등바우고개: ‘황골’에서 ‘버덩말’로 가는 고개로 모양이 말등과 같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물난바우: ‘장터거리’ 서쪽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로,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백목곡(栢木谷): ‘장터거리’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위 ‘쇠물안골’로 넘어 다니던 길이 있었다. 우리말 이름은 잣나무가 많다고 하여 ‘잣나무골’로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버덩말: ‘양지말’ 옆 버덩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본용소: ‘용숫골’에 있는 소로 폭포 아래 에 있으며, 용이 등천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한국지명총람)**

사곡(寺谷): ‘버덩말’ 옆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한다.

성황곡(城隍谷): ‘장터거리’ 남방 건너편에 위치한 골짜기로 성황당(城隍

堂)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자료)**

쇠물안골: ‘우마동(牛馬洞)’을 말한다. 동학(東學)의 창시자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의 장남 세정(世貞)이 이 마을에 살던 장춘보(張春甫)의 집에 살다가 관원들에게 체포되어 양양옥(襄陽獄)에 갇혀있었으며,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죽었다.

수침동(水砧洞): ‘큰샘물터’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장터거리’ 남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선질매버덩: ‘피래’동쪽에 있는 버덩으로 의병(義兵)들이 소와 말을 쉬게 하였던 곳이라 한다. **(한국지명총람)**

양지동(陽地洞): ‘피래’ 서남쪽 양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역답(驛答): ‘버덩말’에 있는 들로 3만여 평에 달하는데, 이조시대에 역둔전(驛屯田)이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오작곡(五柞谷): ‘오작곡(烏鵲谷)’의 이두식 표기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오작곡(烏鵲谷): ‘귀둔(貴屯)’에서 정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까마귀 까치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지 취재)**

오작동계(五柞洞溪): ‘오작골’에 있는 냇물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옥터: ‘귀둔’ 동쪽에 있으며, 기린현(麒麟縣)에 속해 있을 당시 옥(獄)이 있었던 터다. **(한국지명총람)**

용소(龍沼): ‘용숫골’ 동북쪽에 있는 소로 용마(龍馬)가 있다고 하며, 가뭄 시에는 이곳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한국지명총람)**

용수동(龍水洞): ‘곰배령’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용소(龍沼)가 있다. **(한국지명총람)**

우마동(牛馬洞): 우리말 이름이 ‘쇠물안골’인데, 의병난(義兵亂) 때, 의병들이 소와 말을 먹이던 곳이라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우마치(牛馬峙): ‘쇠물안골’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의병(義兵)들의 소와 말을 먹이던 곳이라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이 고려(高麗)에 항복하자, 그의 맏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 김일(金鎰)이 인제 땅에 들어와 구국강병(救國強兵)을 부르짖으며 국권회복 운동을 전개할 당시에 소와 말을 먹이던 곳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유목곡(楡木谷): ‘느릅재’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유목현(楡木峴): 느릅재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느릅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유현곡(楸峴谷): ‘쇠물안골’에서 ‘군량동’으로 가는 고개인데 느릅나무가 많았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은비령(隱秘嶺): 소설가 이순원(李舜源)의 단편소설에 처음 나오는 지명이다. ‘피래’와 ‘가리산리’의 경계가 되는 고개 이름이다. ‘가리산리’에서는 이 고개를 ‘대목이고개’라 부르며, 그 밑으로 흐르는 물 이름을 ‘우풍천(隅風川)’ 또는 ‘우풍개’라고 부른다.

이둔(耳屯): ‘귀둔’의 옛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이탄(耳呑): ‘귀둔’의 옛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이탄리(耳呑里): 현 귀둔리(貴屯里)를 말한다. 조선 초기까지는 기린현(麒麟縣)에 속해 있었으며, 춘천부(春川府)의 관할 하에 있었다. 기린현의 관아(官衙)가 있었으며, 모서리를 상징하거나 지형으로 보아 귀처럼 옆에 달린 땅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자오곡(子午谷): ‘쇠물안골’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자오현(子午峴): ‘우마치(牛馬峙)’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장단너미: ‘장터거리’ 남쪽에 있는 논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장터거리: ‘버덩말’ 안에 있는 마을로 5일 장이 섰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점봉산(點鳳山): ‘귀둔’과 기린면(麒麟面) 진동리(鎭東里),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의 경계를 이루며 해발 1424m가 넘는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산속에서 사주전(私鑄錢)을 만들어 냈는데 망치질 소리가 “점봉산 돈 닷 돈 점봉산 돈 닷 돈” 하는 소리로 들려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결국 관가에서 알게 되어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등병산’·‘등봉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정동(丁洞): ‘곰배골’을 말한다. ‘양지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곰배(고무래)같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나, 어떤 이는 곰의 배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정동계(丁洞溪): ‘곰배골’에 있는 냇물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정동주막(丁洞酒幕): ‘곰배골’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정령(丁嶺): ‘곰배골’에서 기린면(麒麟面) 진동리(鎭東里)의 강선리(降仙里)로 가는 큰 고개로 목초지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산채와 약초가 다량으로 산출된다. 우리 말 이름은 ‘곰배령’이다. ‘정산령(丁山嶺)’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한국지명총람)**

치전령(雉田嶺):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으로 이어지는 큰길이다. 우리 말 이름은 ‘평발령’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큰샘물터: ‘장터거리’ 남쪽 산 밑에서 나는 샘을 말하는데, 산골이 낮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평지촌(平地村): ‘버덩말’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평촌주막(平村酒幕): ‘버덩 마을’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피래: 난리를 피해 와서 이룬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한자로 표기 하자면 ‘피래(避來)’로 하여야 마땅하나, ‘필예(必曳)’ 또는 ‘필례(必禮)’로 표기 하는 것은 이두식 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이곳 지형을 내려다보면 여인네가 베 짜는 형상을 하고 있다하여 ‘필례’라 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시집장가를 못간 처녀 총각이 비관하다가 우연히 이 장소에 와서 만나 좋은 배필(配匹)이 되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필례동계(必禮洞溪): ‘피래’에 있는 냇물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필례령(必禮嶺):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으로 이어지는 큰길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필례약수(必禮藥水): ‘피래’에 있는데 1930년경에 발견된 이 약수는 피부병,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강원도땅이름)**

필예(必曳): ‘피래’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황곡(黃谷): ‘장터거리’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황동계(黃洞溪): ‘장터거리’ 위에 있는 마을의 냇물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가리산리(加里山里): 본래 동면(東面)지역으로 가리산 아래 있다고 하여 가리봉·가리산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우풍개·갯바치·굴아우를 병합하여 가리산리(加里山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가리봉(加里峯): ‘가리산(加里山)’을 말한다. 해발 1,518m의 가리봉은 설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한계령(寒溪嶺)과 이어진다. 정상에 오르면 설악산의 주능선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장쾌한 경치가 가히 일품이다. **(강원도 땅이름)**

가리산(加里山): ‘가리산리’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가리산리(加里山里): 현재의 ‘가리산리’에서 ‘우풍개’·‘젓바치’·‘굴아우’ 지역을 제외한 옛 지명을 말한다. 산 이름을 따 온 이름이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굴암곡(窟岩谷): 가리산 서쪽에 있었던 마을로 산에 바위굴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취한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굴바우’ 혹은 ‘굴아우’라고 하는데 지금은 폐동되고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대목이: 가리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 ‘대목이고개’ 밑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대목이고개: ‘대목이’에서 귀둔리(貴屯里)의 ‘피래’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옥녀탕(玉女湯): ‘대목이’ 큰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둘레는 한 평 정도이고 수심은 3m정도이며, 큰 길에서 동쪽 10리 부근에 있다. **(한국지명총람)**

우풍천(隅風川): ‘젓바치’ 너머 마을에 있는 개울을 말한다. 개「浦」가 있었다고 하여 ‘우풍포(隅風浦)’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유항현(杻項峴): 가리산에서 하추리(下楸里)로 넘어 다니던 고개로, 싸리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진무대(陳茂垔): ‘대목이’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하우현(下雨峴): ‘젓바치’에서 ‘덕적동(德積洞)’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옛날에 두 사람이 싸우고 원님에게 소송을 하러 가다가 이 고개에서 화해(和解)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해(和解)’가 변음 되어 ‘하우’가 되었는데, ‘하우(下雨)’는 한자 표기상에서 잘못된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회전동(檜田洞): '가리산리'에 있으며, 전나무가 무성하다 하여 취한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젓바치' 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회전리주막(檜田里酒幕): '젓바치'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남면(南面)



군(郡)의 남쪽에 있어 남면(南面)이라 하였으며 두모동(頭毛洞), 건달리(建達里), 신촌리(新村里), 가노리(加奴里), 북평(北平), 청구(靑邱), 음양(陰陽), 구만(九萬), 유목정(楡木亭), 사치(沙峙), 어론(於論), 화탄(禾呑), 소치(所峙), 갑둔(甲屯), 금보왕촌(金寶王村), 성황거리(城隍巨里), 백자동(柏子洞), 남전리(藍田里), 마노역(馬奴驛), 회둔촌(灰屯村), 반장리(半場里)의 12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行政區域), 개편(改編)에 따라 기린면(麒麟面) 상남리(上南里)의 일부를 편입하여 두무(斗武), 신월(新月), 관대(冠岱), 부평(富坪), 신평(新豐), 어론(於論), 갑둔(甲屯), 김부(金富), 정자(亭子), 남전리(藍田里) 10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45년 38°선이 생김에 따라 남전(藍田), 두무(斗武), 관대리(冠岱)는 공산치하(共產治下)에 들어가고 부평(富坪), 어론(於論), 정자(亭子), 갑둔(甲屯), 신평(新豐), 신월(新月), 김부리(金富里) 7개 리와 인제읍(麟蹄邑)의 원대리(院岱里)와 기린면(麒麟面)의 북리(北里), 진동리(鎭洞里)와 함께 그 해 9월 19일에 홍천군(洪川郡)에 편입되어 신남면(新南面)이라 하고 신평리의 북쪽 일부를 떼어 신남리를 새로 만들어 8개 리를 관할하다가, 1951년에 수복되어 군정(軍政) 아래에 있었으며, 1954년 11월 17일 행정 이양에 따라 민정(民政)으로 돌아와 두무(斗武), 신월(新月), 부평(富坪), 신평(新豐), 어론(於論), 정자(亭子), 김부(金富), 갑둔(甲屯), 남전(藍田), 관대(冠岱), 신남리(新南里)를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제군(麟蹄軍) 남면(南面) 두무리(斗武里)를 양구군(陽口郡) 남면(南面) 상산내리(上山內里), 하수내리(下水內里), 춘성군(春城郡) 북산면(北山面) 수산리(水山里)를 인제군(麟蹄郡) 남면(南面)으로 편입되었다.

1983년 1월 10일 기린면 상남출장소(上南出張所)가 상남면(上南面)으로 승격되면서 남면 김부리(金富里)가 상남(上南)으로 편입되어 12개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리는 15개리다.

동쪽으로는 기린면(麒麟面), 서쪽은 양구군(陽口郡) 남면(南面), 남쪽은 홍천군(洪川郡) 두촌면(斗村面), 북쪽은 인제읍(麟蹄邑)에 닿아 있다. 인제군(麟蹄郡)의 관문(官門)이기도 하다.

- 신남면(新南面): 1945년 38°선이 생김에 따라 남전(藍田), 두무(斗武), 관대리(冠岱)는 공산치하(共產治下)에 들어가고 부평(富坪), 어론(於論), 정자(亭子), 갑둔(甲屯), 신평(新豐), 신월(新月), 김부리(金富里) 7개 리와 인제읍(麟蹄邑)의 원대리(院岱里)와 기린면(麒麟面)의 북리(北里), 진동리(鎭洞里)와 함께 그 해 9월 19일에 홍천군(洪川郡)에 편입되어 신남면(新南面)이라 하였다.

신남리(新南里): 본래 남면 신평리(新豊里)지역이었으나, 1945년 38°선이 생김에 따라 피난민이 급증함으로 신평리 북쪽 일부인 절뚜루와 다릿골·느릅정이·진두루를 떼어 남면의 중심지가 된다고 하여 신남리(新南里)라 하였으며, 행정리는 4개리다.

계암(鷄岩): ‘절뚜루’ 건너편에 있는 바위로 닭의 벼슬 형상을 하였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닭바위’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계암보(鷄岩泚): 현 ‘닭바위’ 밑으로 나 있던 보(泚)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

계암치(鷄岩峙): ‘유목정(柳木亭)’ 남쪽에 있으며 ‘닭바위’가 있는 고개를 말한다. 지금은 도로가 훤히 나 있어 고개가 사라졌다. (한국지명총람)

교동(橋洞): 신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어귀에 큰 다리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말 이름은 ‘다릿골’이다. (한국지명총람)

느릅정: ‘유목정(榆木亭)’의 우리말 이름인데, 이곳은 동학운동(東學運動)과 관련한 성지(聖地)라고 할 수 있다. 갑오혁명(甲午革命)의 여파로 동학군(東學軍)의 수령인 해월신사(海月神師)⁵⁶를 체포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펴고 있을 때, 신사(神師)께서는 손병희(孫秉熙)·손병흠(孫秉欽)·김연국(金演局)등과 함께 홍천(洪川)을 거쳐, 1895년 1월에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최영서(崔永瑞)의 집에 머물렀다. 신사(神師)께서는 “지금은 두령 된 자 가히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리라.” 하시며, 또 “군자가 환난에 처해서는 환난의 도를 행하며, 곤궁(困窮)에 처해서는 곤궁의 도를 행함이 가하니 제군은 오직 천리에 순응하며 기회를 기다리라.” 하였다. 이는 최영서의 집안이 가난하여 오래 머무르기 어려

56) 해월신사(海月神師): 천도교(천도교)의 제 2세 교주 최시형(崔時亨:1827-1898)를 말한다. 경주인(慶州人)으로 초명은 경상(慶翔)이고, 자는 경오(敬悟)이며, 수운(水雲)은 호다.

왔기 때문이었다. **(천도교의 성지)**

닭바우: '계암(鷄岩)'의 우리말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사평(寺坪): 신남 옆에 있는 들로 면적이 2천 5백여 평이고 절이 있었다. 소양댐으로 인하여 수몰되기 전에는 이곳에 석불좌상(石佛坐像) 1기가 있었으나, 인제읍 서릿골 백련정사(白蓮精舍) 주지였던 강석천(姜昔泉) 스님이 지금의 백련정사(白蓮精舍) 뒤켠으로 옮겨 모셨는데, 지방문화재 이외자료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사평(寺坪)이라는 이름은 절이 있는 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우리 말 이름은 '절뚜루' 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상제바우: 장군바위 옆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상제와 비슷하다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신촌리(新村里): 현 남면 소재지를 말하며 새로 생겨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 말 이름은 '셋말'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양지촌(陽地村): '절뚜루' 북쪽 양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양지평(陽地坪): '양지말'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유목정(楡木亭): '양지말' 앞에 있는 마을로 '유목동(楡木洞)'이라고도 하는데, 느릅나무가 많았고,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 말 이름은 '느릅정' 이라고 한다.

장군석(將軍石): 신남 서쪽 산 밑에 있는 바위로 장군이 서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진뚜루: '상제바우' 앞 들 옆에 있는 마을로 군인들이 진을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탑뚜루: '사평(寺坪)'. 곧 '절뚜루'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후곡(後谷): ‘양지말’ 뒤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뒷골’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어론리(於論里): 본래 남면(南面)의 지역으로서 어론(於論)이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탄(禾呑)리를 병합하여 어론리(於論里)라 하였다. 동리 사람들 중에 말다툼이 많아서 어론(於論)이라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간인현(良寅峴): ‘건니현(乾泥峴)’의 다른 표기다. **(한국지명총람)**

건니주막(乾泥酒幕): 건이고개 밑에 있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건니현(乾泥峴): 어론 남쪽에서 두촌면 건남리로 가는 고개로 인제군(麟蹄郡)과 홍천군(洪川郡)의 경계가 되는 고개를 말한다. 이조 때 고개 아래에 원(院)이 있었으며, 고개가 낮아서 “놀이 좋기는 함강정 넘기 좋기는 거니고개”라는 노래도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건이촌(建伊村): ‘건이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건이현(建伊峴): ‘건니현’의 이두식 표기다. **(한국지명총람)**

건이원(建伊院): ‘건이고개’ 밑에 있었던 원(院)의 이름이다. **(인제군사)**

건현(巾峴): ‘건니현’의 다른 표기다. **(황응규의 시)**

곽골: 절골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깃대봉: ‘웃말’ 동쪽에 있는 산으로 세부 측량 시에 측량 표준 기를 꽂은 데 연유한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다물리(多勿里): 어론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집집마다 돌을 쌓아 울타리를

했었다고 하나 지금은 돌로 쌓은 울타리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위치에 따라 ‘아랫다물리’, ‘웃다물리’, ‘새다물리’ 세 마을로 나눈다. 한 때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 재직하던 박성수(朴聖壽)교수는 다물(多勿)이란 용어는 ‘옛 땅을 되찾음’이란 뜻의 고구려(高句麗)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마의태자(麻衣太子)와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물리(多物里)’로 표기 된 곳도 있는데, 이는 이두식 표기에 불과할 뿐 잘못된 표기이다. **(인제지명총람. 한국지명총람)**

사곡(寺谷): ‘어론’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절골’이다. **(한국지명총람)**

상다물(上多勿): ‘다물(多勿)’ 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속새매기: ‘화탄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홍천군(洪川郡) 두촌면(斗村面) 패석리의 신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속새풀이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숯둔리: ‘화탄’의 우리말 이름이다.

신수곡(新修谷): ‘화탄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양곡(羊谷): ‘절골’ 뒤에 있는 마을로 양을 많이 길렀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양골’이다. **(한국지명총람)**

어론(於論里): 현재의 ‘어론리’중 ‘화탄(禾呑)’을 제외한 지역의 옛 이름을 말한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오가탕계(五嘉湯溪): ‘어론’에서 ‘화탄리’로 가는 물가에 있는 탕(湯)으로 잇달아 다섯 개의 탕을 이루고 있어 지은 이름으로, 경관이 좋아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오계탕(五溪湯): ‘오가탕계(五嘉湯溪)’와 같은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오리평보(五里坪泚): ‘어론’에 있는 보(泚)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중다물(中多勿): ‘다물(多勿)’ 중간 마을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새다물’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탄곡(炭谷): ‘어론’ 안마을로 숲을 많이 구웠다고 전해오며, 1988년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숯둔골숯굽기”가 출전하여 놀이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인제지명총람)**

하다물(下多勿): ‘다물(多勿)’ 아래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화둔리(禾屯里): 현 어론리의 ‘화탄’ 지역을 말한다. **(관동읍지)**

화탄(禾呑) ‘어론(於論)’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회곡현(檜谷峴): ‘절골’에서 ‘상수내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횃골고개’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신평리(新豊里): 본래 남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치리(沙峙里)와 유목정(楡木亭)의 일부를 병합하여 신평리라 하였다. 1945년 38°선이 생김에 따라 피난민이 급증함으로 다시 북쪽 일부와 닷골·절뚜루·유목정·진뚜루를 떼어내어 신남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을 신평리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사치리(沙峙里): ‘새젓골’과 신남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 지금은 부대가 자리하고 있다. ‘사현리(沙峴里)’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

사현리(沙峴里): 현 신평리와 신남리 사이를 말한다. 모래가 많은 산이라 하여 취한 이름이다. 순수한 우리말로 ‘모래재’ 또는 ‘사치’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관동읍지)**

장삼전보(張三田洑): ‘사치리(沙峙里)’에 있는 보(洑)로, 장삼(張三)이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장수사(長壽寺): 1958년 남면에 거주하던 신도 김학선(金學善)씨가 여러 신도들과 협력해 건립하였다. '신남'에서 홍천(洪川)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약1km쯤 가다가 우측 '장지골'계곡으로 1km를 오르면 닿을 수 있다. **(강원도땅이름)**

장자곡(張者谷): 신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씨가 살았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장지골'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지내비골: '쥐내비골' 또는 '지내미골'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지래비골'로 바뀌었다. 지내가 많아서 부르는 이름이라고도 하고, 권 애비가 살았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도 한다. **(인제지명총람)**

부평리(富坪里): 본래 남면지역으로 북쪽들에 있으므로 북평(北坪) 또는 부평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청구리(靑邱里), 구만리(九萬里), 음양리(陰陽里), 유목정(楡木亭)의 일부를 병합하여 부평리(富坪里)라 하였다.

고제대감묘: '음양동'에 있었다고 한다. 면적이 대략 1백 여 평에 분상 높이가 어림잡아 한길 정도이고 둘레가 20여 평으로 꽤나 컸었다고 하는데 소양댐 건설로 수몰되자 이장(移葬)되었다고 한다. 인근 농경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면 먼저 이 묘에 음식을 바쳤다고 한다.

구만리(九萬里): '음양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소양강 굽이 안쪽이 된다. '구만동(九萬洞)'으로도 불린다. **(조선지리지자료)**

길뚝거리: 아주 오래 전에 큰 길이 있었다고 하여 불리던 이름인데, 현재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한국지명총람)**

김삼연영당(金三淵影堂): ‘구만리(九萬里)’에 있었으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선생의 영정(影幀)을 모셨던 곳이다. **(판동읍지)**

남강(南江): 부평리와 관대리 사이로 흐르는 강 이름이다. 남쪽에 위치한 강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늘목고개: ‘도수암’에서 갑둔리의 ‘소치(所峙)’로 가는 고개로 밋밋하여 힘들이지 않고 넘는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대동(垞洞): ‘도수암’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덧골’이다. **(한국지명총람)**

도둑바우: ‘도수암’ 어귀에 있는 큰 바위로, 굴이 뚫려있어 도둑이 살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대평(大坪): ‘양지마을’에 있는 너른 들을 말하며, 우리 말 이름은 ‘양지갯치락’이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

대평보(大坪洑): ‘음양리’에 있는 보로, 우리 말 이름은 ‘큰뜰우’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

도수암(道水岩): 부평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도수암천(道水岩川): ‘도수암’에 있는 개울물로 반석위에 냇물이 흐르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남면의 소금강이라고까지 불리며, 지금은 외지에도 널리 알려져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이다. 아주 오래 전에 이곳에는 ‘도수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하며, 이 암자의 이름을 따서 ‘도수암’이라 했다는 설도 전해오고 있다. **(조선지지자료)**

동갈보대: 떡갈나무와 소나무 보드기⁵⁷⁾로 숲을 이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산림지대였으나,

57) 보드기: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어린 나무들을 말한다.

소양댐으로 인하여 마을이 수몰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곳에 마을이 새로 형성 되었으며, 6.25동란 이후 주민들이 큰 나무들을 베어 땔나무로 사용하기도 하고 내다 팔기도 하여 어린 나무들만 가득하게 되었었다. ‘보대’나 ‘보데기’는 ‘보드기’의 지방 방언에서 생성된 이름이다.

뒷재: 뒷들에 있는 작은 고개를 말한다. 한문 표기로는 ‘후치(後峙)’ 또는 ‘후현(後峴)’이다.

뗏둔지: ‘부평’ 동북쪽 둔지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 전까지만 해도 떼가 많았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마로진(馬路津): ‘청구리(靑邱里)’에서 ‘관터’로 통하는 나룻터를 말한다. 소양댐 건설로 인하여 한 때는 춘천과 인제를 운행하는 페리호가 하루에 2회씩 운행을 하여 부평선착장(富坪船着場)이 건설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

만호봉(萬戶封): ‘성재성’을 말한다. 채팽윤(蔡彭胤)의 <구만촌(九萬村)>이라는 시에

苟能着幽棲/겨우 늦게야 쉼 곳에 도착하니
不憚萬戶封/만호봉이 있어서 근심할 일 없겠으나
年侵癯病奪/해마다 수척하게 건강을 잃는 것은
計出凡白龍/계산 없이 졸렬하고 게으른 탓이리라.

라는 시구(詩句)가 전해온다. **(채팽윤의 희암집)**

무매리(舞梅里): ‘구만리(九萬里)’안쪽 마을을 말한다. ‘성재’서쪽 건너에 있으며, 동학(東學)의 2대교주인 해월신사(海月神師)께서 잠시 머무르던 곳으로 3대 지도자인 인제출신 김연국(金演局)이 유년 시절에 살던 곳이다. 1872년 3월 10일 신사께서 대신사(大神師)⁵⁸⁾의 제8회 조난항례

58) 대신사(大神師): 최제우(崔濟愚:1824~1864)를 말한다. 동학(東學)의 교조(敎祖).

를 지낸 후 다시 길을 떠나 이곳의 김병수(金秉洙)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김병수가 태백산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이삿짐을 싸고 있음으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정선에 이르러 대신사(大神師)의 딸과 큰 아들 세정(世貞) 그리고 세정의 처가 잡혀 양양(襄陽)과 인제(麟蹄)옥에 투옥(投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미매옥’ 혹은 ‘미매리’라고 부른다. **(천도표의 경지)**

무의매리(舞依梅里): ‘무매리(舞梅里)’의 다른 표기 이름이다. **(동학운동자료총서)**

방아골: 오래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백석곡(百石谷): 용인이씨 대동보에 기록되어 있으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뱃막계: 마로진(馬路津)을 운행하는 배를 관리하던 초막(草幕)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봉수대(烽燧臺): ‘안구만리’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곳에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다고 전하며, 동리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날에는 이곳에 제례를 올려 왔으나, 마을에 정신질환자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제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전해온다. **(현지 취재)**

부평(富坪): 부유한 촌락으로 논과 밭이 비옥하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북평리(北坪里): 현 ‘부평리’로 성재 앞을 말한다. 북쪽에 있는 평평한 땅이라 하여 취한 이름이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본관은 경주(慶州). 초명은 복술(福述)·제선(濟宣). 자는 성묵(性默), 호는 수운(水雲)·수운재(水雲齋). 경주 출신. 아버지는 옥(繡)이며, 어머니는 한씨(韓氏)이다.

상음평(上陰坪): ‘음지마을’ 위에 있는 들을 말한다. 우리 말 이름은 ‘간을평’이라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성재: ‘청구리’ 서쪽에 있으며, 성(城)이 있어 ‘성재’라고 하였다. **(인제군사)**

성재성(城在城): ‘성재’에 있는 성(城)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둘레는 960m이다. **(강원도양구군인제군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송노곡(松老谷): 노송과 바위가 있었다 하여 부르는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수리봉: 취봉(鷲峰)을 말하는데, 높이가 704m의 고지라고 하여 ‘704고지’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순찰사홍우선덕비(巡察使洪祐善德碑): ‘청구리’에 있었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우동(牛洞): ‘청구리’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소동’ 또는 ‘쇠골’이라고 한다. 그런데 ‘쇠골’이란 지명은 무쇠가 많이 났다고 하여 부르는 지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철동(鐵洞)’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듯 싶다. **(한국지명총람)**

우외동(隅外洞): 부평리 서쪽 외딴 곳에 있는 마을로 ‘우외평(隅外坪)’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말 이름은 ‘모루박’이다. **(한국지명총람)**

우외주막(隅外酒幕): ‘모루박’에 있던 주막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울때소: ‘음양동(陰陽洞)’에 있는 소(沼)로 밀림지대에 있어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음양리(陰陽里): ‘음지마을’과 ‘양지마을’의 두 마을을 아울러 이르는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음양평보(陰陽坪淤): ‘음양리’에 있는 보로 우리말 이름은 ‘가늘편’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응치(鷹峙): ‘음양리’에 있는 고개로, 우리말 이름은 ‘매치’ 또는 ‘매고개’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중앙동(中央洞): 부평리의 중앙이 되는 마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청구리(靑邱里): 부평 동북쪽 둔지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 전까지만 해도 떼가 많았다고 하여 ‘뗏둔지’라고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취봉(鷲峰): 부평리 동쪽에 있는 산으로 수리가 새끼를 치고 살았다 해서 ‘수리봉’이라고 했다. 또 ‘704고지’라고도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탕소(湯沼): ‘가매소’ 위에 있는 소(沼)로 위에서 물이 굽이굽이 떨어져서 마치 물이 끓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후평(後坪): 청구리에 있는 들을 말하며, 우리 말 이름은 ‘굴렁말’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갑둔리(甲屯里): 본래 남면 지역으로 임진왜란 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고 해서 갑둔(甲屯)이라 하였다고 전해오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치리(所峙里)와 김부리(金富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갑둔리(甲屯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갈고개: ‘서낭댕이’에서 ‘수구네미’로 넘어 가는 고개를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갑둔(甲屯): 임진왜란 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고 해서 ‘갑둔’이라고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마의태자(麻衣太子)가 이곳에 머무르며 국권회복(國權回復)을 위하여 군사훈련(軍事訓練)을 시킨데 연유하였다고 믿고 있다. 지금은 군사훈련장이 들어오면서 폐동되었다. 또한 이곳은 동학운동(東學運動)과 관련한 성지(聖地)

다. 1879년 해월신사(海月神師)께서 유적편집소(遺蹟編輯所)를 정선(旌善)에 사는 방시학(房時學)의 집에 설치하고, 편집 정리가 끝난 뒤, 이를 봉인(封印) 봉합(封合)하여 유시헌(劉時憲)의 집에 보관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이곳에 사는 김연석(金演錫)의 집에서 치성식(致誠式)을 행하였다. 또 5월 9일에는 경전인간소(慶典印刊所)를 김현수(金顯洙)의 집에 설치하고, 12월 14일에 완공하였으며, 다음 날 봉고제(奉告祭)를 거행하였는데, 이것이 곧 <동경대전(東經大全)>이다. 또한 이곳은 최초로 구성제(九星祭)⁵⁹⁾를 봉행한 곳이기도 하다. **(인제지명총람. 천도교의성지)**

갑둔3층석탑(甲屯3層石塔): ‘탑둔지(塔屯地)’ 또는 ‘탑뚜루’라고 하는 곳에 있으며, 3층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군사)**

갑둔5층석탑(甲屯5層石塔): ‘탑골’에 있는 탑으로 1987년 5월5일 갑둔향토사적연구회(甲屯鄉土史蹟研究會) 이태두(李泰斗)씨가 하대석(下臺石)과 옥개석(屋蓋石) 일부를 발견하고, 오미자 농장을 경영하던 정운희(鄭雲禧) 사장의 지원으로 동년 10월 21일에 복원한 탑이다. 기단부의 면석에는 음각된 해서체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4행 34자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살계제자구상주(菩薩戒弟子仇上主)

김부수명장존가(金富壽命長存家)

오층석탑성영충공(五層石塔成永充供)

양태평십육년병자팔월일(養太平十六年丙子八月日)

태평(太平)이란 연호는 글안 성종(成宗)10년⁶⁰⁾까지 밖에 사용치 않았

59) 구성제(九星祭): 성격은 고천제(告天祭)나 다름없으나, 교도(教徒)들의 제수(祭需)를 준비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육류(肉類)를 쓰지 않기로 하고 처음으로 올린 봉행제(奉行祭)를 말한다. 7년 뒤에 다시 인등제(引燈祭)로 바뀌었다.

60) 성종(成宗)10년: 1030년.

으나 교통통신이 매우 불편했던 당시 실정으로 보아 건립당시에 연호가 바뀌었음을 몰랐음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리라 추측 되며, 또 태평(太平)16년은 1036년이 되고, 신라(新羅) 패망 10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마의태자가 태어난 해로부터 2갑자(甲子)가 되는 해여서, 김부(金富)와 마의태자(麻衣太子)⁶¹⁾가 동일인일 것이라는 우리의 추측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고 있다. 기단부 면석에 김부(金富)라는 인물명이 새겨져 있어 ‘김부탑(金富塔)’



갑둔리5층석탑

이라고도 부르며, 갑둔 3층 석탑과 상남면(上南面) 부수동(副守洞) 탑재 일부를 일괄하여 1993년 6월 3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17호로 지정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다. (인제군사)

단지곡(斷趾谷): 김부리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말한다. 단지(斷趾)란 옛적에 형벌의 하나로 발뒤꿈치를 자르는 벌을 말하는 것으로, 처벌과 관련된 이름 인 듯싶다. (김부사적기)

맹가곡(孟家谷): 맹(孟)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에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마의태자(麻衣太子) 휘하에 있던 맹(孟)장군의 후손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맹창골: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맹가곡(孟家谷)’과 유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제지명총람)

61) 마의태자(麻衣太子): 본명은 일(鎰)이다.

떡갈봉: ‘서낭거리’ 북쪽에 위치한 산봉으로 떡갈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맞는물: ‘셋골’에 있는 약수로 피부병에 좋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문암동(門岩洞): ‘소재’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문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문지방소: ‘미야골’과 ‘월갑둔’ 사이에 있는 소(沼)로 문지방처럼 생겼다. **(한국지명총람)**

미야동(美也洞): 갑둔리 서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미야곡(美也谷): ‘미야동’ 골짜기를 이르는 말이다. **(한국지명총람)**

병바우: ‘문지방소’ 옆에 벼레로 이루어진 바위의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병바우굴: ‘병바우’에 있는 굴로, 굴의 길이는 20m이고 넓이는 5m로 6.25 대 패망한 인민군이 후퇴 당시 한 때 은거(隱居)하였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셋골: ‘소치’와 ‘월갑둔’ 사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서낭거리: 성황당(城隍堂)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곳은 동학운동(東學運動)과 관련한 성지(聖地)로, 1890년 7월에 해월신사(海月神師)께서 머문 곳이다. 신사(神師)께서는 이곳 이명수(李明秀)의 집에 이르렀는데, 마침 새들이 뜰에 있는 나무에 앉아 울자, 이를 보고 “저 역시 시천주(侍天主)의 소리니라. 묘하다 천도의 영묘(靈妙) 일에 간섭하지 않음이 없도다. 위로는 해와 달의 크과, 아래로는 티끌이 적음이 다 천도의 영광이니라.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산에 빌며, 돌에 빌어 복을 구하는 자 또한 영험이 없지 아니함은, 이 또한 천지의 영묘(靈妙)가 비치지 않음이 없는 증거니라. 그러나 화(禍)와 복(福)은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가 내 마음으로 마련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은 화복(禍福)의 기틀이며, 천주의 권능이니라.”하였다.(**천도교의 성지**)

성황평(城隍坪): ‘서낭대이’에 있던 들판을 말하나 폐동되었다.(**인케지명총람**)

소치(所峙): 부평동에서 ‘원갑둔’으로 넘어 다니던 작은 고개를 말한다.(**한국지명총람**)

소치리(所峙里): ‘원갑둔’ 북쪽 ‘취봉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 말 이름은 ‘소재’다. 지금은 군사훈련장이 들어오면서 폐동되었다.(**조선지리지**)

송현리(松峴里): 현 갑둔리 지역의 소치리(所峙里)를 말한다.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고개라 해서 취한 이름이다.(**여지도서**)

오미자동(五味子洞); ‘수구너미’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오미자가 많이 자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은 폐동되었다.(**인케지명총람**)

옥새바위: ‘단지골’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큰 바위 위에 넓적한 바위가 겹쳐 있는데, 옛적에 이곳에 옥새를 감쳤었다는 전설과 더불어, 이곳에는 뱀이 여러 빛깔로 둔갑하며 바위둘레를 에워싸고 있어 이곳 사람들은 옥새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김부사적기**)

옥토골: ‘서낭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 있는 산봉이 토끼와 유사하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나, 지금은 폐동되었다. 또 ‘옥토골’은 ‘옥터골’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옥터가 있던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한다.(**인케지명총람**)

옥토봉: ‘옥토골’에 있는 산봉으로 형상이 토끼와 유사하다고 한다. 전해오는 전설로는, 옛적에 이곳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결혼 한지 3년이 되어도 슬하에 자녀가 없어 김부대왕(金富大王)께 찾아가 소원을 빌었더니, 김부대왕은 이들 부부에게 절을 세우고 부처님께 백일기도를 드려보라고 일러주어 부부는 토끼봉에 절을 세우고 백일기도를 드려 두 남매

를 얻게 되었으며, 이들 남매는 김부대왕이 죽은 후에 은혜를 갚기 위하여 대왕각(大王閣)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도 토끼봉에 절을 지었던 주춧돌이 남아있다고 한다.(인제지명총람)

차유현(車踰峴): ‘수구너미’에서 김부리(金富里)로 가는 고개로 김부대왕이 수레를 타고 넘어 다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인제지명총람)

천지골: 김부탑 앞산의 정상에서 북으로 흘러내린 골짜기인데, 한자 표기는 불분명하나 갑둔향토사연구회 이태두(李泰斗)씨는 ‘천지골」天志谷」· ‘천제곡」天祭谷」· ‘천기곡」天基谷」」으로 표기하고 있다. ‘천지골」은 하늘의 뜻 혹은 임금의 뜻이 내려진 골짜기란 뜻으로 풀이하고, ‘천제골」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으로 풀이 할 수 있으며, ‘천기골」은 제(祭)가 지(志)로 변음 되고, 다시 지(志)가 기(基)로 변음 된 것으로 보아, ‘천기골」은 임금님의 사업의 기초란 뜻으로 김부대왕이 구국의지를 세우고 다진 골짜기라고 풀이 하고 있다.(김부사적기)

취봉산(鷲峰山): ‘원갑둔」 북쪽에 있는 산으로, 우리말 이름은 ‘수리봉」이라고 한다.(인제지명총람)

항병곡(降兵谷): 병사들이 싸움에서 지고 항복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김부사적기)

행병곡(行兵谷): 병사들이 지나간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름의 유래는 각기 다르나 ‘항병곡(降兵谷)」과 동일 지명이다.(인제지명총람)

정자리(亭子里): 본래 남면 지역으로 정자(亭子)가 있었으므로 정자막(亭子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골, 셋말, 아랫말, 기령골을 병합하여 정자리라 하였다.(한국지명총람)

기령골: '길영고개'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길영고개: 기린면(麒麟面) 서리(西里)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단지골고개: 정자리에서 상남면(上南面) 김부리(金富里)의 '단지골'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인제지명총람)**

대통골: '큰 통골'이라고도 한다. **(인제지명총람)**

더령재: '아랫말'에서 상남면(上南面) 김부리(金富里)로 가는 고개로 지금은 폐지되었다. **(인제지명총람)**

도토골: 산돼지와 토끼가 많아서 '도토골'이라 불렀다고 하나, 지도상에는 '도화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인제지명총람)**

떡구넘이고개: '길영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범골: 아주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여인을 범이 물어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석장곡(石葬谷): 옛날 어떤 유명한 풍수가 산 자리를 볼 때 돌로 만들어진 천연적인 괘이 있으나 아직 임자가 나타나지 못하여 그곳을 알려줄 수 없지만 이 골짜기에 분명히 있다면서 그 증거로 이곳을 파면 범 모양의 돌이 나온다고 파보라기에 파 본즉 정말 범 모양의 돌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장차 이곳은 석곽 속에 장사를 지내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석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애맥곡(愛麥谷): 이곳은 다른 곡식도 잘 되지만 특히 맥(麥)이 잘됨으로 '애맥골'이라고 했다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응봉치(鷹峰峙): '양지말' 뒤 매봉산에 있는 고개로 정자리에서 상남면(上南面) 하남리(下南里)로 가는 길목에 있다. 우리말 이름은 '매봉재'라

고 한다.(인제지명총람)

정자막(亭子幕): 현재 정자리에서 ‘통골’·‘샛밭’·‘아랫밭’·‘기령골’을 제외한 지역의 옛 이름이다.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정자막리(亭子幕里): 현 정자리의 옛 지명이다.(여지도서, 판동읍지)

남전리(藍田里): 본래 남면지역으로 ‘남밭골’ 또는 ‘남전동(藍田洞)’, ‘남전포(藍田浦)’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가로리(加路里), 반장리(半場里)를 합하여 남전리(藍田里)라 하였다. 행정리는 2개리다.(한국지명총람)

가노진(加奴津): 현 가로리(加路里)리로 군축대교(軍築大橋) 건너 마을을 말한다. 가로리에서 인제로 건너다니던 나룻터가 있었다.(여지도서, 판동읍지)

가노촌(加奴村): ‘남밭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소양댐 건설로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다.(인제지명총람)

가노탄(加奴灘): ‘가노진(加奴津)’을 말한다.(대동지지)

가마소: 동아실 어귀 폭포 아래에 있는 소(沼)로 가마솔과 비슷하다.(인제지명총람)

군축교(軍築橋): 예전에는 ‘가로교’라 하였으나, 뒤에 군인들이 놓았다 하여 ‘군축교’라 하였는데, 1973년에 남강토건에서 준공한 길이 303m에 높이가 20m의 교량으로 먼저 이름을 따서 ‘군축교’라 하였다. 현재는 국도 확장 공사에 의하여 더 큰 교량이 가설되어 ‘군축대교’라 이름 지었다.

남강(南江): ‘남밭골’ 앞으로 흐르는 강물 이름이다.(박종영의 시)

남전동(藍田洞): 쪽풀이 많이 자생하여 ‘남전리(藍田里)’ 또는 ‘남밭골’이라고 하며, 반장동(半場洞) 서쪽 물가에 있다.(조선지리지자료)

남전동리(藍田洞里): 현 남전리(藍田里)를 말한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쪽발골’ 또는 ‘남발골’이라고 하며, 쪽 풀이 많이 자생한다 하여 취한 이름이다. **(여지도서.관동읍지)**

남전약수(藍田藥水): ‘쪽발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국도변에 접해있어 찾아가기가 매우 수월하다. 이 약수는 철분과 유황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병과 위장병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강원도땅이름)**

도화실(桃花室): ‘동아실’과 같은 이름이다.

동아실: ‘남발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복숭아나무가 마을을 뒤덮다 시피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화실(桃花室)’이라고도 한다. **(인제지명총람)**

반장리(半場里): ‘남발골’ 동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상촌(上村)’과 ‘하촌(下村)’과의 거리가 반절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병항진(瓶項津): ‘가노진(加奴津)’의 다른 이름이다. **(남효운의 <남효운기>)**

상촌(上村): ‘반장동’ 윗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쌍룡대(雙龍臺): ‘동아실’에 소재한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오목골: ‘동아실’ 동쪽 오목한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쪽발골: ‘남전동’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말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쪽발골약수터: ‘쪽발골’에 있는 약수터로 1969년 6월 15일 함경북도(咸鏡北道) 명천(名川)출신인 이태근(李泰根)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고 한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인제지명총람)**

턱거리소: ‘가마소’의 다른 이름이다. 예전에 ‘가마소’를 지나는 길이 벼래로 되어 있어, 턱을 벼래에 걸쳐야 지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하촌(下村): ‘반장동’ 아랫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항골: 항아리 모양으로 골 안이 넓고 길쭉하다는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황곡야(黃谷野): ‘남밭골’ 들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남밭골버덩’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관대리(冠垔里): 본래 남면의 지역으로서 조선시대에 마노역(馬奴驛)이 있었으므로 ‘관(冠)터’ 또는 ‘관대(冠垔)’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개운리(開運里), 대흥리(大興里)를 병합하여 관대리(冠垔里)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강천(缸遷): ‘개운동(開雲洞)’에 있는 물가를 말한다. **(머동지지)**

개운동(開雲洞): 대흥리(大興里) 옆에 있던 마을로 개운분교(開雲分校)가 있을 정도로 비교적 큰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폐동되었다. 조선시대 말기까지 관(官)에서 운영하던 시슴목장이 있었다. **(한국지명총람)**

관대(冠垔): 예전부터 역(驛)이 있었다 하여 ‘관터’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관대평(冠垔坪): 청구리 건너편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구장천(九壯遷): ‘봉황대(鳳凰臺)’와 ‘건달리(建達里)’ 사이에 있다. 양구(楊口)의 남강(南江) 상류가 된다. **(머동지지)**

구정강(九鼎江): ‘대흥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우리 말 이름은 ‘장재구미’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대흥리(大興里): 관대리에서 외파로 떨어진 마을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는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는 김대흥(金大興)이란 사람이 부러운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주승이 찾아와 시주

를 청하니, 마구(馬廐)⁶²를 치던 그는 “무엇 줄 것이 있어야지. 쇠똥이나 가져가게.”하며 쇠똥을 퍼주었다. 이를 본 며느리가 “아버님 개도 안 먹는 것을 주면 죄스럽습니다. 등겨가 있으니 등겨나 한 바가지 주시지요.”하는지라, 그도 아까워 하면서 허락을 하자 며느리는 큰 바가지에 쌀을 가득 뜨고 위에 등겨를 덮어 시아버지의 눈을 속여 시주를 했다. 시주승은 이에 감탄하여 “댁에 화(禍)가 있을 것이니 자녀가 있거든 급히 데리고 나를 따르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시각을 지체 마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며느리가 황망히 아이를 업고 뒤를 따르자 시주승이 다시 말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얼마 안 있어 갑자기 뇌성 벼락이 치며 폭우가 쏟아져 대홍수가 나자 며느리는 집이 걱정되어 돌아다보니 집은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었고 시주승의 말을 어긴 탓인지 며느리는 놀라 주저앉은 채 돌이 되었다고 한다. 전설은 전설이라 치더라도 이 마을에는 지금도 김대흥이 살았다는 집이 있던 터를 ‘장자(長者)귀미’라 부르고 있고,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고개를 ‘부소고개’라 하는데 부잣집으로 가는 고개라고 하여 ‘부소현(富巢峴)’이라 했다고 전한다. (인제의지명총람)

마노리(馬奴里): 현 부평리로 선착장 건너편을 말한다. 말과 노비(奴婢)가 있다하여 취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마노진(馬奴津): ‘관터’ 앞에 있던 나루터로 마로리(馬路里)와 청구리(靑邱里)를 왕래하였다. (한국지명총람)

마로리(馬路里): ‘마노리(馬奴里)’의 다른 표기다. (판동읍지)

마로역(馬路驛): 마로리에 역(驛)이 있었다고 하며, 만의역(萬宜驛). 마노역(馬奴驛). 마리역(瑪璃驛) 마뢰역(馬雷驛)등으로 표기 되는데, 모두 이두(吏頭)식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기마(騎馬) 2필이 있었고, 복마(卜

62) 마구(馬廐): 외양간.

馬)가 4필이었으며, 역리(驛吏) 5인에 사내종 15명과 계집종 8인이 있었다고 전한다.(여지도서)

만의역(萬義驛): ‘마로역(馬路驛)’의 잘못된 이름이다.(김창협외 <동정기>)

배남동(背南洞): 마을이 남향(南向)을 등지고 있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다.(한국지명총람)

백천(白遷): ‘마노역(馬奴驛)’ 동북쪽 1리 지점에 있는 물가를 말한다.(김창협외 <동정기>)

봉황대(鳳凰臺): ‘관터’ 뒤편 북서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조선지리지자료)

부소현(鼻巢峴): 관터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흔히 ‘부소고개’라고 불렀다. 물오리 집이 많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대흥리에 전해오는 ‘부소고개’를 말하나, 전설과는 다르다.(한국지명총람)

서저진(西底津): ‘관터’ 앞에 있는 나루터로 ‘마노진(馬奴津)’의 다른 이름이다.(대동지지)

주연진(舟淵津): ‘관터’ 앞에 있는 나루터로 ‘마노진(馬奴津)’의 다른 이름이다. ‘미륵천(彌勒川)’의 하류가 된다.(신증동국여지승람)

치호강(雉湖江): ‘관터’에 있는 물 이름이다. 우리 말 이름은 ‘치구미’라고 한다.(조선지리지자료)

후평(後坪): 대흥동 뒤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한국지명총람)

신월리(新月里): 본래 남면 지역인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촌리(新村里)와 건달리(建達里)를 병합하여 신월리라 하였다.(한국지명총람)

건달리(建達里): ‘월산(月山)’ 밑에 있는 마을로 ‘내촌(內村)’과 ‘외촌(外

村) 두 마을로 나뉘어 있다. 동학(東學)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뒤에 상제교(上帝敎)⁶³와 시천교(侍天敎) 교주(敎主)를 지낸 김연국(金演局)이 태어난 곳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건담리(乾沓里): ‘신월리’의 옛 지명으로 모든 논이 천수답이어서 모내기를 적기에 못한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건달리(建達里)’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나加里(羅加里): 현 ‘신월리’로 ‘건달리(建達里)’ 안쪽 마을을 말한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내건리(內建里): ‘내달리(內達里)’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내달리(內達里): ‘건달리’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내촌(內村): ‘내달리(內達里)’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두모동리(頭毛洞里): 옛 ‘두무리(斗武里)’를 말하나 지금은 양구군(楊口郡)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두모현(頭毛峴): 옛 ‘두무리(斗武里)’에 있던 고개를 말하나 지금은 양구군(楊口郡)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신촌리(新村里): ‘월리’에 새로 생긴 마을이었으나 소양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고 일부만 남아 있다. **(한국지명총람)**

외건리(外建里): ‘외달리(外達里)’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63) 상제교(上帝敎): 동학 제2대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이 처형되자 그의 수제자 김연국(金演局)은 손병희(孫秉熙)와 함께 한때 대도주(大道主)의 자리에 올라 동학의 재건에 힘을 기울였다. 1908년 손병희와의 의견 대립으로 동학에서 이탈하여 이용구(李容九)와 함께 천도교에서 분리된 시천교(侍天敎)를 창시했다. 그후 이용구가 죽자 시천교 간부였던 송병준·박형채 등이 교단을 주도해나가는 데 불만을 품고 1924년 6월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이른바 ‘김(金)파 시천교’라 불렀다. 이듬해 6월 김연국은 계룡산 신도안(지금의 충남 논산시 두마면 용동 384번지)으로 본부를 옮기고 교단의 명칭을 상제교라 일컬었다.

외달리(外達里): ‘건달리’ 밖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외촌(外村): ‘외달리(外達里)’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월산치(月山峙): ‘월산’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진팔리: ‘신월리(新月里)’의 옛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상하수내리(上下水內里): 본래 양구군(楊口郡) 남면(南面) 지역으로 1945년 해방 이후 수내리(水內里)를 제외한 전역이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들어가자 이남인 수내리(水內里)는 춘성군 북산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임시조치법 공포로 양구군 남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73년 수복지구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 시에 일부 수몰되지 않은 상하수내리가 본군 남면으로 편입되면서 상수내리와 하수내리를 병합하여 상하수내리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가마산(加馬山): 상수내리에 있는 산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난근호(蘭根乎): 옛적에 난초가 많이 자생하였다고 하며, 물미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다. 우리말 이름은 ‘남부리’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남강(南江): 상하수내리에 이어져 있으며, 남쪽에 있는 강이라 하여 남강(南江)이라고 하였다. (조선지지자료)

남부리: ‘난근호(蘭根乎)’의 다른 이름이다. ‘남부리’는 ‘난뿌리’가 ‘남부리’로, ‘남부리’가 다시 ‘남부리’로 변한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더수령이 고개: 상수내리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

두리봉산(斗里峰山): 하수내리에 있는 산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

막장곡주막(幕帳谷酒幕): 막장곡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물미: ‘상수내리’의 으뜸 되는 마을의 이름인데, 한자 표기는 ‘수미(水尾)’

로 한다. **(한국지명총람)**

상수내리(上水內里): ‘수내리’의 위쪽 마을을 말하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춘성군(春城郡)북산면(北山面)의 상수리(上水里)일부를 병합하여 ‘상수내리’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

상수내진(上水內津): ‘물미’에 있던 나룻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상수내포구(上水內浦口): 상수내리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물미포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서낭댕이: 하수내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큰 ‘성황당(城隍堂)’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우리 말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선두평(船頭坪): ‘물미’에 있던 들로 배를 대던 곳에 있는 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수문리(水門里): 1750년 경에 ‘상수내리’를 이르던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수미(水尾): ‘상수내리’의 으뜸이 되는 마을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물미’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연화봉산(蓮花峰山): 하수내리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옥산동(玉山洞): ‘난부리’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옥산포(玉山浦): ‘옥산동’에 있는 물가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외막장현(外幕帳峴): ‘장막산’ 밖에 있던 작은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이목곡(梨木谷): 배나무가 많아서 지은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배나무골’이다. **(한국지명총람)**

장막곡(帳幕谷): ‘서낭당’에서 강 건너 속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장막산(帳幕山): '서낭당'에서 강 건너 편에 산 이름이다. 장막(帳幕)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진두주막(津頭酒幕): '물미'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평곡현(萍谷峴): '명곶리(明串里)' 골짜기에 있는 고개로, 마름풀⁶⁴이 자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말 이름은 '마름풀고개'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수내리(下水內里): 수내리의 아래쪽이 되므로 '아랫수내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막장골'을 병합하여 '하수내리(下水內里)'라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수내포구(下水內浦口): 하수내리 '서낭당'에 있는 포구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서낭당이포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회곡(檜谷): 상수내리에 소재하며, 회나무가 많은 골짜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회곶'이다. **(한국지명총람)**

회현(檜峴): 상수내리 '회곶'에 있는 고개로 우리말 이름은 '회곶고개'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64) 마름. 마름 풀: 마름과(一科 Trapaceae)에 속하는 1년생초. 물 위에 떠서 자란다. 뿌리는 물 밑의 진흙 속에 내리며, 물 위까지 뻗어 있는 줄기 끝에 많은 잎들이 뺨뺨하게 달린다. 물 속에서 나오는 잎은 가는 실처럼 갈라져 얼핏 보면 줄기에서 가는 뿌리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 위에 나와 있는 잎은 마름모꼴로 길이보다 너비가 더 길며, 잎가장자리에는 큰 톱니들이 고르지 않게 나 있다. 잎자루는 20cm까지 자라는데 가운데가 부풀어 있어 잎이 물 위에 떠 있게 해준다. 꽃은 흰색이며 7-8월에 물 위에 나와 있는 잎의 잎겨드랑이에 1송이씩 핀다. 꽃자루가 처음에는 위로 곧추 서 있으나 열매가 익어가면서 밑으로 숙여져 열매는 물 속에 있게 된다. 꽃잎과 꽃받침잎 및 수술은 각각 4개이나 암술은 1개이다. 열매에는 뼈대처럼 매우 딱딱한 뿔 2개가 양쪽으로 달린다. 마름의 열매를 물에서 나는 밤이라고 하여 '물밤'이라고 부르는데, 녹말과 지방이 많이 들어 있다. 열매를 얻기 위해 물에 심기도 하며, 딱딱한 열매는 화석이 되기 쉬워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다. 애기마름(T. incisa)도 흔히 마름과 같이 자라며, 잎이 작고 열매에 뿔이 4개 달려 마름과 구분된다.

수산리(水山里): 본래 춘성군(春城郡) 북산면(北山面)에 속하였으나 1973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면으로 편입되었다.(한국지명총람)

내곡동(棟谷洞): '박달골'의 다른 이름이다.(한국지명총람)

덕거리(德街里): '덕거리(德巨里)'의 다른 표기이다.(한국지명총람)

덕거리(德巨里): 춘성군(春城郡) 북산면(北山面) 대동리(大洞里)와 '무학동(無鶴洞)'과 '박달골'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이조시대에는 이곳에 주막이 많이 있어 양구(楊口)와 춘성군(春城)을 오고 가는 행인들로 붐볐다고 한다.(한국지명총람)

도래골: 예전에 산에 개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도래곡(桃峽谷)'이라 했다고 하고, 거룻배가 돌아오는 골짜기라 해서 '도래곡(渡來谷)'이라 했다고도 하나 어느 것이 맞다고 확신 할 수 없다. 현재는 소양댐 담수로 인하여 배가 닿을 수 있게 된 것이 우연 많은 아닌 것 같다.(한국지명총람)

동곡(洞谷): '수산리'에서 최초로 마을이 형성된 곳이라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통골'이라고 한다.(한국지명총람)

무아동(無阿洞): '무학동(無鶴洞)'의 다른 이름으로 잘못된 이름이다.(조선지지자료)

무악골: '무학동(無鶴洞)'골짜기를 말한다.(조선지지자료)

무학동(無鶴洞): 예전에 학(鶴)이 많이 서식했다고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무학동(舞鶴洞)'으로 표기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무학동(無鶴洞)'으로 표기 된 것은 오류(誤謬)이거나, 아니라면 이두식 표기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한국지명총람)

박달골: 예전에는 이 마을에 박달나무가 숲을 이루어 '박달골'이라 했다고 전하며, 또한 이 마을에는 떡거머리 총각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박달

나무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만들어 타고 다님으로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당시에 면장은 난리가 나면 비행기로 쉽게 피난할 수 있다하여 애지중지 길러온 외동딸을 떡거머리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배나무골: 들배나무가 많이 자생한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보리아동(菩理阿洞): ‘절골’의 옛 이름이다. 연유는 알 수 없다. **(조선지지자료)**

보리아골: ‘절골’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빙곡(氷谷): ‘샘골’에 있는 골짜기로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향시 그늘이 짙으므로 늦봄까지 얼음이 안 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샘골: ‘빙골’ 아래 있는 마을로 샘이 난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수청동(數靑洞): 물푸레나무가 무성하여 항상 푸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시녀곡(侍女谷): 이곳의 아리따운 처자가 궁중의 나인⁶⁵⁾으로 들어간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65) 나인: 궁중에서 생활하는 여관(女官)을 합쳐 부르는 말. 내인(內人)의 전음(轉音)이다. 본래 후궁(後宮), 궁중에서 생활하는 관속(官屬)·처첩(妻妾), 궁중에서 일하는 여관(女官), 측근의 인사, 자기 아내에 대한 겸칭(謙稱) 등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조선은 1405년 현의(賢儀)·숙의(淑儀)·찬덕(贊德) 등 12가지의 여관을 설치한 바가 있고 1428년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빈(嬪) 이하 전정(典正)에 이르는 여관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빈(정1품) 이하 숙원(淑媛: 정4품)까지를 내관(內官)으로, 상궁(尙宮: 정5품) 이하 전정(정7품)까지를 궁관(宮官)으로 호칭했다. 빈에서 숙원에 이르는 내관은 사실상 국왕의 첩 역할을 했고 상궁 이하 나인들의 경우 그 말은 직책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명칭을 지니고 있었다. 상궁·상의(尙儀)·상복(尙服)·상식(尙食)·상침(尙寢) 등 품계와 직책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지니는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들 나인들도 왕의 총애를 얻는 경우 자신의 직품을 뛰어넘어 빈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다.

절골: 예전에 절을 짓기 위하여 터를 잡았다 하여 ‘절골’이라고 부르는데 절을 짓지는 못하였다고 전한다. **(한국지명총람)**

정지동(亭之洞): 아주 오래전에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말 이름은 ‘정지골’인데 ‘정자동(亭子洞)’으로도 표기 한다. **(조선지리지, 한국지명총람)**

북면(北面)



군(郡)의 북쪽에 위치(位置)하고 있어 북면(北面)이라 하였으며, 본래 원통(元通), 가역리(加歷里), 용대리(龍垓里), 남교역(嵐校驛), 온정(溫井), 송학동(松鶴洞), 한계동(寒溪洞), 풍전동(楓田洞)의 9개 리(里)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行政區域) 폐합에 따라 한계(寒溪), 원통(元通), 월학(月鶴), 용대(龍垓)의 4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45년 38°선 이북(以北)이 되어 공산치하(共產治下)에 있다가, 1951년에 탈환하여 군작전(軍作戰) 지구로 되었으며, 1954년 11월 17일 행정 이양에 따라 민정(民政)으로 돌아왔으나 지금도 용대리의 일부는 군용지(軍用地)로 쓰이고 있으며 행정리(行政里)는 17개 리다.

동남쪽으로 기린면(麒麟面), 서쪽은 동면(東面), 남쪽은 인제읍(麟蹄邑), 북쪽은 서화면(瑞和面)과 인접해 있으며, 상업(商業), 관광(觀光), 군사도시(軍事都市)로 급성장하고 있다.

원통리(元通里): 조선시대에 원통역(圓通驛)이 있었으므로 원통이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에 어두리(魚頭里)와 하동(下洞) 일부를 병합하여 원통리(元通里)라 하였다. 행정리는 8개리다. (한국지명총람)

가음진(加音津): 현 가아리(加兒里)의 입구가 되며, 인제읍(麟蹄邑)과 북면(北面)의 경계를 이루는 나룻터를 말한다.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

고치(高峙): ‘어두운리’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된고개’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관찰사청덕비(觀察使淸德碑): 원통(元通)에 있었다고 하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구산곡(九山谷): ‘어두운리’ ‘구산(九山)’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기곡현(基谷峴): ‘우리말 이름은 ‘대골고개’ 또는 ‘텃골고개’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남산령(南山嶺): ‘어두운리’ 남쪽 산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노곡(蘆谷): ‘갈골’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노동(蘆洞): 원통 동쪽에 있는 마을로 갈대밭이 있었다고 하며, 우리말 이름은 ‘갈골’이다. (한국지명총람)

노동평(蘆洞坪): ‘갈골’에 있는 들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갈골버덩’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너탄천(磊灘川): 옛적 원통역(圓通驛) 앞 15리 떨어져 흐르는 어두원천의 옛 지명이다. (인제지명총람)

당치(堂峙): 우리말 이름은 ‘당고개’라 하는데 제당(祭堂)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둔지(屯地): 원통7리 마을로 둔덕진 마을이라는 뜻이다. **(인제지명총람)**

리치(梨峙): ‘어두운리’에 있는 고개로 숲이 우거져 항상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명당곡(明堂谷); ‘어두운리’, ‘연천(鵞川)’에 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묘약곡(妙藥谷); ‘어두운리’, ‘연천(鵞川)’에 있는 골짜기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방축곡(防築谷): 현 버스터미널 뒤편 골짜기로 물을 막기 위하여 둑을 쌓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별애곡(別崖谷): 벼레로 된 골짜기란 뜻이다. 우리말 이름은 ‘배낭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봉화봉(烽火峰): 월학리(月鶴里) 마평(馬坪) 뒷산으로 이조시대 봉축대(烽逐臺)가 있었다고 하나 기록으로 전해오는 것은 없다. **(한국지명총람)**

산제당봉(山祭堂峰): 제당(祭堂)이 있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삼거리: 현 북면 사무소 앞 즉 서화(瑞和) · 인제(麟蹄) · 속초(束草)로 가는 세 갈래 길이었으나 현재는 오거리로 변하였다. **(인제지명총람)**

삼거현(三巨峴): ‘세거런이고개’라고도 하는데 세 개의 큰 고개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원통 8리에서 남교리(嵐橋里)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40여 년 전에 부자 과부가 자기 돈으로 두 고개를 낮추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서탄진(西灘津): 서호교(西湖橋)가 놓이기 전에 있던 배 나루터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서저울나루’라고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

서호동(西湖洞): 원통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강이 흐른다. 우리말

이름은 ‘서저울’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서호주막(西湖酒幕): ‘서저울’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현재 가아리 입구에 있었다. **(조선지리지자료)**

세거리: 어두원리·고원통·용대리(龍垞里)의 정자문리로 가는 갈림길을 말하며, 지금도 ‘한계삼거리’로 불리고 있다. **(인제지명총람)**

승막곡(僧幕谷): 스님이 거처하던 초막(草幕)이 있는 골짜기라고 하는데, 위치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승현(升峴): ‘승막골’로 가는 고개를 말하는데, 위치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아전사리(衙前司吏): ‘원통’에서 서북향에 위치한 마을로 ‘다래골’하류가 되고, ‘서저울’에서는 북천(北川)상류가 된다. 조선시대에 지방관아에서 말단 행정을 보던 구실아치가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두리(魚頭里): ‘어두운리’의 이두식 표기인 ‘어두은리(魚頭隱里)’에서 바뀌어 진 이름으로, ‘어두원이’와 동일 지명이다. **(인제지명총람)**

어두원이: ‘어두운리’의 변음으로, 가평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높은 산이 솟아 있고 골짜기가 깊어서 어둡다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연천강(鵞川江): ‘어두운리’ 앞으로 흐르는 강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예계암곡(禮稽岩谷): ‘어두운리’ ‘연천(鵞川)’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오십복평(五十卜坪): ‘다래골’에 있는 들로, 우리말 이름은 ‘쑤짐벼당’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원통리(元通里): 현재의 원통리에서 어두리(魚頭里)와 시내 일원을 제외한 지역의 옛 이름이다. ‘고원통’이라고도 하는데, ‘원통(圓通)’으로 표기된 곳도 자주 발견된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원통전강(元通前江): ‘고원통’ 앞으로 흐르는 강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황소소’라고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제주도: 원통6리 마을로 제주도처럼 똑 떨어져 있다고 하여 최근에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조곡치(鳥谷峙): ‘새골고개’의 한문 표기 명으로 월학리와 원통사이에 있는 고개 사이에 있다하여 ‘새골「間谷」’이라고 불렀는데 일제시대에 한문 표기 과정에서 잘못된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청현(靑峴): 원통버스터미널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통에서 월학리 ‘새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마을 사람들은 청나라 사람이 넘은 고개라 해서 ‘청고개’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사철 내내 푸르다고 해서 ‘청고개’라고 한다는 말도 있다.

초혜현(草鞋峴): ‘어두운리’에 있다고 하나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칠성곡(七星谷): ‘어두운리’, ‘연천(鸞川)’에 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파망령(罷網嶺): ‘어두운리’에 있다고 하나 연유를 모른다. **(조선지리지자료)**

한강평(漢江坪): 원통 앞 강가에 인접해 있는 버덩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후연(後囷): 우리말 이름으로 ‘뒷늪’이라고 하는데, 현재 버스터미널 뒤편에 있었다. **(조선지리지자료)**

월학리(月鶴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에 송학동(松鶴洞)과 월하동(月下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월학리(月鶴里)라 명명하였다. 행정리 수는 3개리다. **(한국지명총람)**

건미치(建尾峙): ‘걸미재’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걸미리(傑味里): '새재'에서 송학동(松鶴洞)으로 가는 재로 골무처럼 생겼다고 한다. 흔히 '걸미재'라 발음한다. **(여지도서)**

겸곡(鉗谷): 도리촌에 있는 골짜기 이름으로 지형이 쇠의 목에 씌우던 형구(形具)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재갈골'이다. '재갈'은 말을 몰기 위하여 말의 입에 가로 물리는 쇠토막을 말하는 것이어서 겸(鉗) 즉 형구(形具)와 통하는 말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관모봉(冠帽峰): 사현(沙峴)에 있는 산봉우리의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갓모봉'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구미동(九美洞): '풍전동' 동남쪽 후미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는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기의 고인돌이 발견되어 마을 형성이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미동(龜尾洞)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귀미'의 한자 표기상에서 연유한 것이다. '귀미'란 말은 원래 물이 구비치며 흐름을 바꾸는 '구비'라 하던 것이 음이 변하여 '구미'로 되고, 다시 '귀미(龜尾)'가 되었다고 본다. **(한국지명총람)**

김양소(金良所): '다래골' 북쪽에 있는 마을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김장소'라고도 한다. **(인제지명총람)**

김양소평(金良所坪): '마평(馬坪)'에 있는 들로, 우리말 이름은 '김양소버덩'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총람)**

논골: '논다래'의 다른 이름으로 논이 많이 있는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으로, '소재골'과 원통리 '방축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누더기바위: 말거리 앞 강가에 있는 바위로 여러 개가 흩어져 있어 누더기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다래골: 월하동(月下洞), 하동(下洞)이라고도 불렀으며 상동(上洞) 아래

쪽에 있는데 지대가 높다. **(인제지명총람)**

답곡(畓谷): '다래골'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논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대곡(大谷): 송학동에 있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큰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대대리(臺垞里): 현 월학리의 '대터「竹垞」'마을로 송학동(松鶴洞) 동남쪽에 있다. 흔히 '대태'라고 부른다. 대나무 풀이 많이 자라고, 높고 평평하다 하여 취한 이름이다. **(여지도서)**

대오동(大梧洞): '도리촌'의 다른 이름이다. **(삼척김씨대동보)**

도리촌: '도리도리'의 이명으로, 말거리 북쪽 강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독은곡(獨隱谷): '다래골'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두명소: 앞배냇 끝에 있는 소(沼)로 두명⁶⁶⁾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마평(馬坪): 월하동(月下洞) 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이며 뒷산이 말의 형국이라 한다. 우리말 이름은 '말거리'이다. **(인제지명총람)**

말죽거리: '말거리'의 다른 이름이다.

명당산(明堂山): 월학리 서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모평(茅坪): 송학동(松鶴洞) 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떠밭이 있었다고 전한다. 우리말 이름은 '띠두루'이다. **(인제지명총람)**

박소재: '소재골'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66) 두명: 물을 많이 담아 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

백마촌(白馬村): 사천교를 건너기 이전의 마을로 본래는 잔디가 많아서 ‘띠두루’라 하였는데 6.25직후 9사단 주둔 당시 사단장 백인엽(白仁燁) 장군이 이곳에 주택을 지어 주민을 입주시키고 부대마크인 백마를 따서 ‘백마촌(白馬村)’이라 하였다. **(인제지명총람)**

봉황소(鳳凰沼): ‘모래재’에 있는 소(沼)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부실곡(富室谷): 사현(沙峴)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사천리(沙川里): 사천교 건너 서화면(瑞和面) 서흥리(瑞興里) 쪽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사현동(沙峴洞): ‘새재’라고도 부르며 두부공장이 있었다. **(인제지명총람)**

산이목곡(酸梨木谷): 도리촌에 있는 골짜기 이름으로 산배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산배나무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상동(上洞): 송학동(松鶴洞)의 이명으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지명총람)**

석애봉(石崖峰): ‘도리촌’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돌벼랑벼당’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선녀곡(仙女谷): ‘마평’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송학동리(松鶴洞里): 현재 월학리의 송학동(松鶴洞)마을을 말한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송학산(松鶴山): 송학동의 대표적인 산 이름이다. 소나무와 학(鶴)이 많았다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송현리(松峴里): 현 월학리의 송거동(松巨洞)을 말한다. 노송(老松)이 많은 고개 너머에 있다 해서 취한 이름이다. **(여지도서)**

신덕이산(新德伊山): 위천(渭川)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안소재: '소재골' 북쪽 마을을 말한다.

앞배냇: 말거리 앞에 있는 벼랑으로 길이가 약 100m에 달한다. '배냇'은 '벼랑'의 변음이다. **(한국지명총람)**

연봉(鳶峰): 도리촌에 있는 산 이름으로 우리말 이름은 '수리봉'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오곡(梧谷): 도리촌(桃李村)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머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옹장곡(擁藏谷): 도리촌(桃李村)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용강탄(龍江灘): 풍전동 동남쪽 마을 구미동(九美洞)에 있는 여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용수포(龍水浦): 송학동(松鶴洞)에 있는 포구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월하동(月下洞): 다래골의 이명(異名)이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지명총람)**

위천(渭川): '떠두루' 서북쪽에 있는 마을 앞으로 흐르는 큰 냇물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은곡(隱谷): 김장소 뒤 서쪽에 있으며 옛적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6.25동란 이후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은곡(銀谷): 마평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은선소(銀鮮沼): '도리촌'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누치소'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응곡(應谷): '김장소' 뒤 서편에 있으며, 옛적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응봉(鷹峰): '마평'에 있는 산봉우리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장소(場沼): '도리촌'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마당소'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장재곡(長財谷): 풍전동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장재동(長財洞): 위내(渭川) 서쪽에 있는 마을로 장지동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지명총람)**

저목곡(楮木谷): 도리촌에 있는 골짜기 이름으로 닥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닥밭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조곡(鳥谷): '새골'의 한문 표기 명으로 월학리와 원통사이에 있는 고개 사이에 있다하여 '새골「間谷」'이라고 불렀는데 일제시대에 한문표기 과정에서 잘못된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죽대평(竹垜坪): '대태'에 있으며, 우리 말 이름은 '대터버덩'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직곡(直谷): 송학동에 있는 곧은 골짜기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곧은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직소(直沼): '소젯골' 북쪽에 있는 소(沼)로 폭포가 곧바로 떨어진다. **(한국지명총람)**

책상봉(册床峰): 송학동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청현(靑峴): '방축골'에서 '소재골'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으로 '큰 청고개'와 '작은 청고개'를 아울러 이르는 이름인데, '큰 청고개'는 '논골'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고개를 말하고, '작은 청고개'는 북쪽에 위치한 고개를 말한다.

춘서곡(春西谷): '마평'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칠성고개: '원통(元通)'과 '새재' 경계에 위치한 고개로 '새골'이라 불렀는

데, 6.25직후 칠성부대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칠성고개라는 석비를 세움으로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칠전곡(漆田谷): '다래골'에 있는 골짜기로 옷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팔리봉(八利峰): 풍전동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풍전동리(楓田洞里): 현재 월학리의 풍전동을 말한다. 신나무⁶⁷⁾가 많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형제천(兄弟川): '도리촌'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형제나들이'라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효자곡(孝子谷): '장재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효자비가 있었다. 본래 '효자골'이었으나 구전되어오면서 '효자'가 '소자'로 '소자'는 다시 '소재'로 변성된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한계리(寒溪里): 한계산(寒溪山) 아래 마을이라 해서 한계동(寒溪洞)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에 구원통(舊元通), 판벌, 재너, 쇠리, 자양밭을 병합하여 한계리(寒溪里)라 하였다. 행정리 수는 3개리다. 신라김씨대종원(新羅金氏大宗院)의 기록을 보면 마의태자(麻衣太子) 일행이 서울을 떠난 것은 935년 10월 하순이고 지금의 한계리에 도착한 때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눈보라가 심한 한겨울이었다고 했는데 이들 일행이 몹시 추웠던 것을 되새겨 한계(寒溪)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판너에는 마의태자(麻衣太子)와 관련한 많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67) 신나무: 단풍나무과(丹楓—科 Aceraceae)에 속하는 낙엽 소 교목.

가리봉(加里峰): ‘자양밭’ 동남쪽에 있으며 인제읍(麟蹄邑) 가리산(加里山)과 경계를 이루는 산의 최고로 높은 봉우리를 말하는데, 높이가 1,519m에 달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가허루(架虛樓): 옛적 한계사(寒溪寺)에 속해 있던 누각 이름이다. **(敬一의 <설악산 한계사의 가허루기>)**

간곡(間谷): ‘소마전’에 있는 골짜기로 우리말 이름은 ‘새치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감사놀이터: ‘느와우’ 동북향 냇가에 있는 넓은 바위로, 감사가 이곳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 **(한국지명총람)**

갈직촌(葛直村): 한계동(寒溪洞)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우리말 이름은 ‘갈직이’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감투봉: 두문곡(杜門谷) 막바지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감투와 같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건천곡(乾川谷): ‘자양밭’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자주 마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고실애곡(高失厓谷): ‘어두운리’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고원통(古元通): ‘한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李朝時代)에 역(驛)이 있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기마(騎馬) 1필 · 복마(卜馬) 2필 · 사내종 4명 · 계집종이 1명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공기바우: ‘옥녀탕’ 위에 있는 묘하게 생긴 바위로 옥녀탕에 왔던 선녀들이 공기받기를 하고 놀았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관대(冠袋): ‘고원통’ 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李朝時代)에 관사(館舍)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관터’다. **(한국지명총람)**

광계곡(廣溪谷): ‘성골’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구선대(九仙臺): ‘탕숫골’ 안 칠음대 밑에 있는 너럭바위로 골짜기 물이 아홉 군데에서 떨어지는 품이 아홉 선녀가 춤을 추는 듯 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구암(龜岩): ‘부영산’ 아래 강가 쪽으로 솟아 있는 바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구유소: ‘남교’ 동쪽 골짜기 어귀에 있는 여러 개의 소(沼)로 구유⁶⁸⁾와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구장곡(九藏谷): ‘고원통’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아홉 사리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뇌탄천(磊灘川): ‘재내’와 ‘관벌’사이를 흐르는 물의 이름이다. **(여지도서)**

대궐대(大關陞): 한계산성(寒溪山城)내에 있으며, 대궐이 있던 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마의태자(麻衣太子) 김일(金鎰)이 거처하던 대궐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된 허응당(許應堂) 보우(普雨)의 시 <한계산(寒溪山) 옛 대궐 터를 유람하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 대궐 터가 영서(嶺西)에 있다가에
스님과 지팡이 끌며 한계(寒溪)에 이르렀네
연로(輦路)⁶⁹⁾는 구름에 묻혀 축룡(燭龍)⁷⁰⁾도 가기를 망설이고
궁성(宮城)은 눈이 많아 말발굽도 잠기네
저물녘 갈래진 큰 산의 돌 비탈길은 얽히고

68) 구유: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69) 연로(輦路): 임금의 수레가 왕래 하는 길.

70) 축룡(燭龍): 불을 비추어 주는 신(神)의 이름이다. 『초사(楚辭)』 천문「天問」에, “축룡이 어찌 비취 주랴. [燭龍何照]”고 한 주에, “서북 지역 해가 없는 나라에 어떤 용이 빛을 비추어 준다.” 하였다.

물은 매달려 흐르는 것이 천제(天梯)인양 흠어지네
 오후라! 군주(君主)의 관청은 어디 있는가
 적막한 천봉에는 새소리뿐이구나. (조선지리지자료)

대승령(大乘嶺): ‘자양밭’에서 백담사로 가는 고개로, 해발 1,150m다. ‘대승폭포’에서 위로 올라가면 접하게 되는데, 이 고개를 넘어 동북쪽으로 가면 백담사(百潭寺)에 이르게 되고, 서북쪽으로 가면 ‘남교(嵐橋)’에 이른다. (강원도땅이름)

대승암터: 대승폭포 상류에 있던 옛 암자 터를 말한다. (한구지명총람)

대승폭포(大勝瀑布): ‘자양밭’ 동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로 높이가 88m로, 금강산의 구룡폭포(九龍瀑布) 그리고 개성의 박연폭포(朴淵瀑布)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폭포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높다. 폭포 맞은편 언덕 반석에는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큰 글씨로 새겨져 있는 데 조선(朝鮮) 선조(宣祖)때 양봉래(楊逢來)가 썼다고 하며,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소유 권상용(小遊 權相容), 금원여사(錦園女士)등이 크게 칭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筆者)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그 옆에서 “사홍치규(使洪穉圭)”라 새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보아 헌종(憲宗) 3년(1837)에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지낸 홍치규(洪穉圭)⁷¹⁾가 새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설에는 대승(大乘)이라는 총각이 동아줄에 의지하여 폭포 아래에서 석이를 따고 있었는데 “대승아, 대승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므로 위로 올라가 보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커다란 지네가 동아줄을 쓸어 곧 끊어지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

71) 홍치규(洪穉圭): 남양(南陽)홍씨로 통훈대부행개령현감겸상주진영병마(通訓大夫行開寧縣監兼尙州兵馬) 절제도위(節制都尉)를 지낸 인물로 헌종(憲宗) 3년(1837)에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지냈다.

가 전해오고 있다. **(인제지명총람)**

덕곡(德谷): ‘갈직촌’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독탕: ‘탕숫골’ 위에 있는 탕(湯)으로 독과 같다고 한다. 또 ‘웅탕(甕湯)’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두문곡(杜門谷): ‘독탕’ 위쪽에 있는 길고 큰 골짜기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두문폭(杜門瀑): ‘두문골’에 있는 폭포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마산곡(馬山谷): ‘관벌’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마산곡’이란 이름이 왜 생겼는지 전해오는 것은 없으나, 이곳에 역(驛)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말을 놓아먹인 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따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목단곡(牧丹谷): 연현(淵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삼척 김씨 네 산소가 목단 꽃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모노골’ 또는 ‘모숫골’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목적곡(木賊谷): ‘쇠밭골’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발곡(拔谷): 우리말 이름으로 ‘밭골’이라고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으나 ‘우족곡(牛足谷)’의 우리말 이름인 ‘쇠밭골’의 주린 말에서 연유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조선지리지자료)**

백운동산(白雲洞山): ‘백운암(白雲庵)’이 있던 마을로 한계사(寒溪寺) 동쪽 40여 리 지점에 있었으나 오래 전에 폐동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

백운암(白雲庵): 한계사(寒溪寺) 동쪽 40여 리 지점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옛 터만 남아 있다. **(판동읍지)**

보시암곡(普施庵谷): ‘자양밭’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는데, 어느 골짜기를 말하는지 확실치 않다. **(조선지리지자료)**

봉통곡(蜂桶谷): '관벌' 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벌통을 많이 놓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날 벌을 잡아두기 위하여 빈 벌통을 산에 놓는 것을 '설통'이라고도 한다. 우리말 이름은 '벌통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부림역(富林驛): '고원통'에 있던 역(驛)의 이름이다. 철종(哲宗)12년(1861)에 간행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부림역(富林驛)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통역(元通驛)으로도 자주 쓰였다. **(한국지명총람)**

부흥동(復興洞): '재내'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사곡(寺谷): 목단동(牧丹洞)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사암봉(四巖峯): 네 개의 바위가 있는 봉우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수증(金壽增)의 한계산기(寒溪山記)에 '담의 서쪽 암벽 위에는 옥류천(玉流泉)이란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곳을 지나 걷다보면 우측에 네 개의 바위가 있으며, 그 모양이 난새「鸞」와 봉황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중폭포(四重瀑布): 대승폭포 아래 잇달아 있는 네 개의 폭포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사탕(梭湯): 독탕 위의 탕으로 북「梭」처럼 생겼다고 하여 '북탕'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산주소(散珠沼): '납교' 동쪽 산골짜기 안에 비스듬히 떨어지는 폭포로 너럭바위에 물이 부딪치고 미끄러지며 한 알이 되었다가 다시 마주쳐 흩어지는 품이 금강산 산주연(散珠淵)과 비슷하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삼선봉(三仙峰): 삼장군봉(三將軍峰) 위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셋이고 매우 수려하다. **(한국지명총람)**

삼장군봉(三將軍峰): ‘느와우’에 있는 웅장한 세 봉우리로 세 장군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형상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상목곡(桑木谷): ‘어두운리’에 있는 골짜기로 뽕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상승암(上乘菴): ‘대승암(大勝庵)’ 조금 위에 있던 암자를 말한다. **(김창협 의 <동정기>)**

상투봉: ‘자양밭’에 있는 산봉우리로 상투 모양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선호암(仙護岩): ‘옥녀탕’ 바로 밑 서쪽 국도 상에 있는 커다란 바위인데 옥녀탕에서 목욕을 하던 선녀들을 지네가 해치려 하자 옥황상제가 보호하려고 벼락을 칠 때 떨어진 바위라고 해서 박종문(朴鍾文) 전 강원도지사가 재임 시 이곳을 지나다 명명하였다. **(인척지명총람)**

설산(雪山): ‘설악산’의 다른 이름이다. **(김금원(金錦園)의 시)**

성곡(城谷): 옥녀탕(玉女湯) 상류의 골짜기로 성(城)이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성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소동라령(所冬羅嶺): 한계령(寒溪嶺)의 옛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바드랏재’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다산 정약용의 <산수십원기>)**

소마전(小麻田): ‘우와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삼밭(三田)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소솔천(所率川): 지금 ‘한계천’의 옛 이름이다. **(남효운의 <남효운기>)**

소승폭포(小乘瀑布): 44번 국도를 따라가다 한계령 정상에 조금 못미처 좌측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높이가 80m에 이른다. **(강원도 땅이름)**

송곶봉; 학서암(鶴棲岩) 북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송곶같이 뾰족하다. **(인척지명총람)**

수곡(水谷): ‘고원통’에 있는 골짜기 이름으로 방축(防築)이 있는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추측된다. 우리 말 이름은 ‘물골’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한계령의 설경

승소(僧沼): 승폭(僧瀑) 아래에 있는 소(沼)로 승려가 빠져 죽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승승곡(承承谷): ‘탕수골’ 위 승폭(僧瀑)과 승소(僧沼)가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승곡(承谷)’은 ‘승곡(僧谷)’의 이두식 표기라고 본다. **(조선지리지자료)**

승폭(僧瀑): ‘탕수골’ 위 2km 되는 산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로 높이가 35m 정도다. **(한국지명총람)**

신사곡(新寺谷): ‘갈직촌’에 있는 골짜기로 새 절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 절이란 백담사(百潭寺)의 전신인 한계사(寒溪寺)가 1685년에 불타자, 1690년에 옮겨 지은 운흥사(雲興寺)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신원(新院): ‘옥녀탕’ 하류로 서쪽에 있었다. 언제 개설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493년에 폐지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아갈바위: ‘옥녀탕’ 서쪽에 인접해 있으며, 벽을 이루고 있어 암벽 등반가들의 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차막동(阿次莫洞): ‘진목전(眞木田)’에서 동쪽으로 5리 지점에 있다. **(김수증의 <한계산기>)**

안들바우: ‘구유소’ 위에 있는 바위로 120° 쯤 기울어져 있어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바위를 안고 돌아가야 한다. **(한국지명총람)**

안산(鞍山): 갈직촌에 있는 산으로 모습이 매우 뛰어나서 불만한 산이다. 해발 1,430m의 이 산은 말안장을 연상시키듯 두 개의 암봉 사이가 잘록하게 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갈마산’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양반바우: ‘송곳봉’ 옆 냇가에 있는 바위로 바위 위에서 있는 소나무가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앉은 것 같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어은곡(魚隱谷): ‘소삼밭’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옆에는 학모봉(鶴母峰)·학자봉(鶴子峰)이 있다. **(한국지명총람)**

어은천(魚隱川): ‘어은곡’에 있는 물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여항어담(餘項魚潭): ‘옥녀천’ 밑에 있는 소(沼)로 열목어(熱目魚)가 많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김수증의 <유곡연기>)**

연현(淵峴): 갈직촌(葛直村)에서 내설악(內雪岳)으로 넘어 가는 고개로 매우 높다. 우리말 이름은 ‘늪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오색천(五色川): ‘자양밭’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말 이름도 ‘오색이 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옥녀천(玉女川): ‘성골’에서 흘러내리는 물 이름이다. 물빛이 옥같이 맑아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옥녀탕(玉女湯): 옥녀천(玉女川)에 있는 탕(湯)을 말한다. 옛날 선녀가 대승폭포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커다란 지네가 나타나 해치려 하므로 이 탕으로 쫓겨 왔는데 지네가 이곳까지 쫓아와 해치려 하니 하늘의 옥황상제가 벼락을 쳐 선녀들을 구했다는 전설이 있다. **(한국지명총람)**

옥류천(玉流泉): ‘옥녀천(玉女川)’ ‘옥녀탕(玉女湯)’ 모두 같은 이름이다.

(김수종의 <유곡연기>)

용탕(龍湯): ‘탕숫골’ 제일 위에 있는 탕으로 뒷벽에 큰 바위굴이 있으며, 이곳에서 용이 나왔다 하여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祈雨祭)를 올렸다 한다. **(한국지명총람)**

용혈(龍穴): 용탕(龍湯) 뒷벽에 있는 바위굴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와촌(瓦村): 한계(寒溪)의 중심 마을이며 옛날에 이곳에서 기와를 구워서 사람들이 열을 지어서서 물이 흐르듯 기와를 날랐다고 해서 ‘재내’라고 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한국지명총람)**

우와리(牛臥里): 목단동(牧丹洞) 동쪽에 있는 마을로, ‘늪재’아래 있는 마을이다. 우리 말 이름은 ‘쇠리’이며, 우와(牛臥)형의 명당(明堂)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 흐르는 물가 바위에



황장금표석 전경

에 소발자국이 새겨져 있어 ‘우족곡(牛足谷)’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조선지지자료)**

우족천(牛足川): ‘쇠발골’에 있는 물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

운흥사지(雲興寺址): ‘초막곡(草幕谷)’에 있으며, 백담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사지(寺址) 뒤편 축대에는 황장금표(黃腸禁標) 문안이 새겨져 있다.

울내: 한계리 중심으로 흘러 내리는 물을 말한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의 한계(寒溪)라는 제하(題下)의 시에 ‘오열(嗚咽)하는 한계수(寒溪水)는 빈산을 밤낮으로 흘러가누나.’라는 시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원통역(圓通驛): ‘고원통’에 있던 역(驛)의 이름이다. 철종(哲宗)12년(1861)에 간행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부림역(富林驛)’으로 표기되어 있다.(김수증의 <한계산기>)

원통역(元通驛): ‘원통역(圓通驛)’을 말한다. 기마(騎馬)가 1필 있고, 복마(卜馬)⁷²⁾가 2필이며, 사내중 4명에 계집종이 1명 있었다고 전한다.(남효온의 <남효온기>)

원통점(圓通店): ‘원통역(圓通驛)’부근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이북원의 설악왕환일기)

원통천(元通川): 지금의 ‘인북천(麟北川)’을 말한다.(남효온의 <남효온기>)

응봉(鷹峰): 구선대(九仙臺) 위에 있는 산 이름으로 우리말 이름은 ‘매봉’이다.(한국지명총람)

응봉폭(鷹峰瀑): 응봉(鷹峰) 아래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한국지명총람)

이목곡(梨木谷): ‘재내’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배나무골’이라고 한다.(조선지리지자료)

입모봉(笠帽峯): ‘상설악(上雪嶽)’에서 남서쪽에 있으며, 삿갓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김수증의 <한계산기>)

72) 복마(卜馬): 각 역에 두는 말을 역마(驛馬) 또는 포마(鋪馬)라고 한다. 중요한 교통통신 수단으로 문서와 군사정보의 전달, 물자 수송, 관리들의 여행편의, 사신의 영송(迎送)등에 쓰였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서 사람이 타는 기마(騎馬)와 짐을 운반하는 복마(卜馬: 馱馬라고도 한다)로 나누고, 크기에 따라서 대마(大馬), 중마(中馬), 소마(小馬)로 구분하기도 하고, 상등마, 중등마, 하등마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양전(紫陽田): ‘우와리(牛臥里)’ 동남쪽 한계령 아래에 있었던 마을이었으나 1975년 산림내 불법건물 정리 시에 폐동되었다. 우리말 이름은 ‘자양밭’ 또는 ‘재랑밭’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자연대(紫煙臺): ‘대승폭포’를 관광하기 좋은 맞은편의 바위를 말한다. **(김수증의 <유곡연기>)**

장수대(將帥臺): 원래 ‘자양밭(紫陽田)’이었는데 삼군단장으로 있던 오덕준(吳德俊)장군이 6.25동란 당시 희생된 장군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1959년에 한옥산장을 세우고 장수대(將帥臺)라 명명한 후에 붙여진 지명이다. **(인척지명총람)**

조탁암(鳥啄岩): ‘광계(廣溪)’ 아래에 있는 큰 바위로 새들이 바위틈에 들어 있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고 쪼아 놓아서 패였다고 하며 주변에는 쪼아 놓은 바위부스러기가 흩어져 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제정산(蹄定山): ‘쇠발골’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좌암(坐巖): ‘자연대(紫煙臺)’와 같은 지명으로 여러 사람이 둘러앉을 만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수증의 <유곡연기>)**

주극봉(周克峰): ‘자양밭’ 동남쪽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주걱봉’이다. 형상이 주걱 모양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주극봉(周克峰)’은 이두식 표기에서 나온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진목전(眞木田): ‘자양전(紫陽田)’의 다른 이름이다.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진목전(眞木田)’은 ‘참나무밭’의 향가식 표기에 의한 이름이다.

천제단(天祭壇): 한계산성(寒溪山城) 남문(南門)에서 동북쪽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다. 몹시 험준하기 때문에 자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오르기가 힘들다. 제단에는 세 개의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그 속에 끼인 비교적 면이 고르고 큰 면석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오른쪽에 새겨진 명문은

“선상제(仙上帝)/각산단
(角山壇)/은은사(銀隱
師)/의선운장(義仙雲
將)/김성진(金成鎭)”



이고, 중앙에 새겨진 명문은

“곤무성산담(坤武誠山
榻)/소금강산불자상제
부용선왕은사(昭金山佛者上帝芙蓉仙王隱師)/경오십이월이십칠
일오시정선양일성(庚午十二月二十七日午時貞仙陽日星)/김세진(金
世鎭)”

천제단 전경

이라 새겨져 있으며, 왼쪽 명문에는

“시국대동단소금산(時國大東壇昭金山)/도군자성산담(道君子誠山
榻)/무신상제석산단남은사(戊申上帝石山壇南隱師)/부선천주신광
택(附仙天主申光澤)/신미팔월십오일(辛未八月十五日)”

이라 새겨져 있다. 또 이 제단에 관련한 보우(普雨)⁷³⁾의 <천단축리(天壇

73) 보우(普雨): 1515~1565. 조선 중기의 고승. 호는 허응(虛應) 또는 나암(懶庵). 보우는 법명이다. 15세에 금강산 마하연암(摩訶衍庵)으로 출가하여 금강산 일대의 장안사(長安寺)·표훈사(表訓寺) 등지에서 수련을 쌓고 학문을 닦았다. 1548년(명종 3) 문정대비로부터 봉은사(奉恩寺)의 주지로 가라는 부름을 받고 봉은사 주지가 되었다. 1550년 선교양종(禪敎兩宗)을 부활하였고, 1551년에는 도승시(度僧試)를 실시하여 도첩제도(度牒制度)를 부활시켰다. 1552년에는 승과(僧科)를 다시 설치하게 했고, 1555년 춘천의 청평사(淸平寺) 주지로 있다가 1559년 다시 봉은사 주지가 되었다. 1565년 문정대비가 죽자 유생들은 곧바로 보우의 배척과 불교탄압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잇따른 상소에 명종은 보우의 승직을 박탈하고, 1565년에 보우를 귀양 보냈으며, 이어 제주목사 변협(邊協)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보우는 억불정책 속에서 불교를 중흥시킨 순교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일체론(禪敎一體論)을 주장하여 선과 교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던 당시의 불교관을 바로 잡

祝釐)》란 시가 있는데

天壇涼氣深/천단(天壇)⁷⁴은 서늘하고 으스스한데
 玉宇河皎潔/옥우(玉宇)⁷⁵는 물같이 교결(皎潔)하구나
 蓮漏磬群寒/물시계⁷⁶는 비어서 모두가 얼고
 雲房僧語輟/운방(雲房)의 스님도 말 접었구나
 心生境亦生/마음은 생기는 곳에 또 생겨서
 境滅心還滅/끊으려는 마음에 환멸(還滅)느끼나니
 心境兩俱空/심경(心境) 아울러서 함께 비우도록
 祝君誠自切/정성으로 하느님께 축원하오니 바로잡아주소서.

라고 읊고 있다.(인제군사)

철사곡(鐵絲谷): ‘고원통’에 있는 골짜기로, 우리말 이름은 ‘사실골’이라고 한다.(조선지리지자료)

청동소(靑銅沼): ‘관벌’에 있는 소(沼)의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청반산(靑盤山): ‘설악산’의 일본식 이름이다.(黃屎의 시)

초막곡(草幕谷): 백담사(百潭寺)의 전신인 운흥사(雲興寺)가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예전에 초막(草幕)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풍전산(風田山): ‘소마전’에 있는 산으로, 우리말 이름은 ‘바람밭치산’이라고 한다.(조선지리지자료)

있고, 일정설(一正說)을 정리하여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하였다. 저서로는 『허응당집(虛應堂集)』, 『나암잡저(懶庵著)』 등이 있다.

74) 천단(天壇):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 인제군 북면 한계리 한계산성(寒溪山城)안에 있음.

75) 옥우(玉宇): 천제(天帝)가 있는 곳. 하늘. 화려하고 웅장한 전각(殿閣).

76) 연누(蓮漏): 진(晉) 나라의 고승 혜원(惠遠)이 연꽃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물시계인 연화루(蓮花漏)를 말함.

학모봉(鶴母峰): 학자봉(鶴子峰) 뒤에 있는 산으로 학자봉의 어머니와 같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학자봉(鶴子峰): '재내' 뒤에 있는 산으로 학모봉(鶴母峰) 앞에 있다. **(한국지명총람)**

한계고성(寒溪古城): '성골'에 있는 성의 이름이다. 석축의 둘레가 6,278척이라고 하나, 많이 퇴락하였다. 성 안에는 우물이 두 곳이 있고, '대궐터'도 전해온다. **(판동읍지)**

한계령(寒溪嶺): '자양밭' 동쪽에서 양양(襄陽)의 오색(五色)으로 가는 큰 고개로 해발 1,004m인데, 인제(麟蹄)와 양양(襄陽)의 경계가 된다. 한계산(寒溪山)의 큰 령(嶺)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예전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도 불렀다. **(한국지명총람)**

한계리(寒溪里): 한계산(寒溪山) 아래 있는 마을이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한계사지(寒溪寺址): 현 백담사의 전신이라고 하는데,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元年:647)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설에 의하면 화천에 있던 비금사(飛琴寺)를 하루 밤 사이에 옮겨왔다고 한다. 대승폭포 바로 밑에 있는 이 사지(寺址)는 강원도기념물 제 50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남탑(南塔)과 북탑(北塔) 2기가 있는데, 1998년 3월 31일에 보물 제1275호와 1276호로 각각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인제군사)**

한령(寒嶺): '한계령(寒溪嶺)'의 약칭이다. **(문익성의 <유한계록>)**

험석곡(險石谷): '갈직촌'에 있는 산골짜기로 매우 험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용머리(龍垜里): 본래 용머리는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서화현(瑞和



한계사지 남탑
 (縣) 지역으로서 용바위 아래가
 되어 '용의 터' 또는 용머동(龍垜洞)이라



한계사지 북탑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교리(嵐橋里)·창암(窓岩)·가역리(加歷里)를 병합하여 용머리(龍垜里)라 하였고 행정리 수는 3개리다.(한국지명총람)

가야동(伽倻洞): 영시암 동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다.(한국지명총람)

가야동계곡(伽倻洞溪谷): 수렴동계곡 위에 있으며, 수렴동대피소의 뒤로 해서 용아장성능선과 공룡능선을 가르는 약6km의 계곡으로 희운각대피소까지 이어진다.(강원도 땅 이름)

가역리(加歷里): 현 용대리의 가평(加坪)지역을 말한다. 백담사 입구가 되며, 조선시대에 가역원(加歷院)이 있었다고 하며, '갈역(葛驛)'이라 부

르기도 하였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가엽봉(加葉峰): 봉정암 북쪽 독성나한봉(獨聖羅漢峰) 아래 있는 산으로 석가봉(釋迦峰)을 향하여 읍하고 있는 형상이다. ‘가섭봉’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지명총람)**

가이봉(加耳峰): 남교리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가평(加坪): 이조시대에 가역원(加歷院)이 있었다 하여 ‘가력이버덩’이라고도 한다. 백담사(百潭寺)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조선지리지자료)**

간령(間嶺):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에 있는 고개로, 한 때 인제와 고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장티’를 중심으로 용대 쪽에 있는 고개를 소간령(小間嶺)이라 하고, 고성 쪽에 있는 것을 대간령(大間嶺)이라고 한다. 사이「間」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새이령’이라고 부르다가 ‘셋령’으로 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

갈역(葛驛): ‘가역원(加驛院)’의 다른 이름이다. **(삼연 김창흠 선생문집)**

거칠봉(巨七峰): 남교리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검동(黔洞): ‘오세암’이 위치한 곳의 지명이다. 연유는 알 수 없다. **(김창흠의 시)**

격산(隔山): ‘부전암(負轉巖)’에서 1리 쯤 위에 있는 산 이름이다. 일명 ‘천춘련(千春嶺)’이라고도 한다. **(김수증의 <유곡연기>)**

곡백담(曲百潭): ‘황정연(黃精淵)’에서 20여 리 아래로 흐르는 맑은 물굽이와 소(沼)를 통틀어 ‘곡백담’이라고 한다. **(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곡백운(曲白雲): 백운동 오른편의 굽은 골짜기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굽은백운’이다. **(한국지명총람)**

광어봉(廣於峰); 용두동(龍頭洞)에 있으며, 봉(峰) 정상이 널찍하다. **(조선지리지자료)**

광탄리(廣灘里): 당정곡(堂亭谷) 동쪽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광협동(廣峽洞): 암내동 서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는 하나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교곡(橋谷):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골짜기 이름으로 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다릿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교곡계(橋谷溪): '다릿골'에 있는 계곡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구곡담(九曲潭): 봉정암 가는 길로 잘 알려진 구곡담은 수렴동 계곡을 타고 올라가다가, 수렴동대피소에 이르기 직전에 계곡이 좁아지다가 대피소 앞으로 나오면 다시 좌우로 각각 계곡이 갈라지게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가야동계곡'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구곡담'이다. **(강원도땅이름)**

구만동(九萬洞): '평촌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구만(九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구연(龜淵): 수렴동 안에 있는 소(沼)로 거북이 모양이라 하여 '거북소'라고 부른다. **(한국지명총람)**

구웅소(九雄沼): '용두리'에 있다고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귀떼기청봉: 설악산 서북주능선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해발 1,578m이다. 백담계곡을 지나 수렴동으로 가다가 영시암 터 못 미처 '큰귀떼기골' 상류에 있다. **(강원도땅이름)**

기룡봉(起龍峰):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기린봉(麒麟峰): 봉정암 동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김부령(金富嶺): 현재 진부령(陳富嶺)을 말한다. 인제군(麟蹄郡) 북면(北面)과 고성군(高城郡) 간성읍(杆城邑) 사이의 태백산맥을 넘는 험준한 고개로 높이는 530m이다. 진보령(陳寶嶺)으로도 표기가 되는데,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이 넘었다 하여 ‘김부(金富)’가 ‘진부(陳傅)’, ‘진부(陳富)’로 변했다고 하나, 또 한편으로는 마의태자(麻衣太子)가 넘어다니던 고개라고 전해오기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난계역(亂溪驛): ‘남교역(嵐橋驛)’의 잘못된 표기명이다. **(홍태유(洪泰猷)의 <유설악기(遊雪嶽記)>)**

남계(嵐溪): 남교(嵐橋)의 이두식 표기에서 나온 지명이다.

남계역(藍溪驛): ‘남교역’의 동일 이름이다. **(이하근의 시)**

남교역(嵐校驛): 현 남교리를 말한다. 12선녀탕과 연결되는 다리를 선인(仙人)이 건너다니는 다리라 하여 남교(嵐橋)라 하였으며, 역(驛)이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역(驛)에는 복마(卜馬) 3필과 사내종 5인에 계집종 3인이 있었다고 전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판동읍지)**

내가평(內加坪): 가평(加坪)의 안쪽 마을을 말한다. 가역원(加歷院)이 있었던 곳이다. **(한국지명총람)**

냉냉정(冷冷亭): 삼연 김창흡이 수렴동 지역에 세웠던 정자 이름이다. **(김수증의 시)**

냉천동(冷泉洞): ‘수렴동’의 다른 이름이다. **(김시습(金時習)의 시)**

노동(路洞): 백담의 북서쪽 길옆에 있었던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누데기골: ‘연화동’의 다른 이름이다. 화전민이 많이 정착하여 살면서 여

거저기 파헤친 것이 누더기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당장봉(當場峰): 남교리에 있는 산 이름이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당정곡(堂亭谷)’위에 있는 산 이름으로 ‘당정(堂亭)’이 ‘당장(當場)’으로 변을 되어 생긴 이름의 이두식 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지리지자료)**

당정곡(堂亭谷): ‘광탄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어느 한 선비가 이곳에 정자를 짓고 놀았다 한다. **(한국지명총람)**

대간령(大間嶺): ‘소간령’ 서쪽에 있으며,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포원리와 경계를 이루는 령(嶺)이다. **(한국지명총람)**

대청봉(大靑峰): 해발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으로 북서쪽 바로 밑에는 ‘중청봉(中靑峰)’이 있고 북쪽으로 ‘소청봉(小靑峰)’이 있다. 청봉이라는 지명은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청색으로 보여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땅이름)**

도룡봉(道龍峰): 남교리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도연(盜淵): ‘도적소(盜賊沼)’의 다른 이름이다. 이덕수(李德壽⁷⁷⁾는 <도연(盜淵)>이란 시에

푸른벽은 허공에 뺏뺏이 꽃혀있고

옥규(玉蚪)⁷⁸⁾는 산허리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77) 이덕수(李德壽): 1673-174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인로(仁老), 호는 벽계(藥溪)·서당(西堂). 아버지는 징명(徵明)이다. 김창흡(金昌翕)·박세당(朴世堂)의 문인이다. 음보(蔭補)로 직장(直長)을 지냈다. 1713년(숙종 39) 증광문과에 급제, 문의현감·지평·수찬·부교리·이조좌랑 등을 역임했다. 1724년 간성군수로 있다가 경종이 즉자 실록청당상으로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732년 대제학을 지내고 『경묘행장 景廟行狀』을 찬진(撰進)했다. 1734년에 당나라 『여사서 女四書』를 언해했으며, 1741년에는 『국조오례의』 수정작업에 참여했다. 저서로 『서당집』·『서당사제』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78) 옥규(玉蚪): 새끼 용. 용이 덜된 이무기.

이름은 나쁘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며
뒤어 오르는 물방울 잔피로 높이 뒬을 부끄럽게 하네.

라고 노래하였다.(이덕수의 시 <도적소>에서)

도적소(盜賊沼): 창암(窓岩)의 동쪽 즉 미시령의 큰 고개 아래에 있는 소(沼)로 예전에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이곳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은 뒤 이 소에 빠뜨려 죽었다고 한다.(한국지명총람)

독성나한봉(獨聖羅漢峰): 봉정암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한국지명총람)

두무소(杜武沼: ‘용두리’에 있다고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조선지리지자료)

두타(頭陀): ‘오로봉’ 밑을 지나는 계곡의 이름이다.(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두퇴과(兜堆坡): ‘두타(頭陀)’ 옆에 있는 높은 언덕을 말한다.(이의숙(李義肅)의 <영시암기(永矢庵記)>)

마등령(馬等嶺): 오세암에서 설악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큰 고개로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가르는 분수령이 되며, 해발 1,327m로 설악산의 주봉인 청봉 다음으로 높고, 매우 가파라서 산턱을 어루만지며 오른다는 뜻에서 마등령(馬等嶺)이라 한다.(강원도땅이름)

마령(馬嶺): ‘마등령’의 주린 이름이다.(김창흠의 시)

마산(馬山): 향로봉(香爐峰)에 인접해 있으며, 높이가 1,052m이다.(조선지리지자료)

마장대(馬場垜): 예전에 인제(麟蹄)와 고성(高城)을 넘나들던 길목에 있으며, 말 장이 섰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한국지명총람)

마항곡(馬項谷): 남교리(嵐橋里)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말미리: 정자문리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금은 이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지도상에만 표기되어 있다. **(인제지명총람)**

멸경암(滅景菴): 영시암에 속해 있던 부속 암자의 이름이다. **(김원행의 시)**

무선봉(舞仙峰):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무청정(茂淸亭): 영시암에 속해 있던 정자 이름이다. **(김시걸의 시)**

문이산(聞耳山): 남교리에 있다고 한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정자문리’에 있는 산으로 ‘정자문리(亭子門里)’의 ‘문리(門里)’가 변하여 ‘문이(聞耳)’로 발전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할 뿐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미시령(彌失嶺):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과 인제군(麟蹄郡) 북면(北面)의 경계로, 해발 826m의 고개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미천(尾川): ‘남교(嵐橋)’를 지나쳐 흐르는 물의 이름이다. **(안석경의 시)**

밀현(蜜峴): 미시령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마장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창바위 동북향에 인접해 있다. 지금도 ‘꿀고개’라고 부르고 있는데 ‘밀현(蜜峴)’은 한문 표기식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백담계곡(百潭溪谷): ‘가평(加坪)’에서 백담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계곡이다. 7.3km에 달하는 이 계곡은 기묘한 바위와 곡류(曲流)가 매우 아름다우며, 냉수성 희귀 어종인 열목어(熱目魚)가 많이 서식한다. **(강원도땅이름)**

백담사(百潭寺): 가평 동남쪽 8km 지점 곧 대승령 북쪽에 있는 절이다. 신라 진덕여왕 16년(647)에 한계리에다 자장율사가 세우고 한계사(寒溪寺)라 하였는데 소실되고, 그 후에 불탄 나머지를 1690년에 종연, 광학, 영희 등이 30리 아래에 옮겨 짓고 운흥사(雲興寺)라 하였다가 또 불탄 뒤에 1707년에 동훈, 준희가 북쪽 60리에 옮겨짓고 심원사(深源寺)라 하였으나 또 불에 탔으며 1734년에 취옹이 다시 30리 아래에다 짓고 선구사(旋龜寺)라 하였으나 또 불에 타고, 1747년에 서쪽 1리쯤 떨어진 곳에 옮겨

짓고 영취사(靈鷲寺)라 하였다가 또 불에 타자 1757년에 재익(載益), 재화(載和), 신열(愼悅)이 옛 절터 위 20리 지점에 새 절을 짓고 백담사(百潭寺)라 하였다. 영조48년(1772)에 다시 불에 타고, 51년(1775)에 최봉(最朋), 대현(大賢)이 다시 세워 심원사(尋源寺)라 하다가 정조7년(1783)에 다시 백담사로 고쳤는데 1915년에 160여 간의 절 집이 모두 불탔으며, 1919년에 인공(印空)이 지금의 자리에 75칸을 다시 세웠으나 6.25동란 때 모두 불에 탄 것을 1957년에 다시 세웠다. 전설에는 본래 낭천(狼川)⁷⁹⁾에 있던 비금사(比琴寺)였는데 절 근처에서 사냥꾼들이 자주 와 사냥을 하여 불도(佛道)에 어긋난 짓을 하므로 이곳 한계리에 옮겨지었다 하는데 옮길 때 춘천 근처에서 절구를 떨어뜨려서 그 곳을 절구골이라 하였다. 또 한계리 근처에서 청동화로를 떨어뜨려 그 곳을 청동벼래라 한다고 전해오며, 옮긴 후에 9차례의 화재를 보아 이곳저곳에 옮겨 새로 지었으며 지금의 자리에 새 절을 짓고 이름을 붙이려 하는데 주지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청봉에서 이곳까지 못을 세어보아라” 현몽하여 그 말대로 못을 헤아리니 백 개가 되어서 백담사(百潭寺)라 했다고 한다. 또 이 절에는 1993년 11월 5일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寶物) 제1182호로 지정된 목조아미타불좌상(木造阿彌陀佛坐像) 및 부복장유물(附服藏遺物)이 있으며, 만해 한용운(卍海 韓龍雲) 선사가 봤다는 우물이 보존되어 있다. 또한 전에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머무르던 곳이기도 하다. **(조선지리지자료)**

백운동(白雲洞): ‘쌍폭동’의 남쪽 골짜기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고, 골마다 폭포가 쏟아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백운동계곡(白雲洞溪谷): ‘백운동(白雲洞)’골짜기를 말하며, ‘구곡담계곡(九曲潭溪谷)’상류가 된다. 설악산 서북능선에서 시발하여 북으로 흐르

79) 낭천(狼川): 지금의 화천(華川).

는데,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고 골마다 폭포가 쏟아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곡백운(曲白雲)’·‘직백운(直白雲)’·‘제단곡(祭壇谷)’으로 불리는 세 갈래의 계류에는 이름 모를 담(潭)과 폭(瀑)이 수 없이 많다.(강원도땅이름)

벽운(碧雲): ‘수렴동’의 냇물 이름이다.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이 명명하였다.(김수증의 <유곡연기>)

벽운루(碧雲樓): 영시암에 속해 있던 정자 이름이다.(김시걸의 시)

봉암(鳳岩): ‘봉정암’ 뒤에 있는 높다란 바위로 봉황새의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봉바우’다.(인케지명총람)

봉암(鳳菴): ‘봉정암’의 주린 이름.(體照의 시)

봉정암(鳳頂菴): 신라(新羅) 선덕여왕(善德女王)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짓고 오층석탑을 세워 사리를 모셨는데, 문무왕(文武王)17년(677)에 원효(元曉)가, 고려(高麗) 고종(高宗)13년(1226)에는 보조(普照)국사가, 조선(朝鮮) 중종(中宗) 13년(1518)에는 환적(幻寂)이, 영조(英祖)24년(1748)에 설정(雪淨)이 수리하였으며 6.25동란 때 불에 타서 1996년부터 대대적인 불사(佛事)를 시작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로 유명하며, 주위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제31호로 지정된 봉정암석가사리탑(鳳頂庵釋迦舍利塔)이 있다.(조선지리지자료)

부소(釜沼): ‘용두리’에 있으며, 모양이 가마「釜」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부영산: ‘재내’ 앞에 있는 산을 말한다.(인케지명총람)

부전암(負轉巖): ‘곡백담’ 계곡에 있으며, ‘부회천(負回遷)’ 옆에 있는 버레를 말한다.(김수증의 <유곡연기>)

부회천(負回遷): ‘곡백담’ 계곡에 있으며, 위태로운 벽을 등에 지고 뱀이 지나가듯 돌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사미대(沙彌臺): ‘백담사’ 상류로 옛 심원사(深源寺) 터에서 6리 쯤 아래가 된다. 대(臺)의 높이가 몇 길이나 된다고 했다.(이의숙(李義肅)의 <영시암기(永矢庵記)>)

사미소(沙彌沼): ‘사미대(沙彌臺)’ 밑에 있다.(이의숙(李義肅)의 <영시암기(永矢庵記)>)



봉정암 석가사리탑

사현(寺峴): 남교리에 있으며, 절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삼기현(三岐峴): ‘남교(嵐橋)’에서 원통(圓通)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를 말한다.(김수증의 <유곡연기)>)

사자향(獅子項): ‘유홍굴’에서 서쪽으로 7리쯤 떨어져 있다.(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

사현(獅峴): ‘사자향’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

상암(裳岩): ‘쌍룡폭’ 맞은 편 벼랑으로 된 바위로, 모양이 치마를 두른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한국지명총람)

석가봉(釋迦峰): ‘봉정암’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탑바우’라고 한다.(한국지명총람)

석가사리탑(釋迦舍利塔): '봉정암'에 있는 돌로 된 5층탑으로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봉정암은 백담사에 딸린 암자로,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거대한 바위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으로, 일반적인 탑과 달리 기단부(基壇部)가 없어 마치 바위를 뚫고 높이 솟아 오른 듯 하다. 탑을 받치고 있는 바위 윗면에는 연꽃을 새겨놓아 부처님이 계신 곳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탑신의 몸돌에는 각층 모두 모서리에 기둥모양을 본떠 새겼으며 2층 몸돌은 1층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붕돌은 두터운 편으로 너비에 비해 지나치게 좁아 보인다. 처마는 밑선과 윗선이 평행을 이루다 네 귀퉁이에서 살짝 위로 솟아 경쾌한 맛을 살렸으며, 밑면에는 3단의 받침을 두어 고려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이 온전히 남아 가지런히 놓여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셔와 이곳에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전해지고, 통일신라 문무왕 13년(673) 원효대사를 비롯한 여러 승려들이 암자를 새로 보수한 후 이 탑을 보존하였다 하나 현재 이 탑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보인다. 파손된 부분이 없는 온전한 모습의 탑으로, 주위 설악의 모든 산세와 더불어 웅장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지방문화재 제31호로 지정관리 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석과령(石破嶺): '소간령(小間嶺)'의 다른 이름이다. **(수경지. 팽여도)**

선귀사(璇龜寺): 백담사의 전신이다. 백담사 입구에 있는데,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백담지소 구매포소 자리에 있었다. **(이지연의 시)**

선장봉(仙掌峰): '영시암' 남쪽에 있는 석봉(石峰)을 말하는데, 5리쯤 아래가 된다. **(이의숙(李義肅)의 <영시암기(永矢庵記)>)**

설악사(雪岳寺):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강원도관찰사 어계선(魚季瑄)의 장계에 “보우(普雨)가 한계산(寒溪山) 설악사(雪岳寺)에



설악산의 운해
 몰래 숨어 있었는데, 어떤 중 하나가 외방에서 급히 당도하여 밀고 하였



설악산의 설경
 습니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처음 등장하는 이름으로 ‘백담사를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왕조실록)

설악산(雪岳山): 한라산(漢拏山)과 지리산(智異山)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명산으로 꼽힌다. 태백산맥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강원도 동북부의 금강산과 동남단의 오대산 사이에 있다. 1965년 11월 5일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고,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설악산은 <여지승람(輿地勝覽)>이나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보면, “중추

(仲秋)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녹는다.(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焉)”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금원(錦園)여사의 〈호동락기(湖東洛記)〉에는, “돌이 눈 같이 희서 옛적부터 설악이라 했다(石白如雪故名雪嶽)”라고 기록하고 있다. 설악산은 또 ‘설악(雪嶽)’·‘설산(雪山)’·‘설화산(雪華山)’·‘백화산(白華山)’·‘한계산(寒溪山)’·‘청반산(靑盤山)’이라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땅이름)**

성황곡(城隍谷): 남교 북쪽에 있는 마을로 서낭당이 있으며,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산삼을 캐거나 산채 등을 목적으로 입산 할 때는 이곳에 제사를 올린다. **(조선지리지자료)**

성황坪(城隍坪): 남교 북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소파령(小破嶺): ‘소간령(小間嶺)’의 다른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렴동(水簾洞): ‘영시암’ 동남향에 있는 골짜기로 폭포를 이루고 있는데, 그 모양이 발「簾」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승방산(僧房山): 남교리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신별애석비(新別厓石碑): 남교리에 있다고 전해오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신선봉(神仙峰): 인제군 북면과 양양군 토성면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로, 높이는 1,183m이다.

신암(新菴): 백담사의 전신인 선구사(旋龜寺)가 불타고, 세종29년(1447)에 다시 세웠던 영취사(靈鷲寺)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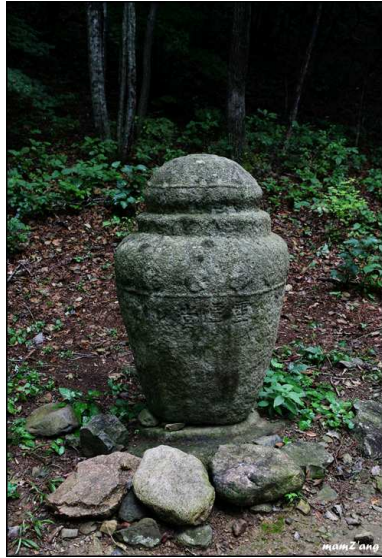
심원사(深源寺): 백담사(百潭寺)의 전신인 운흥사(雲興寺)가 불타 후 북쪽 60리 지점에 새로 세운 절을 말하는데, 영시암(永矢庵) 아래가 되고, 백담사(百潭寺)에서는 상류가 된다. **(이의숙(李義肅)의 〈영시암기**

(永矢庵記))

심원사(沈院寺): 백담사의 전신인 '심원사(深源寺)'를 말한다.(이천보의 시)

심은사(深隱寺): '심원사(深源寺)'를 말한다.(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

십이선녀탕계곡(十二仙女湯溪谷): '남교(嵐橋)'에서 동쪽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로 6.5km에 달하며, 12개의 탕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을 보지 않고는 설악산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관이 수려하다.(강원도의 땅이름)



심원사 터에 있는 설담당부도

쌍폭(雙瀑): 수림동 동남향에 있으며, 두 가닥의 폭포로 한 가닥은 높이가 150척이나 되고, 또 한 가닥은 높이가 70척이 되는데 마치 쌍룡이 하늘로 치솟는 듯 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한국지명총람)

아차막동(阿次莫洞): '진목전(眞木田)'에서 동쪽으로 5리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김수증의 <한계산기>)

안일원곡(安逸遠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조선지지자료)

암자동(菴子洞): 내가평 안에 있으며, 백담사(百潭寺)의 전신인 영취사(靈鷲寺)가 있던 곳이다. '암내동(菴內洞)'이라고도 한다.(인제지명총람)

양지곡(陽地谷): 평촌 북쪽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조선지지자료)

어암면(於巖面): '부전암(負轉巖)'과 '포전암(抱轉巖)'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이 명명하였다.(김수증의 <유곡연

기))

여담(瀕潭): '두타(頭陀)'의 다른 이름이다.

연작곡(鸞雀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연창곡(蓮漲谷):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연화동(蓮花洞): 용대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 한다.(**인제지명총람**)

열천동(冽泉洞): '수렴동'의 다른 이름이다. 김시습의 시에

어찌하여 열천동(冽泉洞)이라 하였는가
 돌 틈새로 맑은 물 흐른대서 이름 했네.

라는 시구(詩句)가 있다.(**김시습(金時習)의 시**)

염천(簾泉): '수렴동'의 다른 이름이다.(**김창흡의 시**)

영시암(永矢菴): 영시동에 있는 암자를 말한다. 김창흡(金昌翁)은 부친이 숙종15년(1689)에 기사사화(己巳士禍)로 죽임을 당하자 세상의 뜻을 잃고 다시는 속세에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뜻에서 이곳에 암자를 세우고 '영시암(永矢庵)'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년이 지난 어느 날 그와 동거(同居)하던 유마승(維摩僧) 최춘금(崔春今)이 범에 물려가는 참변을 당한 후 춘천(春川)의 수청산(壽靑山)으로 떠났다. 그 후 무너진 암자를 1691년 설정(雪淨)이 다시 세우고, 1926년에는 기호가 중수하였으나 6.25동란 때 불에 타 버렸다. 지금의 영시암은 백담사 주지였던 김도중(金道中)스님이 1992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조선지리지자료**)

영원(鵠原): '봉정암' 동쪽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할미버덩'이다.(**김창흡의 시**)

영취암(靈鷲菴): 권섭(權燮)의 <한계설악유한기(寒溪雪嶽遊恨記)>에 “사자항(獅子項)을 지나면 김동봉(金東峯)⁸⁰이 다섯 살 때 살았다는 ‘영취암(靈鷲菴)’이 있고,....”하는 구절이 있다. 위치상으로 보면, ‘오세암(五歲庵)’이 분명한데, 그 어디에도 오세암을 ‘영취암’이라 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이는 백담사의 전신 사찰인 ‘영취사(靈鷲寺)’로 착각을 했는 듯 싶다. 잘못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권섭의 한계설악유한기)**

영취봉(靈鷲峰): 백담사 입구에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백담지소 구매표소 건너편에 있는 산이다. **(이지연의 시)**

오로봉(五老峰): ‘갈역(葛驛)’의 서쪽으로 ‘곡백담’이 끝나는 지점에 있으며, 다섯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어 부르는 이름이다. **(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오봉(五峰): ‘오로봉’의 다른 이름이다. **(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오색령남교리(五色嶺南校里): 현 용대리의 남교리(嵐橋里)를 말하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상 ‘용대1리’라고 한다. 남교역(嵐校驛)이 있었다. 오색령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란 지명과 바뀌어 표기 되는데 연유하여 오기(誤記)된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

오세암(五歲菴): 신라 선덕여왕 13년(644)에 자장율사가 암자를 짓고 관음암(觀音庵)이라 하였는데 인조21년(1643)에 설정(雪淨)이 헐어진 것을 다시 세워 오세암이라고 고치고 고종25년(1888)에 백하(白下)가 다시 중수하였으나 6.25동란 때 불에 탔다.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이 조선 시대 단종(端宗)이 물러나자 그의 충절을 참지 못하여 미친 시인이 되어 강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러 오랫동안 머물렀으므로 그의 별호 오재신동(五才神童)을 따서 오세암이라 했다고도 전하고, 또 신라

80) 김동봉(金東峯):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新羅)때 매월(梅月) 대사가 두 살 된 조카를 데리고 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지내다가 늦은 겨울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그 다음해인 봄이 되어 비로소 돌아와 보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카가 살아 있으므로 이상히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흰옷 입을 젊은 부인이 나타나 아이를 보살피고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므로 다섯 살 된 아이가 불도(佛道)에 통한 곳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도 전해오고 있다. 암자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마모된 석물(石物)들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어 암자의 고풍스러움을 더해 주고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오세폭포(五歲瀑布): 오세암 아래에 있다. **(한국지명총람)**

옥녀봉(玉女峯): 수렴동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순하고 아름다워 옥녀 같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옥수곡(玉水谷):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골짜기로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외가평(外加坪): 가평 바깥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와룡여울: 가야동(伽倻洞)에 있는 여울물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완심루(琬心樓): 영시암에 삼연 선생이 세운 정자 이름이다. **(김시걸의 시)**

용두동리(龍頭洞里): 현 용대리의 미시령과 진부령으로 갈라지는 삼거리리에 있는 용바위 부근 마을을 말한다. 바위의 형상이 용머리를 하였다 하여 취한 이름이다. **(여지도서, 판동읍지)**

용산(龍山): 지금의 용대리를 말한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선생의 시에,

용산은 인제에서도 두메산골
민물(民物)은 구름처럼 깊구나

스스로 고상하게 가난도 낙으로 삼는

순박한 마음을 지니고 있네.

라고 노래 하였다. **(三淵集)**

용손폭(龍孫瀑): ‘쌍폭동’에 있는 세 폭포 중 가장 작은 폭포의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용이폭(龍兒瀑): ‘용손폭포’ 보다 조금 큰 폭포의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용이장성(龍牙長城): ‘소청봉’에서 ‘봉정암’ 뒤를 지나 ‘칠형제봉’을 거쳐 옥녀봉에 이르기까지 능선을 말하는데, 마치 용의 치아 모양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강원도땅이름)**

용연폭(龍淵瀑): ‘용손폭포’의 다른 이름이다. **(김창준의 시)**

원명암지(圓明庵址): 백담사 동북쪽 8km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朝鮮) 시대 정조(正祖) 때인 1796년 설정(雪淨)이 창건하고 1905년에 원호(源湖)대사가 중건하였다고 전해지나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다. **(강원도땅이름)**

원평(院坪): 가역원에 있으며, 10만 여 평의 들인데, 원(院)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유목령(楡木嶺): 용두동(龍頭洞)에 있으며, 느릅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유홍굴(兪泓窟): 조선시대 영조(英祖)때의 각 고을의 읍지를 집대성한 대동여지도(영인본:1979) 인제현 편의 고적으로 「兪泓窟 兪相公爲本道 觀察使時 自寒後越 三大嶺立石 題名 于窟至今 稱兪泓窟」(유홍굴 유상공위본도 관찰사시 자한후월 삼대령립석 제명 우굴지금 칭유홍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홍(兪泓)⁸¹이 강원관찰사(江原觀察使)를 역임 할

81) 유홍(兪泓): 유홍(兪泓)은 기계인(杞溪人)으로 자(字)는 지숙(止叔)이고 호(號)는

당시 이곳을 지나다 비를 피하기 위하여 이곳에 머물렀다고 전하는데, 한계산 너머에 있다. **(인제지명총람)**

음지곡(陰地谷): 평촌 북쪽 음지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이레갈이: 윗 남교에서 당정골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그 넓이가 7천 여 평에 달하며, 소 한 마리로 7일을 간다는 뜻에서 부르는 지명이다. **(인제지명총람)**

이목곡(梨木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입석봉(立石峰):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자오곡(子午谷): '용두동'에서 '진부령(陳富嶺)'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해와 달이 자정(子正)이나 정오(正午)가 돼야 빛이 드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음지곡(陰地谷)'의 다른 이름이다. **(홍태유(洪泰猷)의 <유설악기(遊雪嶽記)>)**

장정골: '장경암'이 있는 골짜기를 말하며, 봉정암 북쪽에 있다.

장경암(藏經巖): 봉정암 북쪽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데 장경(藏經)을 쌓아놓은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사람들은 '시루떡바우' 또는 '떡바우'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장소(長沼): 남교리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지소' 또는 '진소'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점심청: 수렴동에 있는 넓은 바위로 선녀가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전한다. **(한국지명총람)**

송당(松塘) 익(諡) 충목(忠穆)이며 중종19년 갑신(1524) 출생으로 명종 계축(1553)에 문과에 급제하고, 경인(1590)에 광국일등(光國一等)에, 신묘(1591)에 평난이등(平難二等)으로 녹훈(錄勳)되고 기성부원군(圉城府院君)으로 봉하였다. 임진(1592)에 좌상에 오르고 선조 27년에 갑오(1594)에 작고하였다.

장암(長岩): ‘학암(鶴岩)’아래 있으며, 바위가 마당 같이 널찍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저항령(低項嶺): 인제(麟蹄)와 속초(束草)를 왕래하던 옛 길목으로 동쪽으로는 ‘길골’을 거쳐 ‘정고평’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길골’을 거쳐 백담사에 이른다. 우리말 이름은 ‘늘목령’이라고 하는데, 늘어진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늘목’이 ‘느르목’으로 되고, 다시 ‘느르목’이 ‘노루목’으로 변하다 보니, 한자 표기상 ‘장항(獐項)’이 되었는데, 여기에 령(嶺)자가 합쳐져서 ‘장항령(獐項嶺)’이라 하다가, 다시 ‘저항령(低項嶺)’으로 변한 것으로 본다. **(강원도땅이름)**

적담(賊潭): ‘도연(盜淵)’의 다른 이름이다. **(김창흡의 <설악일기>)**

정자문리(亭子門里): 남교 서남쪽 북천(北川)가에 있는 마을로 강가에는 정자가 있었고, 길옆에는 열여정문(烈女旌門)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자도 정려문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정지곡(亭芝谷): 남교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조명봉(朝明峰): ‘조원봉(朝元峰)’의 다른 이름이다. **(이의숙(李義肅)의 <영시암기(永矢庵記)>)**

조원봉(朝元峰): ‘영시암’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이의숙(李義肅)의 <영시암기(永矢庵記)>)**

조장곡(助藏谷):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지리곡(支離谷): ‘지리실곡’의 다른 이름이다. **(김창흡의 <설악일기>)**

지리실곡(知理室谷): ‘지리실(地理室)’로 더 많이 기록되고 있다. 남교리 동쪽에 있는 계곡으로 약 5km에 달하는데, 지금은 ‘12선녀탕계곡’으로 더 많이 부르고 있다. ‘지리곡(地離谷)’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오래 전

까지 이곳에는 제단(祭壇)이 있었고, 가뭄이 심할 때면 기우제(祈雨祭)를 올렸다고 전하는데, 실제로 박종영(朴宗永)⁸²⁾ 현감(縣監) 재임 시에 〈지리실기우제문(地理室祈雨祭文)〉을 보면

“지극히 높은 설악산(雪嶽山)은 굳센 원기(元氣)가 방박(磅礪)⁸³⁾하고 신령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흰히 트인 골짜기를 지리(地理)⁸⁴⁾라고 부름은 구름이 일고 안개를 토해내어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늘 매년 둔고(屯膏)⁸⁵⁾하와 번번이 기우제(祈雨祭)를 올리고자, 이제 이에 읍(邑)에서 비로소 군신(群神)에게 두루 갖추어 제물을 바칩니다.” 로 시작된다. **(조선지리지자료)**

지장봉(地藏峰): 봉정암 북쪽에 있으며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과 같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직백운(直白雲): 백운동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곧은백운’이다. **(한국지명총람)**

창봉(窓峰):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창수곡(漲水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창암(窓岩): 용바우 북쪽에 있는 큰 바위로 창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용의 터에서 용이 뚫고 지나간 자국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82) 박종영(朴宗永): 조선말기의 문신·학자. 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으로 있다가 1863년 인제현감(麟蹄縣監)으로 부임 하였으며, 3년 뒤에 경기도 양근군수(楊根郡守)로 떠났다. 재임 시에 합강정(合江亭)을 개수하는 등 선정(善政)을 베풀어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오지 않는다.

83) 방박(磅礪): 가득 찰.

84) 지리(地理): 지명(地名), 지리실(地理室)로 현재 북면 용대리에 있는 12선녀담 계곡을 이름.

85) 둔고(屯膏): 위의 혜택이 아래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

창암점(窓岩店): ‘창바우’가 있는 마을로 주막(酒幕)이 있었다. **(한국지명총람)**

천왕문(天王門): 가야동 어귀에 있는 벽으로 된 바위로 문처럼 생겼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천춘령(千春嶺): 본래 이름은 ‘격산(隔山)’인데,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이 새로 지은 이름이다. 아래로 1리 쯤 떨어져 ‘부전암(負轉巖)’이 있고 그 바로 밑으로는 ‘포전암(抱轉巖)’이 있다. **(김수증의 <유곡연기>)**

청반산(靑盤山): ‘설악산(雪嶽山)’의 별칭(別稱)으로 일본식 이름이다. 황호(黃序)의 ‘좌호망설산(佐護望雪山)’이란 시에 나온다. **(황호의 시)**

초대동(初垈洞): ‘내가평’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처음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축성암지(祝聖庵址): 백담사에서 동남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고종(高宗) 때인 1884년에 한암(漢庵)이 창건하였으나, 1919년에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다. 암자 뒤로는 ‘감투봉’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작은귀떼기골’에는 숨은 작은 폭포가 있어 풍치를 더하고 있다. **(강원도땅이름)**

취대봉(鷲臺峯): ‘영취봉(靈鷲峰)’의 다른 이름이다. **(권첩의 <한계설악유한기>)**

태시(太始): ‘수렴동계곡’의 다른 이름이다.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이 명명하였다. **(김수증의 <유곡연기>)**

통랑곡(通浪谷): 남교리에 있는 골짜기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평촌(平村): ‘버덩말’로 구만동(九萬洞) 동쪽에 있는 마을 이다. **(한국지명총람)**

폐문암(閉門巖): ‘오세암(五歲庵)’에서 왼쪽 고개 넘어 30리 지점이 된다. 양쪽으로 벽이 가파르게 서 있어, 관문(關門)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홍태유(洪泰猷)의 <유설악기(遊雪嶽記)>)**

포독곡(抱犢谷): ‘곡백담’ 상류 지역으로 길이 몹시 험하여 소가 다닐 수 없으므로, 송아지를 안고 들어가 얼마동안 길러서 발갈이를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포전암(抱轉巖): ‘곡백담’계곡에 있으며, ‘포회천(抱回遷)’ 옆에 있는 벼레를 말한다. **(김수증의 <유곡연기>)**

포회천(抱回遷): ‘곡백담’계곡에 있으며, 벼레를 안고 돌아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풍취곡(風吹谷): 바람이 심하게 불어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바람부리골’이다. 현재는 ‘바람도리’로 불려진다. **(조선지리지자료)**

학암(鶴岩): ‘포독곡’에 있는 바위인데, 학(鶴)의 형상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한문(寒門): 연화동(蓮花洞) 동쪽 골짜기로 큰 바위가 마치 문처럼 솟아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할미봉: 봉정암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할머니 상이라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합문봉(合門峰):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향로봉(香爐峰): 진부령(陳富嶺)북쪽에 인접한 산 이름으로 칠절봉(七節峰)과 마산(馬山) 사이가 된다. 고개의 높이는 1,296m이다. 인제(麟蹄)·고성(高城)·양양(襄陽) 세 군의 경계가 되며, 1973년 7월 10일 천연기념물 제247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옛적 이름은 ‘마기라산(摩耆羅山)’ 또는 ‘가리라봉(迦里羅峰)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현구사(玄龜寺): 백담사(百潭寺)의 전신이다. ‘내가평’의 ‘암자동(庵子洞)’에 있던 절인데, ‘선구사(旋龜寺)로 더 많이 전해온다.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

호식동(虎食洞): 영시암(永矢菴)이 있던 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실제로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선생을 따르던 유마승(維摩僧) 최춘금(崔春今)이 호환(虎患)을 당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김창흡 선생이 그의 영전에 바치는 <거사최춘금제문(居士崔春今祭文)>이 문헌(文獻)에 전해온다. **(한국지명총람)**

호암(虎岩): ‘할미봉’ 위에 있는데, 모양이 범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홍봉소(紅峰沼): ‘남교리’에 있다고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황정연(黃精淵): ‘곡백담’ 상류 20여 리 지점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이의숙(李義肅)의 <곡백담기(曲百潭記)>**

황장우(黃腸隅): ‘곡백담’ 상류 20여 리에 있다. ‘황정연(黃精淵)’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황정(黃精)’은 ‘황장(黃腸)’의 잘 못된 표기이다.

황철곡(黃鐵谷): 남교리에 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 황철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후가산(後伽山):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산으로 절 뒤에 있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흑선동계곡(黑仙洞溪谷): 일명 ‘대승골’이라고도 하는데 ‘장수대’에서 ‘대승령’을 거쳐 ‘백담골’로 빠지는 계곡이다. **(강원도땅이름)**

흘리령(屹耳嶺): 진부령 남쪽 ‘흘리’에 있는 고개이름이다. ‘용대리’와 ‘진부리’를 이어주던 중로(中路)⁸⁶로 진부령이 개통되기 전 까지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조선지리지자료)**

86) 조선시대에는 대, 중, 소로 도로를 구분하여 우마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대로(大路),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를 중로(中路),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협소한 도로를 소로(小路)로 구분하였다.

기린면(麒麟面)



군(郡)의 동쪽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基知郡)으로 신라 진흥왕(眞興王)(540~574) 때에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 춘주군(春州郡) 속현으로 기린현(麒麟縣)이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춘주군(春州郡) 속현으로 현내동(縣內洞), 광조전(光助田), 구을정(仇乙井), 오리동(五里洞), 답동(畓洞), 어리(於里), 하남(下南), 죽천(竹川), 신전(薪田), 김포(金浦), 상남(上南), 왕동(王洞), 문현동(文峴洞), 동리(東里), 방동(芳東), 북리(北里), 치전동(雉田洞) 17개 리를 관할하다가 광무(光武) 10년(1906)에 인제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남리(上南里)의 일부를 남면(南面) 김부리(金富里)에 넘겨주고 군내면(郡內面)의 하추동(下楸洞) 일부를 편입하여 진동(鎭洞), 상남(上南), 하남(下南), 현(縣), 서(西), 북(北), 방동(芳東), 7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으며,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진동리(鎭東里)와 북리(北里)의 일부와 상남(上南), 하남(下南), 현(縣), 서(西), 방동(芳東) 5개리는 남면(南面)의 신풍(新豐), 어론(於論), 갑둔(甲屯), 신월(新月), 정자(亭子), 김부(金富), 부평(富平)의 7개 리와 인제읍(麟蹄邑) 관대리(冠岱里)와 함께 그 해 9월 18일 홍천군(洪川郡)에 편입되어 신남면(新南面)의 일부가 되었다.

1954년 수복지구 행정 이양에 따라 인제군(麟蹄郡)에 환원되어 진동(鎭東), 상남(上南), 하남(下南), 현(縣), 서(西), 북(北), 방동(芳東) 7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7월에는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의 미산리(美山里)를 편입(編入)시켰으며 1983년 기린면 관할이었던 상남출장소(上南出張所)가 면으로 승격되면서 미산리(美山里), 하남(下南)과 상남(上南)이 상남면(上南面)으로 편입되어 현재는 5개 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리(行政里)는 15개 리다. 동쪽은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서쪽은 남면(南面)과 홍천군(洪川郡) 내촌면(乃村面), 남쪽은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과 인접해 있다.

- 기지군(基知郡): 고구려 때 부르던 기린(麒麟)의 옛 이름이다.(삼국사기. 고려사)
- 기린현(基麟縣): 고려시대에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춘주군(春州郡)의 속현(屬縣)이었던 기린(麒麟)의 이름이다.
- 기린현(麒麟縣): 이조시대 태종(太宗)13년(1413) 춘주군(春州郡)의 속현(屬縣)이었던 기린(麒麟)의 이름이다.

현리(縣里): 본래 기린면 지역으로 현(縣)이 있었던 곳으로 현동(縣洞)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북리와 하남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현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로는 6개리다. **(한국지명총람)**

광대평(廣大坪): ‘진다리’ 서쪽에 있는 넓은 들로 경지면적이 3만 여 평에 이른다. **(한국지명총람)**

남전곡(南田谷): ‘덕교’ 남쪽의 발달한 골짜기에 비옥한 밭이 있어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남밭골’이다. **(한국지명총람)**

냉천(冷泉): 백암동 서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샘으로 피부병에 좋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니교리(泥橋里): 진흙으로 만든 다리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진다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덕교리(德橋里): 하마로(下馬路) 남쪽에 있는 마을로 다리가 있다. 우리말 이름은 ‘덕다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동가천(東街川): 동쪽의 길옆으로 흐르는 하천 이름이다. 즉 방동천(芳東川) 하류로 덕다리 아래 나드리를 말하며, 우리말 이름은 ‘동거리나드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마리골: ‘마이치(馬耳峙)’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현지 취재)**

마이치(馬耳峙): 응달 ‘서바수’에서 ‘매화동(梅花洞)’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 이름이다. 흔히 ‘마래기고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이가 거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박원평묘(朴元宏墓): 본래는 현리(縣里) 남쪽 ‘하마로’에 있었으나 지금은 기린면사무소 뒷산으로 옮겨 모셨다. 판결사(判決事)⁸⁷⁾를 지낸 춘천 박

87) 판결사(判決事): 조선시대 장례원(掌隸院)의 최고 관직. 정원은 1명으로 정3품 당



박원굉 신도비 전경

씨 원굉(元泓)의 묘다. **(한국지명총람)**

백암동(柏岩洞): ‘жат바우’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바위의 형상이 жат송이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부사민두호선정비(府使閔斗鎬善政碑): ‘창동(倉洞)’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부사민태호선정비(府使閔台鎬善政碑): ‘창동(倉洞)’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조선지리지자료)

부사이용은선정비(府使李容殷善政碑); 현 기린 초등학교 입구 좌측에 있었으나, 지금은 현리 경로당(敬老堂)으로 옮겨졌다. **(조선지리지자료)**

부사조병협선정비(府使趙秉協善政碑): ‘창동(倉洞)’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부흥평(富興坪): ‘덕다리’ 아래 있는 들을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번개버덩’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삽교(插橋): ‘니교리(泥橋里)’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진다리’라고 한다. **(밀양손씨족보)**

상관을 임명했다. 세조(世祖) 13년(1467) 장례원을 창설할 때 처음 두었다. 송사(訟事)는 낭관(郎官)인 사의(司議)·사평(司評)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했으며, 오결이 있을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졌다. 인사담당관·대간과 함께 분경금지(奔競禁止)가 적용되는 판직이다. 중종(中宗)11년(1511) 결판결사 1명을 증원했으나 곧 폐지했다.

서소(西沼): 현리 서쪽 강가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서바수’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서호평(西湖坪): ‘서바수’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선창(船倉): ‘창동(倉洞)’앞강 나루터의 이름이다.

수양곡(水秧谷): ‘덕다리’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물안골’ ‘물앙골’, ‘물랭이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순찰사김시연선정비(巡察使金時淵善政碑): ‘창동(倉洞)’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양원리현(兩院里峴): 현리에서 방동으로 넘어 다니던 옛길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어은곡(於隱谷): 어은동(於隱洞)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은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어은동(於隱洞):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어 어디서 보나 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아 피난처로 적합하여 강물에 약을 풀어 고기를 잡아도 살아 있는 고기가 있듯이 병란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은골’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한다. 김수증(金壽增)의 <병자(丙子) 정축(丁丑)년의 피난 사실>을 보면 당시의 어지럽던 상황이 눈에 선하다. **(한국지명총람)**

오황천(烏篋川): 동쪽의 길옆으로 흐르는 하천 이름이다. 즉 방동천(芳東川) 상류로 ‘덕다리윗나드리’를 말하며, 우리말 이름은 ‘오목이나드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우락치(牛落峙): 소재지나 연유를 정확하게 아는 이는 없으나, ‘마리골’, ‘마래기고개’의 다른 이름일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우주막(隅酒幕): ‘창동(倉洞)’ 옆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유수겸진어사김기석선정비(留守兼鎮禦使金箕錫善政碑): ‘창동(倉洞)’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조롱현(鳥弄峴): 현리 장터에서 남동쪽으로 방태산을 향하여 양쪽으로 약 2km에 자리 잡은 마을을 ‘조롱고개’라 하며, 장터에서 이 마을로 넘어 가는 고개다. 약 500m의 오르막 고개여서 단숨에 넘기 힘들어 사람을 조롱하는 고개라 하여 지은 이름이나 지금은 흰하게 도로가 나 있어 자취를 감추었다. **(조선지리지자료)**

창동(倉洞): 하마로(下馬路) 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기린현의 창고인 기린창(麒麟倉)이 있었던 것에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창리전진(倉里前津): ‘창동(倉洞)’앞에 있던 나룻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창평(倉坪): ‘창동(倉洞)’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춘천군수권직상선정비(春川郡守權直相善政碑): ‘창동(倉洞)’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춘천군수김영규선정비(春川郡守金泳奎善政碑): ‘창동(倉洞)’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방동리(芳東里): 본래 기린면의 지역으로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동(芳洞), 동리(東里)를 병합하여 방동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로는 2개리다.

가칠봉(加漆峯): 해발 1,240m의 이 산은 인제군(麟蹄郡)과 홍천군(洪川郡)의 경계가 된다. **(강원도 땅 이름)**

간촌(間村): 둔덕동(屯德洞)과 오류동(五柳洞)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격갈리(格葛里): ‘결가리’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결가리: ‘매봉령’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흔히 ‘적가리’라고 부른다. **(한국지명총람)**

결가리토성: 1885년 무렵에 추씨가 70호 가량 거주하였는데 힘이 장사인 김용관(金龍寬)이라는 사람의 행패가 극심하여 토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자취만 남아 있다. 산림휴양소(山林休養所)에서 15분 거리에 있다. 둘레는 약200m이다. **(인제지명총람)**

군수곡(郡守谷): ‘방동’을 말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높은집폭포: 마당바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폭포로 밑에는 두 개의 구멍이 뚫어져 있어 홍천군 내면으로 통한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이곳에 살고 있던 김순봉(金順鳳: 1902)씨가 굴을 탐험하려고 했으나 좌절되었다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대곡(大谷): ‘방골’ 서남쪽 방태산의 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어떠한 연유에서 부르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나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대무지개(大茂地盖): 둔덕동(屯德洞)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큰무지개’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대학동(大鶴洞): ‘대곡(大谷)’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도량천(道梁川): ‘절골’에 있는 작은 내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도량소’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도수곡(道守谷): ‘방동’을 말하는데, 방골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문으로 표기하자면 ‘도수곡(導水谷)’으로 표기 하여야 하나, 이두식 표기과정에서 ‘도수곡(道守谷)’으로 잘못 표기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도채동(道採洞): 방동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현리에서는 동쪽이 되며 숫

둘이 난다. 우리말 이름은 ‘도채울’이라고 한다.

동리(東里): 현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도채울’ 일원의 옛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두루미: 방동1리와 현 5리 경계가 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현5 리에 속한다. ‘사동(寺洞)’건너 마을이다.

두루미산: ‘두루미’에 있는 산 이름이다.

두어미(斗於尾): ‘두루미’의 이두식 표기에서 나온 이름이다. **(춘천박씨체보)**

두응대(斗應臺): ‘방골’ 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둔덕동(屯德洞): ‘방골’ 앞 둔덕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

마당바위: 걸가리로 가는 길가 소 계곡에 있다. 마치 마당처럼 넓은 면적을 차지한데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막곡평(幕谷坪): 둔덕동(屯德洞)에 있는 버덩을 말한다. 초막(草幕)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

망건천(網巾川): ‘셋말’에 있는데, 우리말 이름은 ‘망근나들이’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

명지가리: 큰 소(沼)가 있던 마을을 말 한다. 마을 건너 개울가에는 약수(藥水)가 있는데, 명지가리 약수라 한다. **(한국지명총람)**

방동(芳洞): ‘도채울’ 남쪽에 있는 마을로 광무(光武)10년(1906)까지 기린면사무소가 있었으나 뒤에 현리로 옮겼다. 우리말 이름은 ‘방골’이다. **(한국지명총람)**

방동약수(芳東藥水): ‘방골’에 있는 약수로 옛날에 어느 마음씨 착한 심마니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나는 산신령이다. 너는 가난하지만

정직하므로 내가 산삼을 주겠노라. 그리고 또 만병통치의 약물을 줄 터이니 세상에 널리 알려라.”하여 그 이튿날 그 곳을 찾고 있는데 한 아이가 나타나 손짓을 하므로 쫓아가 보니 아이는 없고 큰 산삼이 있어 캐고 나니 그 밑에서 약물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지금도 경향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병 치료차 이곳을 찾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방태산(芳台山): 가칠봉(1,241m), 응봉산(1,156m), 구룡덕봉(1,388m), 주걱봉(1,444m) 등 고산준봉을 거느리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큰 자연림이라고 할 정도로 나무들이 울창하고, 희귀식물과 희귀어종이 많은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연휴양림(自然休養林)이 있으며, 높이 10m의 이단폭포와 3m의 낮은 폭포가 있어 찾는 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배달은 돌: 아주 오랜 옛날 대 홍수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2톤 가량의 커다란 돌에 구멍을 뚫어 배를 매달았다 하여 지은 돌 이름이다. ‘배 달은 돌’ 또는 ‘배 달은 석’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봉두사(鳳頭寺): 방태산 양지 기슭에 있었다고 하나 6.25당시 소실되고 지금은 자취만 남아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불당곡(佛堂谷): 봉두사(鳳頭寺)가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사곡(寺谷): ‘사동(寺洞)’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사동(寺洞): 간촌(間村)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절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석전리주막(石田里酒幕): 석전촌(石田村)에 있던 주막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석전촌(石田村): 예전에 구들장 돌의 채취장으로 알려져 부르게 된 마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도석골’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소무지개(小茂地蓋): 간촌(間村)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작은무지개’

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송응대(宋應岱): ‘두응대(斗應岱)’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이곳을 최초로 개간한 사람이 송씨라는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아롱가지: 방동교(芳洞橋)가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아롱가지평(阿弄佳地坪): 방동교(芳洞橋)가 있는 부근의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암천(岩川): ‘마당바위’에 있는 소(沼)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양원리(兩院里): 현리에서 방동으로 통하는 구 도로변에 있던 고개로 이곳에는 춘천 박씨로 양동(陽東)의 효행정려비가 있으며 조선말엽 통사랑(通仕郎)을 역임한 바 있다. **(조선지리지총람)**

오류곡(五柳谷): ‘오류동(五柳洞)’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오류동(五柳洞):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 옆에 다섯 그루의 큰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오류동주막(五柳洞酒幕): 오류동(五柳洞)에 있던 주막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용각석(龍角石): 전구두평(奠九斗坪) 앞산에 있는 큰 바위로 용의 뿔처럼 생겼다고 한다. 예전에 전구두평이 부촌(富村)이었는데 지나가던 중이 “이 바위를 장군석이라 고치고 한 달 동안 큰 잔치를 베풀면 더 큰 부촌이 되고 큰 인물이 나리라.”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부자는 커녕 재해가 끊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까닭 모를 병으로 죽어가므로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 숙의한 끝에 다시 용각석(容角石)으로 고쳤더니 그 뒤에는 재난이 없었다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응봉현(鷹峰峴): ‘방동’에 있는 산으로, ‘매봉령’으로 더 알려져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입암평(立岩坪): 오류동 북쪽에 있는 바위로 높이가 20m쯤 되는데 길옆에 우뚝 서 있다. 우리말 이름은 ‘선바우’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자작나무골: ‘결가리’로 들어가는 골짜기로 자작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부르는 골짜기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전구두평(奠九斗坪): ‘셋말’ 앞에 있는 들로 오래 전에는 큰 마을이 있었다. **(한국지명총람)**

전목곡(前目谷): 도채동(道採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조정동(朝耕洞): ‘방골’ 동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마을에 밭이 적어서 아침나절에 다 갈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아침갈이’이다. **(한국지명총람)**

지석바위골: 지석(支石)모양의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창바우: ‘결가리’ 길가에 있는 큰 바위로 창처럼 끝이 뾰죽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북리(北里): 본래 기린면 지역으로 현리의 북쪽에 있다하여 북리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내면의 하추동(下楸洞) 일부와 서리(西里)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북리(北里)라 하였으며 행정리로는 3개리다.

가담치(加淡峙): ‘흙고개’에 있으며, ‘하담’에서 ‘하추리’로 넘어 다니던 고개를 말한다. 나무와 숲이 우거져 낮에도 어두워서 더듬으며 넘어 다녔다 해서 ‘더듬이재’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가음치(加陰峙): ‘가담치(加淡峙)’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간다문곡(干多門谷): ‘하담(下畓)’에 있는데, 우리말 이름은 ‘간다문리골’

이라고 하나,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갈강지골: 하역곡(下驛谷) 앞 음지쪽 골짜기로 갈가지⁸⁸⁾가 많이 서식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개미재: ‘역골’에서 ‘상치전(上雉田)’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형이 개미형상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고석동(古石洞): 예전부터 돌이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고색골’, ‘고새울’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과부곡(誇富谷): ‘역골’에 있으며, 과부가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궁동(弓洞): 궁동산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산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궁글버덩’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궁동산(弓洞山): 산 모양이 활〔弓〕모양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궁동평(宮洞坪): ‘궁동’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누구미(樓口尾): 기린면(麒麟面)과 인제읍(麟蹄邑)의 경계에 있는 마을로, 길 아래 후미진 곳에 누각(樓閣)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인 ‘다락귀미’로 더 알려져 있다. **(한국지명총람)**

담배골: ‘하역(下驛)’ 앞 골을 가리키며 담배를 많이 재배하였다 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마락곡(馬落谷); 옛적에 말이 지나다가 추락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말 이름은 ‘마래기골’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마사탄(馬死灘): 마락곡(馬落谷) 밑에 있는 여울로 말이 빠져 죽은 여울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88) 갈가지: 개호주. 벌의 새끼.

망태골: 북리와 진동리 경계에 위치한 골로 그 지형이 망태에 유사한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물아곡(物我谷): '상답(上畚)'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마라곡(馬落谷)'이란 지명의 변음(變音)에서 나온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박쥐여울: '마사탄(馬死灘)'의 다른 이름이다. 여울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박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현지 주민들은 '마사탄'이란 이름보다 '박쥐여울'이란 지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

상답(上畚): '답동(畚洞)' 위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상답평(上畚坪): '상답'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상역곡(上驛谷): '역골'의 윗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석장곡(石葬谷):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를 때 나무 관 대신 돌을 사용하여 묻었다 하여 지은 이름이다. 궁동(弓洞) 뒷골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섬바위: 상역(上驛)골 중간 지점에 있으며 벅섬 쌓듯이 바위덩어리가 첩첩이 쌓였다 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센여울: '박쥐여울' 하류에 있는 여울로, 물이 급하게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속새매기: 이곳에 속새풀이 무성한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으로 지금도 속새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역촌(驛村): '진다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조시대(李朝時代)에 역(驛)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흔히 '역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연락촌(連落村): 옛날 관가에서 연락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 가기도 하고, 말발굽을 고치기도 하였으며, 다른 말을 바꿔 타고 다니기

도 하였다 해서 부르게 된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운리곡(雲裡谷): ‘운리덕(雲裡德)’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운리덕(雲裡德): ‘역골’ 동북쪽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로 구름에 덮여 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흔히 ‘운이덕’ 또는 ‘우리덕’이라고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운리산(雲裡山): ‘운이덕’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799m다. **(한국지명총람)**

인명분(麟鳴分): 기린면 동북쪽에 있는 ‘역골’을 가리키며 이 골짜기에서 기린이 울었다고 해서 ‘인명골’이라고도 하며, 기린면이 이곳에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며, 또 옛날 사람들은 사슴이 이곳에서 백일을 묵으면 기린이 된다고 믿었다 한다. **(한국지명총람)**

장수바위: ‘인명골’에 있는 바위로 장수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한국지명총람)**

접저울: ‘상역골’의 중간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중담(中畓): ‘상담(上畓)’과 ‘하담(下畓)’사이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중담주막(中畓酒幕): ‘중담’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중역곡(中驛谷): ‘역골’의 중간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침시골: 침이 많이 자라는 곳으로, 침이 곧게 뻗어 나간 곳을 응달 침시골, 양지쪽으로 뻗어 나간 곳을 양지 침시골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포사령부 앞 골을 말한다. **(인케지명총람)**

채익천(釵溺川): ‘상담(上畓)’에 있는 물가로, 예전에 어느 귀부인이 이곳을 지나다 비녀를 빠트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말 이름은 ‘비녀 빠진소’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청가곡(淸歌谷): ‘상답(上畓)’에 있는 계곡으로 물소리가 아주 맑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토현(土峴): 하답(下畓)에 있는 고개로 돌이 없고 황토 흙으로만 되었다. 기린면(麒麟面) 북리(北里)와 인제읍(麟蹄邑) 하추리(下楸里)의 경계가 된다. 우리말 이름은 ‘흙고개’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하답(下畓): ‘답동(畓洞)’ 아래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하답주막(下畓酒幕): ‘하답’에 있던 주막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역곡(下驛谷): ‘역골’의 아랫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한곡(閑谷): 풀이 무성하여 꼴을 쉽게 벨 수 있어 남은 시간을 한가한 기분으로 쉴 수 있다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할미바위: ‘하역(下驛)’ 앞 골에 위치하였으며 모양이 할미꽃과 비슷하다 하여 지은 바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함정골: 산짐승이 많아 짐승을 잡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정을 판 자리가 많아서 ‘함정골’이라 한다. **(인제지명총람)**

황개골: 옛날 이곳에 살고 있는 심운석(沈雲錫)이라는 사람이 누런 개를 많이 사육했다는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진동리(鎭東里): 본래 기린면 지역으로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전리(薪田里), 치전리(雉田里), 문현리(文峴里)를 병합하여 옛 기린현의 동쪽에 있다하여 진동리라 하였으며 행정리로는 2개리다.

강선리(降仙里): 북암리(北岩里) 서쪽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로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고등곡(高登谷): ‘신전동(薪田洞)’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고배령(古倍嶺): 점봉산에 이어져 있는 령으로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강선리(降仙里)로 내려가는 도로변에는 자작나무가 무성하다. 인제읍(麟蹄邑) 귀둔리(貴屯里)에서는 ‘곰배령’이라 부르고, 한자 표기 이름은 ‘정령(丁嶺)’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곰배령: ‘고배령(古倍嶺)’을 지금 현지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곱돌나드리: 진동리 동남쪽 다리 옆에 있는 마을로 동쪽에 있는 산에서 곱돌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광어리: 삼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군수대(群水垓): 진동(鎭東)에 있다고 전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금교천(金橋川): ‘진흥리’ 동쪽 냇가로 여울이 급하고 바람이 세어서 소가 건너다니기 힘들었다 한다. ‘금교(金橋)’의 금(金)은 소「牛」의 변음(變音) ‘쇠’의 이두식 표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인제지명총람)**

금교평(金橋坪): ‘쇠나드리’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단목령(檀木嶺): ‘박달령’의 다른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도암(道岩): ‘맞바우’로 더 불린다. **(한국지명총람)**

두 대(杜垓): 진동(鎭東)에 있다고 전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다만 ‘추대(楸垓)’의 오기(誤記)가 아닌가 하고 추측할 뿐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두무곡(斗武谷): ‘번이터’ 동쪽 오목한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등매곡(登梅谷): 매화나무가 분포된 곳을 따라 올라가는 골짜기라 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말등바위: 방동(芳洞)과의 경계에 있으며 바위의 형태가 마치 말의 등과 같다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맞바우: ‘번이터’ 동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문산리(門山里): ‘새왕동’ 입구에 용립한 암석의 형태가 문짝을 세워 놓은 듯 한데 유래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문암(門岩): ‘문현(門峴)’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영월인(寧越人) 엄두영(嚴斗榮)의 한시(漢詩)가 전해 온다.

門峴門岩千丈白/문고개의 문바위는 천장(千丈)이 분명하고
松岸松柏萬樹清/솔밭의 송백은 만수(萬樹)가 고요하다.

문현(門峴): ‘맞바우’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바위가 마주 서 있어서 문과 같다고 한다. 문현(文峴)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두식 표기로 잘못된 표기다. **(인제지명총람)**

바람부리: ‘쇠나드리’의 다른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박달령(博達嶺): 진동리에서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오색리(五色里)로 넘어가는 크고 험한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반두독령(半斗毒嶺): ‘설피밭’에 있다고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배판이: 삼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배씨가 많이 살았다고도 하며 지형이 또한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번이대(番伊岱): ‘두무대(斗武岱)’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복죽령(福竹嶺): 산죽이 무성한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부겸령(夫兼嶺): ‘설피밭’에 있다고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북암령(北岩嶺): 진동리에서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오거리(五街里)의 송어리로 가는 고개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북암리(北岩里): 북암령 아래에 있는 산골짜기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비석거리: 비석 수기를 병립해 놓아 부른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비석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지명총람)**

삼거리(三巨里):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과 기린면(麒麟面) 방동(芳洞)·인제읍(麟蹄邑) 귀둔리(貴屯里)로 가는 세 갈래 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삼가리(三街里)’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삼거리주막(三巨里酒幕): ‘삼거리’에 있던 주막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상치전(上雉田): ‘뽕마치’ 위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선목리(先木里): 진동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서 양양(襄陽)의 강선리(降仙里)까지 나룻배가 다녔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설피밭: 북암리 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쉼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신왕리(新王里): ‘두무터’ 안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새왕리’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신전리(薪田里): 북암리 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쉼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연가리(烟佳里): ‘맞마우’ 동쪽에 있는 마을로 명지가리와 아침가리에 연하여 있으며 연초(煙草)를 경작했다고 하는데, ‘연경리(烟耕里)’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연경리(烟耕里): ‘연가리(連佳里)’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오기점곡(五基點谷): 골짜기에 묘가 다섯 개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옹기점 골의 잘못된 한문표기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옹기점골: 예전에 옹기를 구워냄으로 지은 이름이나 지금은 자취도 찾기 힘들다. **(한국지명총람)**

우탄동(牛灘洞): ‘쇠나드리’를 말하며, ‘금교리(金橋里)’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운리천(雲裡川): ‘문현(門峴)’에 있는 소(沼)를 말하며, 우리말 이름은 ‘우이소’라고 한다.

적암(適岩): ‘맞바우’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제당곡(祭堂谷): 제당(祭堂)이 소재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지당골’로 더 많이 불린다. **(한국지명총람)**

조침령(鳥寢嶺): 삼거리에서 양양군 서면으로 넘어가는 령으로 하도 높아서 새도 하루에 넘지 못하고 자고 넘는다 하여 지은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진석령(眞石嶺): ‘설피밭’에 있다고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진흙리(鎭墨里): ‘맞바우’ 동쪽에 있는 마을로 토기를 굽는데 쓰는 진흙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천동(泉洞): ‘신전동(薪田洞)’에 샘이 나오는 곳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추대(秋垞): ‘뽕마치’ 남쪽에 있는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100여 년 전 동지사 벼슬을 한 전씨가 이곳에 살았는데, 자선심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았는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녀보아도 갈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하여 ‘갈터’라 하였다고 하며, 한문으로 표기가 어려워 갈지는 추(秋)자로 하고, 곳은 터라

해서 대(垓)라 했다는 설도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추대주막(秋垓酒幕): '추대(秋垓)'에 있던 주막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치전(雉田): '갈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썩이 많이 내리는 밭이 있다고 해서 '썩바치'라 하였는데 발음하기 쉽게 '썩바치'로 불리고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탁곡(卓谷): '문현(門峴)'에 있는데 연유를 알 수 없으나, 책상다리 모양이라 하여 붙인 '맞바우'의 다른 이름으로 추측된다. **(조선지리지자료)**

풀무골: '치전(雉田)'동에 있는 골짜기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낸 춘천인 박명근(朴明根)의 묘소가 있다. **(춘천박씨 개요)**

풍평(風坪): '바람부리'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치전(下雉田): '썩바치' 아래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활석리(滑石里): '곱돌나드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서리(西里): 본래 기린면의 지역으로 옛 기린현의 서쪽에 있으므로 서리(西里)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리(北里)와 군내면(郡內面)의 하추동(下楸洞)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서리라 하였으며 행정리수는 2개리다.

고촌청용안: '골말'과 '은골' 사이에 형성된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곡촌(谷村):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골말' 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광대바위: 양지마을 동북쪽 산모퉁이에 발달한 바위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김부터(金富岱): 1930년 무렵 3백만 원 상당의 산삼을 이기일(李起日) 집터에서 캐낸 후 부르게 된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냉장터: '아랫대내' 끝 쪽에 있는 샘터로 물이 매우 차며 이물에 몸을 씻으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노전동(蘆田洞): 서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갈밭이 있었다. 우리말 이름은 '갈밭골'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노전치(蘆田峙): 서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넘어 가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동오치(桐梧峙): '오동치(梧桐峙)'와 같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들은독골: 봉덕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문덕동(聞德洞)'으로 더 알려져 있다. **(한국지명총람)**

막곡(幕谷): '죽천령'의 기슭에 있는 골짜기로 농막이 있었다 한다. **(한국지명총람)**

머구너미: 서리(西里)에서 남면(南面)의 정자리(亭子里)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길어서 지루하므로 무엇을 먹든지 먹고서야 넘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골짜기마다 오동나무가 있었다 하여 '오동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문덕동(聞德洞): 옛 부터 덕을 쌓아 그 미담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부른 지명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봉덕리(鳳德里): '웃대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산 정상에 위치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봉운동(鳳雲洞): '봉 윗마을'이라 부르다가 한자를 쓰게 됨에 따라 봉운동(鳳雲洞)으로 표기하게 되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분지가 마치 봉의 등우리 같다고 하여 봉덕동(鳳德洞)이라고 했다고도 한다. 지

금은 '봉운동'보다는 '봉덕동'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상죽천(上竹川): '대내' 위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석불암(石佛岩): '아랫대내'에 있는 바위로 높이가 4척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돌부처'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소리개: 봉덕동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입구 산 위에 높이가 8m에 달하는 바위가 있는데 소리개가 잘 깃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소릿고개: 고개의 경사가 완만하여 오가는 사람들이 "골은 깊다 해도 오르기에는 이곳이 편한 곳이야"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다녔다는 곳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소래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소석각곡(小石角谷): 옛 지명으로 '어은곡'에 있는 바위의 형태에 유래하여 부른 골짜기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수앙곡(水秧谷): '오동리' 골짜기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물앵이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양지평(陽地坪): '윗대내' 양지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어리(於里): 봉운동과 봉덕동에 걸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어미치(魚尾峙): '윗대내'에 있는 고개로 우리말 이름은 '어리고개'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어은곡(魚隱谷): 옛 부터 피난처였다고 하여 지은 이름으로 '은골'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오동리(梧桐里): '머구너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골짜기마다 오동나무가 있었다 하여 '오동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오동치(梧桐峙): '머구너미'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음지평(陰地坪): 서리 동쪽 음지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입곡(入谷): ‘어은곡’의 옛적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입석동(立石洞): ‘소리개’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죽천(竹川): 서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앞으로는 내린천이 흐르고 시누대 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대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죽천령(竹川嶺): ‘하죽천’에서 배를 건너가면 있는 그리 험하지 않은 령(嶺)으로 정상에 오르면 서리(西里)와 북리(北里) 궁동(弓洞) 일대를 관망할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

하죽천(下竹川): ‘대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항음곡(亢陰谷): ‘노전동’에 있는 골 이름으로 ‘항성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한국지명총람)**

화월곡(花越谷): ‘음지촌’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말 이름은 ‘꽃네미골’이라고 부른다. **(조선지리지자료)**

황철막곡(黃鐵幕谷): 막곡(幕谷)의 다른 이름이다. ‘하죽천’에서 ‘봉덕동’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다. ‘죽천령’의 기슭에 있으며 농막이 있었다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서화면(瑞和面)



군(郡)의 최고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개차정(皆次丁) 또는 옥기현(玉岐縣)이었으나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치도현(馳道縣)으로 개칭하였다가 고려(高麗)시대에는 서화현(瑞禾縣)으로 고쳐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에 속하였고, 다시 또 서성현(瑞城縣)으로 개칭하여 춘주군(春州郡)의 속현이 되었으며, 그 뒤에 다시 북쪽 일부는 회양(淮陽), 남쪽 일부는 춘주군(春州郡)에 이속되었다가 조선(朝鮮) 세종(世宗:1424) 때 인제현(麟蹄縣)에 이속되었다.

그 뒤 서화면(瑞和面)이 되어 심적(深積), 장승리(場承里), 가리(加里), 사천(沙川), 논장(論章), 수제(水濟), 서화(瑞和), 서희(西希), 이포(伊布), 용산(龍山) 10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흥(瑞興), 천도(天桃), 서화(瑞和), 심적(深積), 가전(加田), 서희(西希), 장승(長承), 이포(伊布), 8개 리로 개편·관할하였으며 1945년 38°선의 이북이 되어 공산 치하에 있다가 1951년 수복 되었다.

1955년까지는 군 작전 지역으로 쓰이다가 그 해 5월부터 민간인이 천도리와 서흥리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1958년 3월에는 서화리에도 살게 되었다. 1954년에 양구군 해안면(亥安面)이 인제군으로 편입되었는데, 1963년 해안면(亥安面)과 서화면(瑞和面)을 병합하여 서화면(瑞和面)이라 하였으나 1973년 7월에 해안면(亥安面) 관할이었던 현리(縣里), 오류동(五柳洞), 만대리(萬垓里), 후리(後里), 월산리(月山里), 이현리(泥峴里)를 양구군(楊口郡)에 환원하고, 지금은 서흥리(瑞興里), 천도리(天桃里), 서화리(瑞和里), 가전리(加田里), 서희리(瑞希里), 심적리(深積里), 이포리(伊布里), 장승리(長承里) 8개리를 관할하고 있으나 가전리(加田里), 서희리(瑞希里), 심적리(深積里), 이포리(伊布里), 장승리(長承里)는 미수복 지구로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관할하는 행정리는 8개리다.

동쪽은 고성군(高城郡)의 수동면(水東面)과 간성면(杆城面)에, 서쪽은 양구군(楊口郡) 해안면(亥安面)에, 남쪽은 북면(北面)과 인접해 있고 북쪽은 휴전선에 접해 있는데 그 길이가 12.7km에 달한다.

- 개차정(皆次丁): 고구려 시대에 사용하던 서화(瑞和)의 옛 이름이다.
- 옥기현(玉岐縣): 고구려 시대에 사용하던 서화(瑞和)의 옛 이름이다.
- 치도현(馳道縣); 신라 시대에 사용하던 서화(瑞和)의 옛 이름이다.
- 서화현(瑞禾縣): 고려 시대에 사용하던 서화(瑞和)의 옛 이름이다. 서화(瑞和)로도 표기 하였는데, 당시에는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에 속해 있었다.
- 서성현(瑞城縣): 조선(朝鮮) 초기에 사용하던 서화(瑞和)의 옛 이름으로 춘주군(春州郡)에 예속되었다가, 세종(世宗:1424) 때 인제현(麟蹄縣)의 속현이 되었다.

천도리(天桃里): 본래 서화면의 지역으로 '천도(天桃)' 또는 '천도촌(天桃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제(水濟)'를 병합하여 '천도리(天桃里)'라 했다. 1945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 국군이 탈환하여 군용지로 사용하였는데 1955년 5월부터 민간인이 입주하였다. 행정리로는 4개리다.

군인마을: '응달말' 옆에 있는 마을로 1951년 수복당시 육군 장교들의 사택이 있었다.(인케지명총람)

남박곡(南朴谷): '천도(天桃)' 서쪽 후미에 있는 마을로 남씨와 박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한국지명총람)

남밭구미: '남박구미'의 잘못된 이름이다.(인케지명총람)

남전구미: '남박구미'의 다른 이름이다.(인케지명총람)

덕세산(德世山): '양짓말'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747m이고 덕이 있다고 한다.(한국지명총람)

모래소: '남박구미'에 있는 소(沼)로 모래가 많다.(한국지명총람)

비덕현(飛德峴): '응달말'에서 서흥리(瑞興里)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흔히들 '비둑고개'라고 부른다.(한국지명총람)

수리봉: 천도리(天桃里) 서쪽에 있는 산으로 수리들이 많이 살았다 한다.(한국지명총람)

수제(水濟): '양짓말'의 다른 이름으로 물 건너에 있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한국지명총람)

애기바우: '군인 마을' 앞산 밑에 있는 바위로 산짐승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액을 때우기 위해 매년 정월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고 전하나 지금은 그런 풍속이 사라졌다.(한국지명총람)

양지촌(陽地村):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인제지명총람)

어은산(魚隱山): ‘천도리(天桃里)’에 있는 산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어은천(魚隱川): ‘천도리(天桃里)’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어은골나드리’라고 한다.(조선지리지자료)

연내천(鵞內川): ‘양지말’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연내나드리’라고 한다.(조선지리지자료)

연애(煙崖): ‘연애킴’을 말한다.(인제지명총람)

연애킴: ‘천도(天桃)’ 동쪽에 있는 마을로 냇물이 흘러오다가 이곳에 이르러 줄어든다고 한다.(한국지명총람)

연촌(煙村): ‘연애킴’의 다른 이름이다.(인제지명총람)

웨이바우: 이 바위에서 외치면 부근 세 마을에까지 들린다고 한다.(인제지명총람)

을지관사: ‘을지부대(乙支部隊)’에서 영의 거주 장병들을 위하여 100동의 관사를 짓고 입주한 후에 부대이름을 따서 을지관사(乙支館舍)라 하였다.(인제지명총람)

음지촌(陰地村): 응달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인제지명총람)

응골: 조그마한 골짜기로서 아침이 되면 항상 안개가 은막처럼 이 골을 휩쓸고 있다가 10시경이면 물이 흐르듯 곱게 흘러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은곡(銀谷)’이라 불렀는데 오래 전하여 내려오면서 ‘응골’로 변했다.(한국지명총람)

점고개: ‘응달말’에서 서화리(瑞和里)로 넘어가는 고개로 웅기점이 있었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한국지명총람)

점현(店峴): ‘점고개’를 말한다.(한국지명총람)

직동(直洞): ‘양지촌’ 서북쪽 골 안 마을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천도촌(天桃村): 천도리(天桃里)라고 하는데 전설에 옛날 세상에 처음 보는 커다란 복숭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을 본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 여겨 복숭아가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불과 몇 해 되지 않아 큰 부자가 되었으며 이 사실이 인근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집을 짓고 살게 되어 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이웃 마을에서는 이 마을을 하늘에서 복숭아가 떨어진 곳이라 하여 천도리라 불렀다한다. **(한국지명총람)**

탑동(塔洞): ‘천도리’에 있으며, 탑(塔)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피양곡(避陽谷): ‘음지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피양동(避陽洞): ‘피양골’에 형성되었던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동되고 현재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피양산(避陽山): ‘양지말’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하음지(下陰地): ‘응달말’ 아래 동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서흥리(瑞興里): 본래 서화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논장(論章), 사천(沙天)을 병합하여 서흥리(瑞興里)라 하였는데 1945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에 수복되었으나 군용지로 사용되었다가 1955년 5월부터 민간인이 입주하게 되었으며 행정리수는 2개리다.

고암동: ‘논장리(論章里)’ 동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설피동’ 밑이 된다. **(인제지명총람)**

구신곡(九新谷): 월학리(月鶴里) 백마촌(白馬村)에서 서흥리(瑞興里) 앞

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항상 어둡고 음습하여 귀신이 나온다고 하여 불리는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귀신이고개’라고 하는데, ‘구신곡(九新谷)’은 이두식 한자표기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귀신이고개: ‘구신곡(九新谷)’의 우리 말 이름이다.

논장교(論章橋): ‘논장리’ 앞에 있는 다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논장리(論章里): 조선시대 서화현(瑞和縣)의 쌀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논장리천(論章里川): ‘논장리’ 앞으로 흐르는 물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논장리앞나드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대암산(大岩山): 인제군(麟蹄郡)과 양구군(楊口郡)에 걸쳐 있는 높이 1,316m의 산이다. 우리말 이름은 ‘대바우’라고 한다. 정상에서 조금 아래에는 ‘용늪’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대암산의 용늪 전경

대용포(大龍浦): 서흥리 서북쪽 산 밑에 있는 ‘큰 용늪’을 말하는데, 대암산(大岩山)山⁸⁹⁾에 있다. **(한국지명총람)**

뫼골: 서흥리(瑞興里) 앞산 뒤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모래내: ‘앞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모래가 많았다. **(인제지명총람)**

무쇠점: ‘앞골’ 앞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로 2백여 년전에 무쇠점이 있었다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무수동(無愁洞): ‘무쇠점’의 한자표기명이다. **(인제지명총람)**

배월동(盃月洞): ‘잔다리’의 한자표기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사천교(沙川橋): 서화면 서흥리(瑞興里)와 북면(北面) 월학리(月鶴里) ‘새재’와 연결하는 다리로 먼 경계가 된다. **(한국지명총람)**

사천동(沙川洞): ‘모래내’의 한자표기명이다. **(인제지명총람)**

사천탄(沙川灘): ‘모래내’앞을 흐르는 물의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사천이얌나드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

서창(瑞倉): 조선(朝鮮)시대에 ‘논장리(論章里)’에 있던 창고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서흥(瑞興): 서흥리(瑞興里)의 중심이 되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설포동(雪浦洞): ‘설핏골’의 한자표기명이다. **(인제지명총람)**

89) 대암산(大岩山): 강원도 인제군(麟蹄郡)과 양구군(楊口郡)에 걸쳐 있는 높이 1,310m의 산이다. 대우산과 천연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은 분지·습원등 지형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기후 조건이 특이하여 회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식물의 종류는 총 59과 123종으로 그 중 고층 습원의 특유종이 19종, 미기록종 15종이 알려져 있는 생물의 보고이다. 또한 동식물의 남북한계·동서 구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식물생태학·식물지리학적·식물분류학적 연구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상, 특이한 지형·지세 및 기후적 특성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큰 용늪과 작은 용늪 일원이 1997년 3월 28일에 국제보호습지로 지정 되었다.

설피골: 서흥리(瑞興里) 동쪽에 있는 마을로 도로가 개통되기 전 고성군(高城郡) 간성(杆城)방면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겨울철 행객들이 적설이 심하면 설피를 신고 길을 뚫고 다녔다 해서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소용포(小龍浦): ‘큰 용늪’ 밑에 있는 ‘작은 용늪’을 말하는데, 대암산(大岩山)에 있다. **(한국지명총람)**

알미봉: ‘논장리’ 서쪽에 있는 산으로 새알처럼 동그랗게 생겼다. **(한국지명총람)**

이만골: ‘설피동’의 다른 이름으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만 량 어치의 산삼을 캐다하여 불리는 이름이나 각종 기록에는 ‘설피동’으로 표기된다. **(한국지명총람)**

이탕소(李盪沼): 예전에 이씨네가 사천리(沙川里) 도수로를 내면서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부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임천역(臨川驛): 조선(朝鮮)시대에 서화면에 있던 역(驛)으로 지금의 논장리(論章里)에 있었다. **(한국지명총람)**

잔다리: 서흥리 서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전동(前洞): ‘뒷골’ 앞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지예촌: ‘알미봉’ 서쪽으로 북천(北川) 건너 마을이었으나 지금 민가는 없다. **(한국지명총람)**

창말: ‘논장리’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서화리(瑞和里): 본래 서화면(瑞和面)의 지역으로 서화현(瑞和縣)의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서화(瑞和)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곡리(大谷里)를 병합하여 서화리(瑞和里)라 하였다. 1945년 38°선 이 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에 국군이 탈환하여 군용지로 사용하다가 1958년 3월부터 민간인이 입주하게 되었으며 행정리로 2개리다.

구구곡(九九谷): ‘구십구골’을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구십구곡(九拾九谷): 수복(收復)이후 이곳에 99포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연유하여 ‘구구골’, ‘구십구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인제지명총람)**

금수동(錦樹洞): ‘신촌’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당봉(堂峰): 6.25사변 전까지만 하여도 이곳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어서 마을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냈으나 소실되고, 1956년 5월 육군 제5사단에서 ‘순직장병충혼비’를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육군 제5사단 소속 장병으로 해발 1,500m의 고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59명이 1954년 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참변을 당하자 당시 사단장이었던 준장 박정희(朴正熙) 장군이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설화순직비’를 세우고 안치 시켰으며, 비문(碑文)은 박정희 장군의 자필로 음각되어 있다. 또 ‘당봉(堂峰)’ 주위에는 성(城)으로 둘러싸였는데, 옛 서화현(瑞和縣)의 읍성(邑城)이라 할 수 있다. **(인제지명총람)**

대곡(大谷): ‘동계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가 70여리나 된다. **(한국지명총람)**

동계동(東溪洞): 서화 서쪽 냇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쪽 시냇가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흔히 ‘동갯골’이라고 부른다. **(한국지명총람)**

동개산(東開山): ‘동개골’에 있는 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보막촌(洑幕村): 보(洑)를 관리하던 사람이 머무르던 초막(草幕)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봉황촌(鳳凰村): ‘현촌(峴村)’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사방가주막(四方街酒幕): ‘서화(瑞和)’ 네거리에 있던 주막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산두곡(山頭谷): 큰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큰 산 뒤에 있다. **(한국지명총람)**
 산두곡산(山頭谷山): ‘산뚝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1,019m 된다. **(한국지명총람)**

새마을촌: 1980년 민북개발(民北開發) 사업으로 77동의 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주민이 입주함으로써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지은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서화리산성(瑞和里山城): ‘당봉(堂峰)’에 있으며, 둘레는 160m이다. **(강원도양구군인제군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서화천(瑞和川): ‘이포리(伊布里)’의 ‘짜리재령’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다, 원통에 이르러서 ‘북천’과 합류한다. **(강원도의 땅이름)**

연화리(蓮花里): ‘큰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연화부수형(蓮花浮垂形)이라 한다. 북면(北面) 용대리(龍垜里) 연화동(蓮花洞)과 접한 마을이다. **(한국지명총람)**

염탕촌(廉湯村): ‘큰골’에 있었다고 하며, 우리말 이름은 ‘염탕이’라고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용두천(龍頭川): ‘연화리(蓮花里)’에 있는 물 이름으로, 우리말 이름은 ‘용두포나드리’라고 한다.

은동(隱洞): ‘탑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동쪽에 응봉산이 있다. **(한국지명총람)**

젓마을: ‘금수동’의 옛 지명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지금 이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한다. **(한국지명총람)**

적계리(籍溪里): ‘큰골’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점고개: 천도리(天桃里)로 넘어 가는 고개 이름이다. ‘점재’라고도 하는데, 아주 오래 전에 이곳에 옹기점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제주도: ‘점고개’ 넘어 강변 쪽으로 외지게 떨어져 있는 첫 동리로 수복 직후에 20여 호가 살았으나 현재는 5가구만 살고 있다. 현촌(峴村)에서 뚝 떨어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탑동(塔洞): ‘동계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탑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현촌(峴村): 서화 남쪽에 있는 마을로 ‘점고개’ 아래가 된다. **(한국지명총람)**

가전리(加田里): 본래 서화면의 지역으로 가전리(加田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화리 일부를 병합하여 가전리(加田里)라 하였다. 1945년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3년에 휴전협정에 의하여 완충지대가 되었다.

가매소나드리: ‘부연동(釜淵洞)’의 순 우리말 이름이다.

가전(可田): 가전리(加田里)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밭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개고개: ‘중배양(中倍養)’에서 서화리(瑞和里)로 가는 고개로, 고개 아래에 큰 개 「浦」가 있다. **(한국지명총람)**

노전동(蘆田洞): 갈밭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

노전동주막(蘆田洞酒幕): ‘노전동(蘆田洞)’에 있던 주막의 이름이다. 우

리말 이름은 ‘갈밭구미주막’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둔평(屯坪): ‘가전(加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서화천(瑞和川)이 마을을 돌아서 흘러간다. **(한국지명총람)**

배양(倍養): ‘수곡리(水曲里)’ 남쪽 벼랑 아래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부연구(釜淵口): ‘부연동(釜淵洞)’ 어귀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부연동(釜淵洞): ‘가전(加田)’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가마솥처럼 생긴 큰 소(沼)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부연천(釜淵川): ‘부연동(釜淵洞)’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가매소나드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부허산(富墟山): ‘가전리(加田里)’에 있는 산으로, 우리말 이름은 ‘부자터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상배양(上倍養): ‘배양’ 윗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수곡리(水曲里): ‘가전(加田)’ 남쪽 서화천(瑞和川) 굽이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중배양(中倍養): ‘상배양’과 ‘하배양’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포현(浦峴): ‘개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하배양(下倍養): ‘배양’ 아랫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서희리(西希里): 본래 서화면의 지역으로 서희(西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전리(加田里) 일부를 병합하여 서희리(西希里)라 하였다. 1945년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3년 휴전

협정에 의하여 완충지대가 되었다.

도미현(道味峴): ‘서희(西希)’ 동쪽에 있는 마을에 있으며, 이곳에서 성내동(城內洞)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박달(朴達): ‘서희(西希)’ 북동쪽 ‘박달령(朴達嶺)’ 아래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박달령(朴達嶺): ‘박달’에서 이포리(伊布里)와 구례동(九禮洞)으로 가는 큰 고개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박달촌(朴達村): ‘박달(朴達)’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서희(西希): 서희리(西希里)의 중심이 되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서희구(西希口): 성내동(城內洞) 남쪽에 있는 마을로 ‘서희리’ 어귀가 된다.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서희령(西希嶺): ‘서희(西希)’에서 이현리(泥峴里)로 넘어가는 큰 고개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성내동(城內洞): ‘도미현(道味峴)’ 동쪽에 있는 곳. 앞산에 옛 성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쌍두동(雙頭洞): ‘서희(西希)’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쌍용거두(雙龍巨頭)의 형국이라 한다. (한국지명총람)

쌍두령(雙頭嶺): ‘쌍두동’에서 양구군(陽口郡) 동면 사태리(沙太里)로 가는 큰 고개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쌍룡고지(雙龍高地): ‘쌍두동’ 북쪽 곧 휴전선과 완충선(緩衝線)에 걸쳐 있는 능선으로, 1953년 6월 7일부터 3일 동안 악전고투 끝에 중공군(中共軍)을 완전히 격퇴시킨 곳이다. (한국지명총람)

왓동(臼洞): ‘성내동(城內洞)’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응봉(鷹峰): '서희' 북쪽 매봉 아래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심적리(深積里): 본래 서화면의 지역으로 심적(深積)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화리 일부와 다릿골, 신촌, 평촌, 장바우를 병합하여 심적리(深積里)라 하였다. 1945년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 수복되었으나 북쪽에 완충선에 닿아서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교동(橋洞): '심적(深積)' 북쪽에 있는 마을로 다리가 있었다. 우리말 이름은 '다리골'이다. **(한국지명총람)**

내심적(內深積): '심적(深積)' 안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신촌(新村): '평촌' 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심적령(深積嶺): '심적(深積)'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옥수동(玉水洞): '심적(深積)'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외심적(外深積): '심적(深積)' 바깥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이목동(梨木洞): '신촌(新村)' 서쪽에 있는 마을로 들배나무가 많았다. 우리말 이름은 '배나무골'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장암(場岩): '장암동'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장암동(場岩洞): '심적'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당처럼 넓은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평촌(坪村): '심적' 동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

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이포리(伊布里): 본래 춘천부에 딸린 이포소(伊布所)가 있던 곳인데 조선 제4대 세종(世宗) 6년(1424)에 인제군에 이속되고 그 후에 이포리(伊布里)가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지촌(陽地村), 용산(龍山), 화학동(化鶴洞), 지남, 갈문, 대정동, 능동, 화중동, 이곡, 돌모루를 병합하여 서화면에 편입되었으나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처하에 있다가 1953년 휴전 협정에 의하여 완중지대로 남게 되었다.

갈문(葛文): ‘양지촌’ 서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구례동(九禮洞): ‘대정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내갈문(內葛文): ‘갈문’ 안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능동(陵洞): ‘이포(伊布)’ 서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춘주부(春州府)에 딸린 이포소(伊布所)가 있었으며, 세종(世宗) 6년(1424)에 인제현(麟蹄縣)으로 예속되었다. **(한국지명총람)**

대정동(大正洞): ‘병풍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병풍동(屏風洞): ‘돌모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산이 병풍을 두른 듯하다고 하는데,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석우촌(石隅村): ‘이포(伊布)’ 남쪽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우리말 이름은 ‘돌모루’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신덕현(新德峴): ‘화중동’에서 고성군(高城郡) 수동면(水洞面) 흑연리(黑然里)로 가는 고개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양지촌(陽地村): ‘이포(伊布)’ 북쪽 양지 편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외갈문(外葛文): ‘갈문’ 바깥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용산(龍山): ‘용산골’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용처럼 생겼다 한다. 황장목(黃腸木)이 자생하여 조선시대에 때 금산(禁山)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용산곡(龍山谷): ‘돌모루’ 북쪽 용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유치령(柵峙嶺): ‘대정동’에서 양구군(楊口郡) 청송리(靑松里)로 가는 고개인데 싸리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싸리재령’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지남(地南): ‘용산곡’ 북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진수동(進水洞): ‘양지촌’ 동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탄곡천(炭谷川): 근원은 탄령(炭嶺)에서 시작되며, ‘이포(伊布)’를 지나 남쪽으로 흐르는 물 이름이다. **(대동지지)**

탄령(炭嶺): ‘이포(伊布)’북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대동지지)**

토애주막(土崖酒幕): ‘이포(伊布)’에 있던 주막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흙베루주막’이라고 한다. **(조선지지자료)**

화중동(化中洞): '지남(地南)' 북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화학동(化鶴洞): '양지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학(鶴) 같다고 하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화학령(化鶴嶺): '화학동(化鶴洞)'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장승리(長承里): 본래 서화면의 지역으로 장승이 있었다 하여 장승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방곡(大房谷), 장평(長坪), 대평(大坪), 어우실, 장항(獐項) 노전평(蘆田坪)을 병합하여 장승리라 하였다. 1945년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완충지대로 남게 되었다.

직곡(直谷): '흥가곡' 북쪽 곧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갈밭구미: '갈전평' 남쪽 후미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노전평(蘆田坪): '송노평' 남쪽에 있는 마을로 갈밭이 있었다. 우리말 이름은 '갈전평'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대방곡(大房谷): 장평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대평(大坪): '장승동' 앞 들 옆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삼치령(三峙嶺): '장승리'에 있으며, 세 고개가 연이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삼치주막(三峙酒幕): '장승리'에 있던 주막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송노평(松老坪): ‘철미동’ 안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어우실(御牛室): ‘홍가곡’ 북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어우실(魚宇室): ‘어우실(御牛室)’의 이두식 한자표기명이다. **(조선지리지 자료)**

오가덕(吳家德): ‘대평’ 북쪽 둔덕에 있는 마을로 오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장승동(長承洞): ‘장승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장평(長坪): ‘대평’ 서쪽 긴들 옆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장항(獐項): ‘대평(大坪)’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되었다고 하며,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우리말 이름은 ‘노루매기’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철미동(鐵尾洞): ‘황기’ 남쪽에 있는 마을이었으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홍가곡(洪哥谷): ‘장평’ 서쪽에 있는 마을로 홍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나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황기(黃基): ‘노루매기’ 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동란으로 폐동되었다. **(한국지명총람)**

상남면(上南面)



군(郡)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기지군(基知郡)이었다가 신라(新羅)시대에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으며, 고려(高麗)시대에는 안변도호부(安邊道護府) 춘주군(春州郡)의 속현으로 기린현(麒麟峴)이라 하였으며, 조선(朝鮮)시대에는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춘주군(春州郡)의 속현으로 있다가 광무(光武) 10년(1906)에 인제군(麟蹄郡) 기린면(麒麟面)으로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남리(上南里)의 일부를 남면(南面) 김부리(金富里)에 넘겨주고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상남(上南)과 하남(下南)은 그 해 9월 18일에 홍천군(洪川郡) 신남면(新南面)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 이양에 따라 다시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다.

1973년 7월에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의 미산리(美山里)가 기린면(麒麟面)으로 편입(編入)되었으며 상남1리에는 기린면 사무소 상남출장소(上南出張所)를 두어 상남리(上南里)와 미산리(美山里)를 관할하였다.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상남리(上南里), 하남리(下南里), 미산리(美山里)와 남면의 김부리(金富里)를 편입(編入)시켜 기린면 상남출장소에서 상남면(上南面)으로 승격되었으며, 초대(初代) 면장(面張)에는 박남원(朴南遠)이 취임하였다.

행정리는 10개리다. 동, 남, 서쪽으로는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 서석면(瑞石面), 내촌면(乃村面)에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기린면(麒麟面)과 남면(南面)에 인접해 있다.

상남리(上南里): 본래 기린면 지역으로서 옛 기린현(麒麟峴)의 남쪽 위가 되므로 상남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업수동, 방아다리, 아홉사리, 자포대, 봉남대를 병합하여 상남리라 하였으며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그 해 9월18일에 홍천군 상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 이양에 따라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83년 1월 10일 기린면 상남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상남면으로 편입되었다. 행정리수는 3개리다.

가득봉(可得峰): '자포대'남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1060m나 되며, 약초와 산채가 많이 난다고 한다.(한국지명총람)

고사리재; '고석평(古石坪)'에서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 방내리(坊內里)로 가는 고개로 높이는 619m이며, 고사리가 많이 난다고 한다.(한국지명총람)

고석평(古石坪): '엄달골' 동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아주 오래전에 김씨와 이씨가 살았는데, 마을 이름이 없었다. 지관의 풍수설에 의하면 이 마을이 금반형(金盤形)이라 고석(古石)을 세우면 마을이 번창한다하여 사방 4m 가량 되는 넓은 판돌 위에 고석(古石)을 세우고 마을 이름을 '고석평'이라 했다고 전하며, 현재 고석은 없으나 논 가운데 판돌은 아직도 파묻혀 있다고 한다.(한국지명총람)

달림치(達林峙): '자포대'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다름재'라고 한다.(조선지리지자료)

대사곡(大寺谷): '방아다리'의 절골을 말하며, 큰절이 있던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조선지리지자료)

미교(美橋): '상남리(上南里)' 서남쪽 끝에 있는 마을로 작은 다리가 많았

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미다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미달동(美達洞): ‘미다리’의 다른 이름이다.

미륵동(彌勒洞): ‘엄수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미륵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미력동’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미현(薇峴): ‘고사리재’의 한자 표기명이다. **(한국지명총람)**

박술이터: 박술이라는 장군이 선조(宣祖)때 왜군을 무찌르다 외세에 밀려 쫓기다가 국운(國運)이 쇠퇴함을 한탄한 나머지 이곳에서 자결한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방아다리: ‘미다리’ 아래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방아다리과 같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봉남대(鳳喃臺): ‘부수동(浮水洞)’ 윗 쪽에 있는 마을로 큰 소나무가 있었으므로 ‘소나무터’라고 하다가 변하여 ‘새남의터’가 되었는데, 한자 표기 과정에서 ‘봉남대(鳳喃臺)’로 변하였다.

부수동(浮水洞): 용소폭포 아래에 있는 마을로 연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갑둔향토사적연구회(甲屯鄕土史蹟硏究會) 이태두(李泰斗)의 <김부사적기(金富史蹟記)>의 내용을 인용하면 옛날에 마의태자(麻衣太子)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김부리에 웅거하고 있을 때 김부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서쪽 관문이 되는 갑둔(甲屯)과 소치리(所峙里)를 우두머리 장수인 맹장군이 지켰다면, 동쪽 길목인 ‘부수동’은 부장수 즉 부수(副帥)가 지켰을 것임으로, 부수(副帥)가 지키던 곳이라 하여 ‘부수동(副帥洞)’이라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이곳에는 절터가 있는데, 이 절의 이름이 부수사(副水寺)였기 때문에 ‘부수동(副水洞)’이라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지명총람)**

부수현(浮水峴): ‘엄수동’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부수고개’라고 한다.

남면(南面) 정자리(亭子里)로 넘어 가는 고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상남폭포(上南瀑布): ‘용소’에 있는 폭포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석장곡(石長谷): ‘자포대’ 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엄달동(嚴達洞): ‘엄수동’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엄수동(嚴水洞): 용소폭포가 있는 마을로 옛적에 엄씨 형제가 이곳에 들어와 개척하고, 촌락을 번창시켰는데, 형이 살던 곳을 ‘상엄수동(上嚴水洞)’이라 하고, 아우가 살던 곳을 ‘하엄수동(下嚴水洞)’이라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엄수평(嚴水坪): ‘엄수동’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오라지치(吾羅地峙): ‘엄수동’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외라지고개’라고 하는데, 연유를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

오미치(五味峙): 상남 북쪽에서 하남 뒷 버덩으로 가는 고개로 오미자(五味子)가 많이 자생 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용남현(龍南峴): 상남폭포 북쪽에 위치한 고개로 남면(南面) 신남리(新南里)로 통하는 고개다. ‘용소’에서 ‘남면(南面)’으로 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용남이고개’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용소(龍沼): 상남 북쪽에 위치한 폭포로 옛적에 ‘엄수동’에 살던 한 할머니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내일 일찍 소(沼)로 오면 나를 볼 수 있다.” 함으로, 이상히 여겨 다음 날 손녀를 앞세우고 가다가 손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누런 구렁이가 상남폭포를 칭칭감고 있어 무서움에 못이겨 상남까지 뛰어오니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고 안개가 자욱한 사이로 무지개가 서더니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날이 가물 때면 주민들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데, 개를 잡아 피를 폭포벽에 칠하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용소폭포(龍沼瀑布): ‘상남폭포’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유별루천(柳別樓川): ‘밀억동(密億洞)’에 있는 냇물로, 우리말 이름은 ‘유별루내’라 한다고 하는데, ‘밀억동’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없으나, 다만 ‘미륵동(彌勒洞)’의 다른 표기가 아닌가 하고 추측할 뿐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자포대(自飽岱): ‘방아다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논이 많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부자들이 살던 마을로서 노비와 식구들이 먹을 쌀 씻은 땀물이 5리나 흘렀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스스로 배부른 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침교리(砧橋里): ‘방아다리’로 돌다리가 많았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함정모퉁이: ‘상엄수동’과 ‘하엄수동’ 중간지점을 말한다. 아래 위에 떨어져 살고 있는 엄씨네 두 형제들이 서로 만나러 다니는 길에 호랑이가 자주 나와 그곳에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함정을 파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행치현(行峙峴): ‘미다리’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홍천군(洪川郡) 서석면(瑞石面)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창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세운 ‘마의태자 노래비’가 있다. 정두수가 짓고, 임종수가 곡을 붙였으며, 조영남이 노래하였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치령 고개 넘어 백자동 고개 넘어
산새도 오지 않는 깊은 산골 갑둔리
달빛보다 더 푸른 천추의 그 푸른 한
나라를 찾겠노라 그 큰뜻을 품은 채
어찌 눈을 감으셨나 마의태자 우리 님

하늘이 버리셨나 바람도 스산하다
 무덤조차 잃어버린 첩첩산중 김부리
 꽃보다 더 붉은 망국의 그 붉은 한
 세월아 말을 하라 마의태자 우리 님
 어찌 눈을 감으셨나 마의태자 우리 님 **(조선지리지자료)**

황정동(黃汀洞): 옛적에 황정(黃汀)이라는 벼슬아치가 귀양사리를 와서 처음으로 개척한 곳이라 하여 부르게 된 지명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황정포(黃汀浦): ‘황정동’에 있는 냇물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하남리(下南里): 본래 기린면의 지역으로 기린현에서 남쪽 아래가 되므로 하남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광조전(光助田), 방평동(傍平洞), 다릿골, 매화리(梅花里)를 병합하여 하남리(下南里)라 하였다.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그 해 9월 18일에 홍천군(洪川郡) 신남면(新南面)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 이양에 따라 다시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83년 1월 10일 기린면 상남출장소가 상남면(上南面)으로 승격되면서 상남면(上南面)으로 편입되었다.

가산(佳山): ‘매화동’ 남쪽에 있는 낮은 산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가산동(佳山洞): ‘가산(佳山)’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간대(間垔): ‘새터’라고 한다. ‘건지터’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건지터: 예전에 ‘사평동(沙坪洞)’으로부터 양식을 건너다 먹었다 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광조전(光助田): ‘광주앗’을 말한다. 광주전(光珠田)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한국지명총람)**

광주전(光珠田): ‘다릿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좋은 밭이 있다. 지금은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소설가 한수산(韓水山)의 생가 터이기도 하다. **(조선지리지자료)**

광주치(光珠峙): ‘광주앗’ 북쪽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교곡(橋谷): ‘다릿골’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교동(橋洞): 하남 서북쪽 냇가에 있는 마을로 어귀에 다리가 있다. ‘다리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구만동(九萬洞): 다릿골 동남쪽 넓은 터에 있는 마을로 아홉 집이 터를 잡고 살았다 함. 6.25당시 ‘기린면 한청결사대’ 활약이 대단하였는데 이곳에서 북괴군을 120명이나 집단으로 사살한 바가 있다. **(인제지명총람)**

구만리(九萬里): ‘구만동(九萬洞)’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깊은골: 하남 서쪽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대바위: 남면(南面) 정자리(亭子里)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한국지명총람)**

마릿골: 선래동(仙來洞)과 ‘광주동’ 중간지점을 말하며 앞뒤가 막힌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마이현(馬耳峴): ‘매화현(梅花峴)’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마리고개’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매화동(梅花洞): ‘용포(龍浦)’ 동쪽 넓은 들 옆에 있는 마을로 매화락지형(梅花落之形)의 못자리가 있었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매화리주막(梅花里酒幕): ‘매화동’에 있던 주막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매화현(梅花峴): ‘마이현(馬耳峴)’의 다른 이름이다. ‘매화동’에서 ‘현리(縣里)’방향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로, 우리말 이름은 ‘마릿고개’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미기동(美基洞): ‘광주앗’ 건너 쪽에 있는 마을로 들이 비옥하여 살기가 좋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미기평(美基坪): ‘광주앗’ 건너 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배미천(背尾川): ‘사평(沙坪)’에 있으며, 우리말 이름은 ‘배무소’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사평(沙坪): 하남 서북쪽 냇물 가에 있는 들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사평리(沙坪里): 하남 서북쪽 냇물 가에 있는 마을로 모래가 많았다. **(조선지리지자료)**

새터: ‘사평골’과 ‘왓골’ 사이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선래동(仙來洞): 홍천군 내면과 경계가 되는 곳에 있는 마을로 수리봉 아래가 되는 데 경치가 좋아서 신선이 내려와서 놀았다고 한다.

선애곡(先艾谷): ‘선래곡(仙來谷)’의 이두식 한자 표기명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심곡(深谷): 골이 깊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어신탄(魚信灘): ‘하남(下南)’에 있다고 하며, 우리말 이름은 ‘어신나드리’라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으나 ‘새터’에 있는 물 나들이를 말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지리지자료)**

와야곡(瓦野谷): ‘왓골’골짜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와야동(瓦野洞): ‘새터’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왓골’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용포교(龍浦橋): '하남'에 있는 다리로 기린면(麒麟面)과의 경계 지점에 있다. **(한국지명총람)**

용포전진(龍浦前津): '용포'앞에 있던 나룻터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의식동(衣食洞): '후평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옷과 밥을 걱정 안할 만큼 살기가 좋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절골: 예전에 봉두사(鳳頭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은 지명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직금현(織錦峴): 조선때부터 내려오는 지명으로 '후평동'에서 '의식동'으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로 고개가 벼들형국이라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말 이름은 '직은이고개'이다. **(한국지명총람)**

추갑산(秋甲山): '선래동'에서 5리정도 올라가 있는 산이다. 조선(朝鮮) 중엽, 사냥으로 생계를 잇는 추씨성을 가진 사냥꾼이 있었다. 추씨가 사냥을 나간 지 조금 지나자 산에선 계속 총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있던 아들 갑산(甲山)은 걱정이 되어 산에 올라보니, 아버지는 쓰러져 있고 그 앞에는 커다랗고 흰 짐승이 버티고 있었다. 아버지는 갑산에게 저 짐승은 아무리 총으로 쏘아도 죽지 않으니 어서 도망하라고 했다. 그러나 갑산은 총으로 그 짐승을 쏘았다. 그러자 갑산의 뛰어난 사격솜씨에 짐승은 쓰러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 연유하여 마을 사람들은 산의 이름을 '추갑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인제지명총람)**

칠전동(漆田洞): '의식동'의 옛 지명이다. 울나무가 많아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하남(下南): 기린면 현리에서 남쪽 아랫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후평(後坪): 하남리 뒷 버덩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후평동(後坪洞): 하남리 뒷 버덩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미산리(美山里): 본래 강릉군(江陵郡) 내면(內面) 내삼리(內三里) 지역으로 미산(美山), 미산동(美山洞)이라고 불렀으나 광무(光武)10년(1906)에 인제군(麟蹄郡)에 편입되었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연동(龍淵洞)을 병합하여 강릉군(江陵郡) 내면(內面)으로 환원되었으며 1939년에 다시 인제군(麟蹄郡)에 편입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양분되면서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인제군(麟蹄郡) 기린면(麒麟面)으로 환원되어 기린면 상남출장소 관할 하에 있었다. 1983년 1월 10일 상남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어 상남면(上南面) 미산리(美山里)라 하였으며 행정리 수는 2개리다.

가현산(加峴山): ‘개인산(開仁山)’의 옛 이름이다. (산삼금표적)

개인리(開仁里): ‘칠앗’ 동북쪽 개인산 기슭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개안산(開顏山): ‘개인산(開仁山)’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

개인산(開仁山): ‘칠앗’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약수터가 있다. 인제군(麟蹄郡) 상남면(上南面)과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과 경계가 되는데, 해발 1,341m이다. (강원도 땅 이름, 한국지명총람)

개인약수(開仁藥水): ‘소개인동(小開仁洞)’을 지나 ‘대개인(大開仁)’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개인산 중턱에 있으며 1891년 지덕삼(池德三)이 수렵생활을 하다가 발견하였다.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며 위장병에 특효라고 한다. 2011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 531호로 지정되었다. (한국지명총람)

계수동(桂水洞): ‘칠앗’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뒤가 기암절벽으로 형성된

곳으로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답다. **(한국지명총람)**

고목동(古木洞): 고목이 많다 하여 명명한 마을로 ‘남발골’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밤나무 고목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곳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율곡(李栗谷) 선생의 부친이 아들을 데리고 이곳을 지나다 주막에서 하루 머무르게 되었는데 꿈에 도인이 나타나 “너의 아들 수명이 길지 못하다.”고 말하고는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면서 “이 마을 뒷산에 1,000그루의 밤나무를 심고 떠나라”하기에 며칠 동안 밤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꿈에 본 호랑이가 나타나서 밤나무를 세어 보자기에 세어 보니 한 그루가 모자라는 999그루였다. 한 그루는 어디에 있느냐고 호랑이가 다그치자 옆에 있던 상수리나무가 튀어나오며 “나도 밤나무”라고 외쳐 화를 면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밤나무 고목은 율곡 선생이 심은 밤나무라고 전해오며 인제군에서는 전래마을 되찾기 운동으로 1988년에 이 마을에 밤나무 1,000그루를 지원 식재토록 하였다. **(한국지명총람)**

구룡덕봉(九龍德峰): ‘개인리’ 동북쪽에 위치한 산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구미동(九尾洞): ‘운정동’ 동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구보(舊漕): 새로 만든 보 보다 먼저 만든 보(漕)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남전동(藍田洞): ‘속사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바르고 토질이 비옥하다. 예전에는 쪽나무가 무성했다고 한다. 우리 말 이름은 ‘남발골’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봉미소(鳳美沼): 옛날 소가 있었는데 주변 지형이 봉황새 형태로 아름답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부소(桴沼): 우리말 이름은 ‘떼소’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는 이가 없다. **(조선지지자료)**

빈지동(賓地洞): ‘속사동’ 북쪽 반반한 곳에 있는 마을로 ‘빈치전’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빈지미치: ‘빈지동’에 있는 작은 고개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사곡(寺谷): 고려(高麗)시대에 절이 있었다고 하나 자취를 찾기가 어렵다. **(한국지명총람)**

산삼금표석(産蔘禁標石): 버스 종점에서 개인산 약수터로 가는 다리를 건너, 내린천 상류 30여 미터 지점의 자연석에 「산삼가현산서표(産蔘加峴山西標)」라고 새겨놓은 바위 이름이다. 산삼이 나는 가현산(加峴山)의 서쪽 표석이라는 뜻으로, 옛적부터 귀한 산물(産物)로 여기는 산삼을 마음대로 채취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산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세운 표석이라고 여겨 부르는 이름이다.

선래곡(仙來谷): 옛날에 선녀가 내려와 놀았다고 전한다. **(한국지명총람)**

성황현(城隍峴): 성황당(城隍堂)이 있어 붙여진 고개 이름이다. **(조선지리지)**

속사동(東沙洞): ‘여차울’ 동쪽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속새가 무성하였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송계동(松契洞): ‘양지촌’ 동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수리바위: ‘한니동’ 북쪽 방태산 중턱에 있는 바위로 수리갈이 생겼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승두촌(蠅頭村): ‘과리떡이’의 한자표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식전동(食田洞): ‘양지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산삼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신보(新洑): 새로 시설한 보(洑)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심바치: '식전동'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양지동(陽地洞): '식전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어두원길: '개인리' 동북쪽. 곧 구룡덕봉 밑에 있는 골짜기로 뒤에 높은 산이 솟아 있고 골이 깊어서 늘 어두운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어유소(魚遊沼): '칠앗' 남쪽에 있으며 고기가 노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다 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왕성곡(旺盛谷): '빈지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왕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용바위: 조선(朝鮮)말엽에 이곳에 살던 가난한 부부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자 용마가 나타나서 밤낮 울어대므로 마을의 흥조라 여기고 암사시켰다 하여 부르게 된 바위이름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용소(龍沼): '용연동'에 있는 소를 말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용연동(龍淵洞): '빈지동'에서 20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약 3천평 되는 용늪이 있었으며 구룡덕봉에서 난 용마가 주인이 죽게 되자 이 늪에 와서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한국지명총람)**

운정동(雲井洞): '구미동' 남쪽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로 양질의 샘이 있다는데 연유하여 지은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재대곤(才垔坤): 이곳에서 산 사람들은 모두 부자행세를 하며 뿔냈다는데 연유하여 불리지는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지봉(砥峰): '용연동'에 있으며, 우리 말 이름은 '숫돌봉'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청소(靑沼)굽이: ‘속사동’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푸른 물이 굽이쳐 흐르는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척알: ‘칠앗’의 변형된 이름이다.

칠앗: ‘칠앗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칠전현(漆田峴): ‘칠앗고개’의 한자표기명이다. 울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말 이름으로는 ‘척알고개’ 또는 ‘칠앗고개’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

파리떡이: ‘남밭골’ 동쪽에 있는 바위로 파리머리와 유사한 바위가 있다는 데 연유하여 지은 지명이다. (한국지명총람)

풍취평(風吹坪): ‘용연동’에 있는 들을 말하며, 우리말 이름은 ‘바람부리’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

한니동(寒泥洞): ‘빈지동’ 동쪽 방태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고산지대에 속한다. (한국지명총람)

김부리(金富里): 본래 남면 지역으로 김부동(金富洞), 김보황촌(金寶王村), 김보왕동(金寶王洞)으로 불리웠고 1843년에 김보리(金寶里)라 하였으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자동(栢子洞)과 기린면 상남리(上南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김부리(金富里)라 하였다.

각시소: ‘신랑소’ 옆에 있는 소(沼)의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감자밭골: 김부리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자밭이 많았다. (인제지명총람)

거릿말: ‘황병골’ · ‘단지골’ · ‘갑둔리’로 가는 거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교자봉(轎子峰): '황병골'에 있으며, 높이가 1191m에 달한다. 우리말 이름인 '가마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조선지리지자료)**

길향리(吉香里): '단지골' 북쪽 길향산 아래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김보리(金寶里): '김부리'의 옛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김보동천(金寶洞川): '김보동(金寶洞)에서 시작되며, 북쪽으로 흐르다가 봉황대(鳳凰臺)로 유입되면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 이름이다. **(머동지지)**

김보왕동(金寶王洞): '김부리'의 옛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김보왕촌(金寶王村): '김부리'의 옛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김부리(金富里): 신라(新羅) 56대 경순왕(敬順王)의 아들 김일(金鎰)이 이곳에 와 머무르면서 신라 재건을 이룩하고자 김부대왕(金富大王)이라 칭하고 군사를 모집 양병(養兵)을 꾀했다 하여 불리는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노전동(蘆田洞): 갈대가 많은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말 이름은 '갈밭무기'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단지곡(丹芝谷): '김부리'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단지(斷趾)라는 뜻은 옛날에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발을 자르는 것을 뜻하는데 김부대왕(金富大王) 통치하에서 죄지은 사람을 벌하던 곳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제지명총람)**

달밭골: '김부리' 동쪽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대왕각(大王閣): '거릿밭'에 있는 사당으로 김부대왕을 위하여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에 취떡과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으며 현재 단오절에는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중양절(重陽節)에는 신라김씨 중무원 부안(扶安)김씨 대종회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

다. 대왕각에는 “경순대왕일자지신위(敬順大王一子之神位)”라 기록된 위패가 모셔져 있었으나 1978년 부안김씨 후손들에 의하여 “신라경순대왕태자김공일지신위(新羅敬順大王太子金公鑑之神位)”로 고쳐 모셨으며 칠제 마상 2점이 있다. 또 최근에는 초상화(肖像畵)1점을 게시하였다.

(인 췌지명총람)

대왕당(大王堂): ‘대왕각’을 말한다.



김부대왕각의 전경

말등바우: ‘옥새바우’ 북쪽에 있는 바위로 말등과 비슷하다고 한다. **(인 췌지명총람)**

밭따고개: ‘김부리’에서 ‘정자리(亭子里)’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 옆에 큰 바위가 밭따 일어서 있는데 연유한 이름이다. **(인 췌지명총람)**

백자동(栢子洞): ‘비독재’ 밑에 있는 마을로 큰 잣나무가 있었다. **(한국지명총람)**

비독재: ‘거릿밭’에서 ‘백자동(栢子洞)’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산비둘기 집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상단지곡(上斷趾谷): ‘단지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상평(上坪): ‘거릿말’ 위 들 옆에 있는 마을을 말하며, 우리말 이름은 ‘웃버덩’이다. **(한국지명총람)**

솔모정: ‘백재동’ 가운데 있는 솔숲을 말한다. **(한국지명총람)**

수금동: 갑둔리(甲屯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수구네미’ 밑에 있는 마을로, 갑둔리의 ‘수구네미’와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

신랑소: ‘각시소’ 동쪽에 있는 소(沼)를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옥새바우: ‘하단지골’ 북쪽 산 밑에 있는 바위로 2개가 포개져 있는데 김부왕(金富王)이 옥새(玉璽)⁹⁰를 감췄던 곳이라 하며, 여러 빛깔의 뱀이 가끔 나와 돌아다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옥새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인제지명총람)**

용소(龍沼): ‘지랭이’ 서북쪽에 있는 소(沼)로 근처 바위에는 용이 등친한 자국이 나있다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음지동(陰地洞): 음지쪽에 있는 마을로 ‘응달말’이라고도 하며, 산에 제당(祭堂)이 있다고 하여 ‘지당골’이라고도 한다.

제단곡(祭壇谷): ‘음지동(陰地洞)’의 다른 이름이다. **(한국지명총람)**

지랭이: 지형이 지렁이처럼 길게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제지명총람)**

직곡(直谷): 김부리 동쪽 곧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우리말 이름은 ‘고든골’이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

진소: ‘하단지골’에 있는 긴 소(沼)를 말한다. **(인제지명총람)**

짚소: ‘황병골’에 있는 소(沼)로 폭포 아래에 있는데 폭포에서 떨어지는

90) 옥새(玉璽): 옥으로 만든 국새(國璽), 국새(國璽)의 미칭.

물 모양이 방아를 찧는 것 같다고 한다.(인제지명총람)

하단지곡(下斷趾谷): ‘단지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인제지명총람)

행병곡(行兵谷): ‘황병골’이라고도 한다. 김부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황벽나무⁹¹⁾가 무성한데 연유하여 명명된 지명이라고 하나, ‘갑둔향토사적 연구회(甲屯鄕土史蹟研究會)’ 이태두(李泰斗)씨는 ‘황병골’로 싸움에서 항복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김부대왕(金富大王) 통치 체제에 의한 싸움에서 유래된 지명일 것이라고 추측한다.(조선지리지자료, 인제지명총람)

행병현(行兵峴): ‘황병골’에서 홍천군(洪川郡) 두촌면(斗村面) 괘석리(掛石里)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우리말 이름은 ‘황병고개’라고 한다.(한국지명총람)

호랑박골: ‘달밭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살았다는 유래에 의하여 지은 지명이다.(한국지명총람)

황병곡(黃丙谷): ‘황병골’의 이두식 한자 표기명이다.(한국지명총람)

91) 황벽나무: 황경나무라고도 함. 운향과(芸香科 Rut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키는 10m 정도이며 해발 1,300m 이하 지역에서 자생한다. 가지는 굵고 사방으로 퍼지며 연한 회색의 수피(樹皮)는 코르크층이 발달하여 깊게 갈라지고 내피는 황색이다. 잎은 깃털 모양의 잔잎 5-13쌍이 겹겹으로 마주나는데 피침형의 잔잎은 밑이 둥글고 끝이 길게 뾰족하며 몽뚝한 톱니와 광택이 있다. 꽃은 6월경 암꽃과 수꽃이 다른 그루에 원추(圓錐)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꽃잎은 5-8개이고 수꽃에는 5-6개의 수술이 있으며 암꽃에는 1개의 암술이 있다. 열매는 지름이 약 1cm인 구형의 검은색 핵과(核果)이다. 일본·중국·우수리·아무르 지역 등에 분포한다. 한국에는 같은 황벽나무속(黃蘗屬 *Phellodendron*)이며 잎 뒷면에 털이 많은 털황벽나무(*P. molle*), 잔잎이 3-5쌍인 섬황벽(*P. insulare*), 코르크층이 얇고 잎에 연한 털이 적은 넓은잎황벽(*P. sachalinense*)이 자란다. 황벽나무는 밀원식물로 적당하며 목재는 무늬목·가구재·목공예재로 쓰이고 수피와 열매는 장티푸스·콜레라·토혈·중독·임질·동상·당뇨의 치료 및 건위제·정장제·수렴제·방부제 등으로 쓰이며 내피는 노란색의 염료로 사용되는데 황벽이라는 이름은 내피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麟蹄郡의 유물(遺物).유적(遺蹟).
명승지(名勝地)

〈인제읍〉

구 분	유물, 유적, 명승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제향교(제103호) ○상동3리 3층석탑 및 석불좌상(제34호)
향토문화재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둔 열여 전주김씨 정려각 ○원대 삼척 김씨 정려각 ○리빙스톤 교 ○인제지구 전투전적비 ○ 충혼탑 ○장병추도비 ○군축령 충혼비 ○합강리 느티나무 ○덕산리 소나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강정 ○박인환 시비 ○합강리 성지(만호대) ○덕산 열녀 영일정씨열녀비 ○원대리 3층석탑 ○갯골 냉천 ○경노정 ○합강미륵 ○신의경 영사비 ○도암 이재선생 유허비 ○심봉호 만세 불망비 ○철충장군 심준학 묘비 ○대소인원하마비 ○현감 이종우 선정비 ○전사 경찰 위령비 ○자유 수호 위령탑 ○전투참가 기념비 ○필레약수

〈남면〉

구 분	유물·유적·명승지 등
국가 지정 문화재	
지방 지정 문화재	○갑둔리 5층 석탑및 주면 탑재(제117호)
향토문화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둔리 소나무 ○38교 표석 ○남북통일로 표석 ○충현비 ○오덕준 장군 송덕비 ○제1야전군 사령부지 기념비 ○남전리 위령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전리 고인돌 ○성재 성지 ○김부대왕각 ○마의태자 유적지비 ○쪽발골 약수 ○정자리 열녀 진주 유씨 열녀비

〈복면〉

구 분	유물·유적·명승지 등
국가 지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악산천연보호구역(기념물 제171호) ○향로봉천연보호구역(기념물 제247호)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부복장 유물 (보물 제1182호) ○한계사지 남3층 석탑(보물 제1275호) ○한계사지 북3층 석탑(보물 제1276호)
지방 지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정암 석가 사리탑(제31호) ○한계산성(제17호) ○한계사지(제50호)
향토문화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리 소나무 ○백골병단 전적비 ○칠성탑 ○향로봉 전물용사 위령비 ○한계리 무명용사 충혼비 ○한계령 위령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학리 선사 유적 ○만해 한용운 시비 ○백담사 ○백담사 석탑 ○봉정암 ○설담당 부도 ○오세암 ○영시암 ○장수대 ○운흥사지 석탑 및 황장금표석 ○대승폭포 ○소승폭포 ○12선녀탕 ○쌍용폭포 ○도적폭포

〈기린면〉

구 분	유물·유적·명승지 등
국가 지정 문화재	
지방 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리 이영순 효자각 ○현리 이두모 효자각 ○방동 열여 김해김씨 정려각 ○방동리 소나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가리 성지 ○박원굉 묘비 ○절충장군 김복형 묘비 ○엄공경 불망비 ○한진동불망비 ○방동 역수 ○명지가리 약수 ○백암 냉천 ○미륵불암 ○진어사 임상준 영세 불망비 ○5인 부사 선덕불망비 ○군수 김영규 선정비

〈서화면〉

구 분	유물 · 유적 · 명승지 등
국가 지정문화재	○대암산 천연보호구역(기념물 제246호)
지방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자료	○설화순직 장병 충혼비 ○백인엽 장군 송덕비 ○천도리 소나무
기 타	○당봉 성지 ○서화리 3층 석탑 ○대암산 용늪

〈상남면〉

구 분	유물·유적·명승지 등
국가 지정문화재	○개인산 약수(보물 제531호)○
지방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산 효열부 강릉김씨 정려각 ○상남 열여 전주 이씨 정려각 ○하남리 은행나무 ○현리 전투 위령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부대왕각 ○유재구 불망비 ○양교회 불망비 ○백사 김진악 시비 ○미산 산삼 금표석 ○효목사 ○하교동비 ○상남 폭포

인 쇄 : 2011. 11. 10.

발 행 : 2011. 11. 10.

지은이 : 최병현

펴낸이 : 남덕우

편집인 : 백창현

펴낸곳 : 인제문화원

전 화 : (033)461-6678 / 팩스 (033)461-0220

인 쇄: 마루금기획 031-954-0711

※ 이 책은 군비 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10 여 년 전 공직에서 물러나 얼마 안 되어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중국 연변에서 친척을 찾는 편지를 받았는데, 연고지가 ‘느면 그면’이라는데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가아리’라고 알려주었다. 부름 부름이 좀 어색하기는 하나, 우리나라 행정체제가 시·군·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느면’은 조선시대 말엽에 지금의 ‘인제읍’이 ‘현내면’‘방내면’‘내면’으로 불린 점을 고려할 때, ‘내면’에 해당되고, ‘그면’은 지금의 ‘가아리’가 ‘개면이’‘가아면촌’등으로 불리었기 때문이다. 물론 발음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편지를 보낸 이가 어렸을 때 들은 지명이라 기억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연변 현지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관습화된 발음에 의한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 서문에서 -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5-3
TEL: 033-461-6678 FAX: 033-461-0220